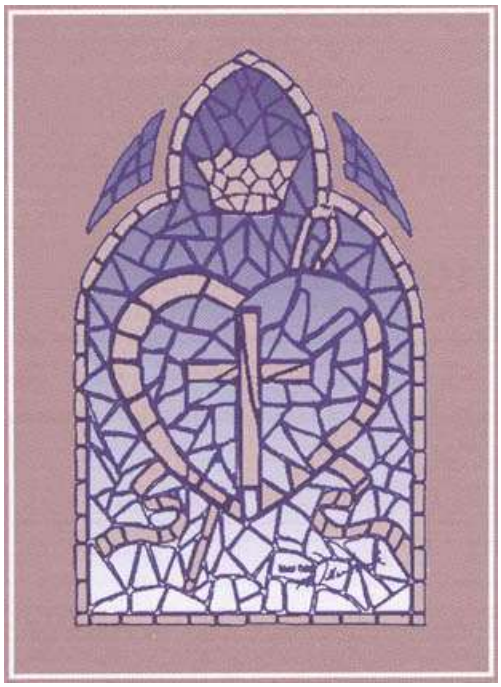
기독교 신앙과 삶

Christian Faith and Life

II

조동호 지음



세종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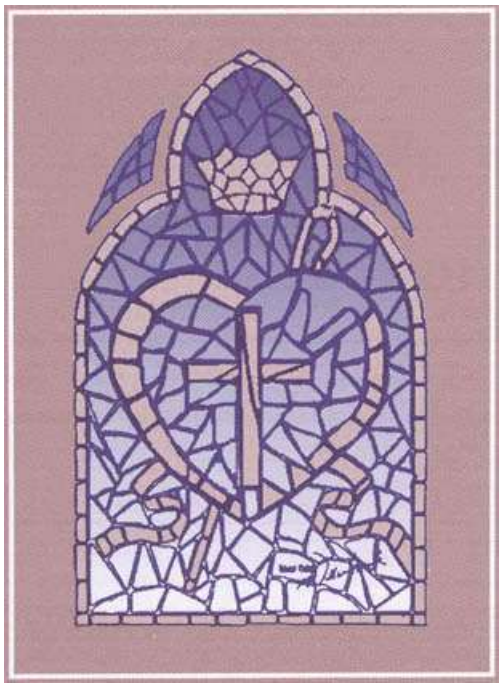
본서의 특징은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한층 높아진 현대인들이
그들의 지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함께
채울 수 있도록 기독교인의 삶의 내용을
쉽게 풀어 쓴데 있다.
본서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필요한 설교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Christian Faith and Life

기독교 신앙과 삶

II

조동호 지음



세종문화사

머리말

'난 알아요,' '환상속의 그대,' '교실 이데아,' '발해를 꿈꾸며' 등을 불러서 '서태지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신세대 문화의 대변자로 일컬어지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난 96년 2월 성균관에서 가진 은퇴식에서 한 말이 "창작의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다."였다. 창조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래야 한번 만들어내면 반복해서 부를 수 있고 또 청중들도 같은 노래지만 반복해서 듣고 싶어한다. 그래서 인기 가수의 음반은 수십만 또는 수백만 장씩 팔려나간다. 그러나 설교는 다르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라 할지라도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이상 할 수 없다. 아무도 중복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매주일 설교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니 설교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나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한다. 이런 뜻에서 보잘것없는 내용이지만 그간에 준비했던 설교내용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보았다.

본서는 먼저 나온 졸저 『기독교 신앙과 삶』의 두 번째 책이다. 먼저 나온 『기독교 신앙과 삶』에서는 '삶'보다는 '신앙'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기독교 신앙과 삶(II)』에서는 먼저 책에서 다루지 못한 '삶'에다 주안점을 두었다. 이로써 기독교

신앙과 삶의 문제를 미흡하나마 함께 다루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나온 책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실린 글들도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기독교 신앙과 삶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에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신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둠에 빛을 비추시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존재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타락을 회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정신이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도 법칙이 있다. 이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는 정반대이다. 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이 망가지는 죽음의 법칙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내버려두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망가지고 만다. 이것이 제2열역학 법칙이요, 엔트로피 법칙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좋았던 것이 나빠지고, 새 것이 헌 것이 되고, 살아 있던 것이 죽어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

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란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자연의 법칙에 거슬려 망가지는 것을 막고, 망가진 것을 고쳐나가는 것, 즉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에덴동산의 법칙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타락이후에 생겨난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자연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타락이후의 것을 타락이전의 것으로 되돌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있음이 없음이 되는 것, 생명이 죽음이 되는 것, 빛이 어둠이 되는 것,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것, 바로 선 것이 넘어지는 것,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것,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 평화가 분쟁이 되는 것, 일치가 분열이 되는 것,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 선이 악이 되는 것,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것, 믿음이 의심이 되는 것,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것, 긍정이 부정이 되는 것, 능동이 수동이 되는 것, 열림이 닫힘이 되는 것, 건설이 파괴가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 타락한 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것,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것,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것,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것,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 악을 선이 되게 하는 것,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 의심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는 것,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 모순을 조화롭게 하

는 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부정이 긍정이 되게 하는 것, 수동이 능동이 되게 하는 것, 닫힘이 열림이 되게 하는 것, 파괴가 건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의 참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삶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1998년 8월 1일
황산벌 연구실에서 조동호

차 례

제1장 하나님의 삶 · 11

1.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1) ····· 13
2.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2) ····· 19
3.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 26

제2장 예수의 삶 · 35

1.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 37
2. 예수께서 목표를 달성하신 방법 ····· 44
3. 예수의 삶이 주는 교훈 ····· 50
4. 예수의 눈물 ····· 56
5. 예수의 절규 ····· 62
6. 예수의 빈 무덤 ····· 69
7. 예수 부활의 증거 ····· 76

제3장 사도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 83

1. 기도할 때 ····· 85
2. 시련에도 불구하고 ····· 91
3. 가장 귀한 선물 ····· 98

4. 위기를 기회로 ····· 103
5. 준비된 그릇 ····· 110
6. 협동사역 ····· 116

제4장 박해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 123
1.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 125
2. 죽도록 충성하라 ····· 132
3.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138
4. 보응의 하나님 ····· 145
5. 승리의 노래 ····· 151
6. 시련은 짧고 영광은 길다 ····· 157
7. 최후의 승리 ····· 163

제5장 조선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 171
1. 조선 천주교인들의 순교영성(1) ····· 173
2. 조선 천주교인들의 순교영성(2) ····· 180
3.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1) ····· 186
4.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2) ····· 193

제6장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삶 · 201
1. 성경을 믿었던 천문학자들 ····· 203
2.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던 과학자들 ····· 210

제7장 기독교인의 복음적 삶 · 217
1. 기독교 신앙과 삶 ····· 219
2. '더하기'의 복음과 '빼기'의 율법 ····· 225
3. '더하기'식 삶과 '빼기'식 삶 ····· 231

제8장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적 삶 · 239
1.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 ····· 241
2.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 ····· 248
3.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 254
4.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 261

제9장 기독교인의 관리자적 삶 · 269
1.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 271
2.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 277
3. 변해야 생존한다 ····· 283
4.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 289
5. 믿음대로 된다 ····· 297
6. 심는 대로 거둔다 ····· 303
7. 벗삼아 읽은 책은 평생의 스승 된다 ····· 310
8. 땀흘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 318

제10장 기독교인의 고난극복의 삶 · 327
1.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 329
2.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335
3.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340
4. 메뚜기 콤플렉스 ····· 347
5. 콤플렉스를 이긴 사람들 ····· 353
6. 실명을 극복한 강영우 박사 ····· 359
7.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 ····· 364

제11장 기독교인의 감사의 삶 · 371
1. 감사의 기적(1) ····· 373
2. 감사의 기적(2) ····· 379
3. 감사, 그 역설적인 표현 ····· 385

제12장 기독교인의 긍정적 삶 · 393
1. 참 생명 ····· 395
2. 프로의식 ····· 400
3. 삶의 용기 ····· 407
4. 기독 청년의 바른 가치관(1) ····· 414
5. 기독 청년의 바른 가치관(2) ····· 421

제1장 하나님의 삶

1.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1)
2.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2)
3.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제1장
하나님의 삶

1.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1)
(요 3:16)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 생긴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물질세계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사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기란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장님이 코끼리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과 같다. 코끼리는 그나마 만져볼 수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 있고, 냄새를 맡아볼 수 있어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써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설사 본다해도 인식할 수조차 없다.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물을 자연 연소시킬 수 있는 뜨거운 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은 인간에 대한 눈물겨운 배려와 사랑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에 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사랑과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도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 또 하나님을 보고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아마 없을 것이다. 만일에 모든 인간이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든지, 멀리 있는 사람의 행동거지를 다 살필 수 있다든지 하면, 얼마나 거북하겠는가? 만일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생각을 꿰뚫어 본다든지, 또는 부부사이에 서로의 생각을 꿰뚫어 본다든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모든 행동거지를 낱낱이 살필 수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는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마 좋은 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또 살피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신 채, 참고 기다리면서 인간들의 회개와 거듭 태어난 삶을 촉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며,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산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며, 태양광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저주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

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림자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성경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림자의 세계라고 말한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물체를 인식하듯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희미하나마 분명한 도구이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생긴 모습을 알 수 없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영으로 만나 주신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적 고백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요한복음 3장 16-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요, 외아들로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게 하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희생적인 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사랑과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노예나 기계처럼 부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나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다. 말하자면, 자율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

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 인간이 피조물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권한을 희생시켜, 그 몫을 인간에게 주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악한데 사용하기를 즐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며 심지어 반역까지 하면서 죄를 밥먹듯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배반자들로부터 권한을 빼앗고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희생적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범한 죄를 떠 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형까지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을 제한하시고, 당신의 몫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실로 엄청난 희생이며, 위대한 사랑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세상에 죄악과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몫인 구원과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의 몫인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

셋째, 재림을 연기하시며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배반자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고 찾으신다. 찾아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는 무조건적이다. 인간에게 무슨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절대자의 특권을 제한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반면, 우리 인간들은 책임을 저버리거나 떠넘기기 바빴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

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대문 밖을 서성이며 애간장을 태우는 부모처럼, 돌아온 자녀들이 살게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천년이고 이천 년이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약속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에 예수의 재림이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예수의 더디 오심이 있었기에 자격도 없고,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까지 영생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희생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신 인류를 위해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현 우주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불러모으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사업을 수행토록 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만을 위한 나라로 착각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적자라는 우월감에 빠져 세계선교라는 과업을 수행치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약처방으로 이 세상에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충만한 수를 채우도록 하셨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숫자이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행한 것은 우리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은 신세계에 살게될 사람의 수를 몇몇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과 같은 소수의 나라에 국한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들에 개방코자 그 숫자를 크게 늘려 잡으신 것 같다. 그렸기에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예수의 더디 오심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이다. 재림을 뜻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παρουσία)이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임재' 혹은 '존재'를 뜻한다(빌 2:12). 이 말은 좁은 의미에서 여행자의 '도착'을 의미하기도 한다(고후 7:6). 헬라어 파피루스에 의하면, 이 말은 고위층 인사들, 특히 왕이나 황제가 자기 지방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방문이 있을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와 오신 왕에게 씌울 관을 마련키 위해서 선택받은 그 도시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 주시려고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자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2:19; 딤후 4:8).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원리로 볼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어 그분에게 씌워 주어야 할 것이나, 이천년 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구원

코자 했던 하나님이 이제 또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충실한 종처럼 신앙을 잘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이다. 하나님이 받아 써야할 승리의 월계관을 사양하시고, 오히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사랑이요 희생인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것이나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 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절대적인 주권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재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림을 미루시며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끝까지 잘 참고 믿음생활에 승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상을 베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당한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더디 온다고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자주 침묵하시는 것이나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나 재림의 지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생 때문이란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2)

(빌 2:5-8;고후 1:20-22)

『좋은 생각』 97년 5월 호에 실린 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라는 좋은 시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쌀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산다는데

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크게 좌절하고 자주 낙심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한 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혹은 지금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실망을 했거나 배신감을 느낀 경우들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것, 자주 침묵하시는 것,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찾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시는 것, 재림을 미루시며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앞의 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할 그 자리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5-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고 하였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고 하였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하였다.

이들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로지 우리 인간을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리를 버리시고, 외아들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최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한과 모든 특권을 버렸을 뿐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끼리 화목하며, 자연과도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이다. 이 얼마나 큰사랑이며, 큰 희생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포기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매우 존귀한 분이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말씀

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과의 화친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뜻한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본래 허물 많은 인간이 인간들의 배반으로 진노한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과 화친을 맺으셨으며, 또한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고 이 화친을 더욱 견고케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화친은 우리 인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솔선해서 외아들을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이는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희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법은 있어도 신이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된다는 법은 없다. 또 신에게 바친 제물을 인간들이 나누어 먹는 일은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된 제물을 인간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법은 없다.

조선조의 의례절차를 적은『춘관지』에 따르면, 경칩이 지나면 임금이 제주가 되어 서울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檀)에서 소를 잡아 농사를 다스리는 신(神)인 선농에게 제사를 바쳤다 한다. 이때 바쳐진 소는 쇠머리며 내장이며 뼈까지도 버리지 않고 솥에 넣고 끓여서 임금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평등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를 선농탕이라 했다. 설렁탕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다.

출애굽기 24장 5-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과 화친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성스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말씀이 있다. 특히 화목제물인 경우에는 내장과 기름만을 불사르고 고기는 제사 후에 제사를 드린 자

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레 1-7장).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법이지,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바쳐서 희생한 후 그 살코기와 피를 인간들이 먹고 마시게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만찬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인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몫인 저주와 죽음을 취하셨다. 이 얼마나 큰사랑이며 희생인가?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값없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이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1장 13-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다.

만일에 우리가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 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우리는 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

다. 계약서에는 대지와 건평, 그리고 위치와 양도조건 즉 매매가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지불 방법 등이 기록될 것이다. 주인과 합의된 매매가는 사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돈이다.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면 쌍방이 매매계약서에 인감을 찍어 계약성립을 확인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방법은 매우 다르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새로운 집과 땅을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매도자이신 하나님이 전혀 매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입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계약금을 지불해 주시고, 계약서에 인감을 찍어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 주신다. 이 때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계약금과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이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희생인가? 매매계약도 우리가 원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얼른 하나님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슬픔과 아픔이 휩쌀 때면 얼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될 것이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얼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될 것이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맞을 때면 얼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외롭

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얼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얼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얼른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다.

3.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요 3:16)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2)'에서 소개했던 시(詩),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의 첫 소절이다.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크게 좌절하고 자주 낙심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한 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혹은 지금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실망을 했거나 배신감을 느낀 경우들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

며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사랑과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물을 자연 연소시킬 수 있는 뜨거운 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도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존재하신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다.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고용인들은 고용주 앞에서 불편해하듯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때로는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것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드러내 보여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은밀하게 조용히 하는 헌신은 자기 희생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둘째,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사랑과 희생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다.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노예나 기계처럼 부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나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다. 말하자면, 자율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

드신 피조물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만물의 으뜸이 되었다. 인간이 피조물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권한을 희생시켜, 그 몫을 인간에게 주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인간의 배반과 반역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인간에게 일부 양도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더라도 남에게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권한을 쥐고 놓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헌신은 자기 희생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재림을 연기하시며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집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대문 밖을 서성이며 애간장을 태우는 부모처럼, 돌아온 자녀들이 살게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천년이고 이천 년이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약속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에 예수의 재림이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 예수의 더디 오심이 있었기에 자격도 없고,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까지 영생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을 미루고 기회를 주며 기다려 주는 것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재림을 뜻하는 헬라어 '파루시아'는 '임재' 혹은 '도착'을 뜻한다. 황제가 어떤 지방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도착하게 되면, 황제에게 씌울 왕관제조와 체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게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말한다. 마땅히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씌워 드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취할 영광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할 그 자리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고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로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권한과 특권을 버렸을 뿐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끼리 화목하며, 자연과도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지간에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

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말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과의 화친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뜻한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본래 허물 많은 인간이 인간들의 배반으로 진노한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간과 화친을 맺으셨으며, 또한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고 이 화친을 더욱 견고케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화친은 우리 인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솔선해서 외아들을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이는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희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법은 있어도 신이 스스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된다는 법은 없다. 또 신에게 바친 제물을 인간들이 나누어 먹는 일은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이 된 제물을 인간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법은 없다.

조선조의 의례절차를 적은 『춘관지』에 따르면, 경칩이 지나면 임금이 제주가 되어 서울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檀)에서 소를 잡아 농사를 다스리는 신(神)인 선농에게 제사를 바쳤다. 이 때 바쳐진 소는 쇠머리며 내장이며 뼈까지도 버리지 않고 솥에 넣고 끓여서 임금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평등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를 선농탕이라 했다. 설렁탕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다.

출애굽기 24장 5-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하

신 하나님과 화친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성스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법이지,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바쳐서 희생한 후 그 살코기와 피를 인간들이 먹고 마시게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성만찬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인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몫인 저주와 죽음을 취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화평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간에 화평케 하는 일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나 값없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이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까지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다.

만일에 우리가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 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우리는 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

다. 계약서에는 대지와 건평, 그리고 위치와 양도조건 즉 매매가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지불 방법 등이 기록될 것이다. 주인과 합의된 매매가는 사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돈이다.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면 쌍방이 매매계약서에 인감을 찍어 계약성립을 확인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방법은 매우 다르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새로운 집과 땅을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매도자이신 하나님이 전혀 매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입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계약금을 지불해 주시고, 계약서에 인감을 찍어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 주신다. 이 때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계약금과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이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이 성스런 매매계약도 우리가 원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값진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든지, 인간에게든지 간에 값없이 주는 것이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어 지친 사람들에게, 슬픔과 아픔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일러주는 일도 헌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남 앞에서 나팔불지 아니하고 남 모르게 하는 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남을 믿어 주고 밀어

주는 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기회를 주며 기다려 주는 일,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남에게 돌리는 일,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버리는 일,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화를 만드는 일, 가장 값진 것이라도 조건 없이 주는 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한 일 등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값진 헌신일 수 있다.

제2장 예수의 삶

1.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2. 예수께서 목표를 달성하신 방법
3. 예수의 삶이 주는 교훈
4. 예수의 눈물
5. 예수의 절규
6. 예수의 빈 무덤
7. 예수 부활의 증거

제2장

예수의 삶

1.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요 6:38-40)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아무 목적 없이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마치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자국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적국에 침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뽑아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를 모른 채, 또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택하고 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연에다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고,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면서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간다. "잘되면 좋고, 안돼도 할 수 없고, 산다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자 했다. 예수는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학교에 나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부서진 집과 문을 고치고, 집안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면서 생각하셨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부서진 집과 문틀은 목수인 내가 고치면 되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마 9:36; 막 6:34)하는 민중의 부서진 몸과 영혼은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왜, 부모님들은 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을까?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 아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목수의 일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고, 좌절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셨다. 예수는 회당에서 배웠던 이사야 61장 1-3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고 한 말씀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때로부터 예수는 자신의 할 일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집을 고치는 '목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메시아의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다. 그래서 예수는 후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눅 9:58)고 하셨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눅 9:22)고 하셨는데, 결국 반란죄로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셨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제국의 지배아래 있었는데, 당대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민중'을 위하기보다는 로마제국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하는 매국노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불쌍한 민중을 돌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수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반란자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이다.

예수는 이 모든 시련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예상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연령인 나이 30세가 되자, 목수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전파하는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 2:10)이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는가를 살필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16-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이 부서진 집을 고치는 목수의 일이 아니라, 심령이 부서진 인간을 고치는 메시아의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웃고, 나사렛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려고까지 하였다.

또 누가복음 7장 19-22를 보면, 체포되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자신의 일이 부서진 집을 고치는 목수의 일이 아니라, 소경을 보게 하며, 앉은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예수는 복음서 여기 저기에서 자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 6장 38-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위대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시데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거미와 같이 올가미를 놓아 남을 등쳐먹고 사는 유형, 둘째는 개미와 같이 자기만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기적인 유형, 셋째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꿀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위대하신 것은 그분이 남을 해쳤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

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기 때문이다.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는가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보다는 어떻게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는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예수는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민중'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병을 고쳐 주셨으며,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끝내는 목숨까지 바치셨다.

97년에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두 여인의 죽음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다이애나 왕세자 빈과 테레사 수녀이다. 당시 온 세계는 두 '세계적' 여인의 연이은 죽음 때문에 큰 충격과 함께 무성한 화제에 휩싸였다. 더 없는 축복과 선망 속에서도 끝내 불행했던 한 여인과, 온갖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베풀며 행복했던 한 성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다이애나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귀족의 가문에서 출생하여 찰스 황태자와 결혼하여 궁전에서 살았으며, 호화찬란한 생활을 했지만, 가정 불화로 인해서 다섯 번 자살을 시도했고, 대식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는가하면, 국적을 초월해서 수많은 남자들과 연애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애인과 함께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다이애나와 함께 죽은 도디 알 파예드는 엄청난 플레이보이로써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인 브룩실즈, 위노나 라이더, 줄리아 로버츠와 교제했었고, 다이애나 또한 찰스 황태자와 별거하기

직전부터 자신의 경호원인 제임스 길베이, 럭비 선수 윌 칼링, 미술 거래상 올리버 호어, 아시아의 재벌 글루 라바니, 부동산 재벌 크리스토퍼 횃리, 파키스탄 심장전문의 하스나트 킨,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 영국의 은행가 필립 댄, 유명 가수 스팅, 배우 톰 행크스,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 신흥 종교 교주 앤터니 로빈스, 심지어는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윌리엄 밴 스트로 벤지까지도 자신의 연애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의 이와 같은 삶은 전적으로 그녀의 바람기 탓만은 아니며, 한편, 왕세자 빈으로써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존경받을만한 삶이 아니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 이미 12살 때에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그 후 6년간 테레사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자신의 사명은 가난한 빈민들을 돌보는 것임을 깨달았고, 18세 때에 부모 친척과 고국을 떠나 인도 캘커타에 있는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갔다. 그 곳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1948년 어느 날 기차 여행 중에 기도하다가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과 기거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그 때 테레사는 예수께서 극빈자, 버려진 사람, 집 없는 사람들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께 헌신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할 새로운 임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 그로부터 테레사는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하였고, 이년 후에는 이 선교회를 정식 수녀원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테레사는 이 수녀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 고침을 주고, 집 없는 자들에게 잘 곳을 제공하였다.

테레사는 캘커타에서만 3만 6천명의 부랑자들을 돌보았으며, 어린이집을 세워 버려진 고아들과 미혼모들, 그리고 불구아들과

정신박약아들을 돌보았으며, 나환자촌을 세워 150명의 나환자들을 돌보았다.

'사랑의 선교회'는 1948년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캘커타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분원이 설치되었고, 남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처에 67개소에 이르는 분원이 설치되었다. 이 일로 테레사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해온 버린 자들에 대한 구호 사업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했다.

사람에게는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는가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보다는 어떻게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는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예수는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민중'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병을 고쳐 주셨으며,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테레사는 나약한 여성에 불과했지만, 일찍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가난과 병으로 버려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을 고쳐 주었으며, 온몸으로 봉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얼마나 확고하고 뚜렷한 것이었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테레사 역시 마찬가지이

다. 테레사의 삶은 테레사 자신이 말했듯이 테레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삶 그 자체였다. 예수가 위대하고 테레사가 위대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 바쳐 봉사했다는 데에 있다.

2. 예수께서 목표를 달성하신 방법

(눅 9:51)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명예와 권세를 추구할 그 때에, 예수는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란 시골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러나 예수는 소년기에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힘써 알고자 했고, 청년기에 그 뜻을 힘써 간직하였으며, 30대에 이르러, 그것도 부와 명예와 권세욕이 가장 강한 그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자 힘써 노력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예수는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고향사람들에게 밝혔고, 세례요한에게도 밝혔고, 제자들에게도 밝혔고, 자기를 붙잡아 왕을 삼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명백하게 밝히셨다.

예수께서 고향사람들에게 이사야 61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일이 부서진 집이나 문틀을 고치는 목수의 일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날을 전파하는' 메시아의 일이라고 밝히셨다. 그 때에 고향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고 죽이려고 하였다(눅 4:16-30).

또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 때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이 할 일은 독립투쟁이나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오,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요 6:38-40)이라고 밝히셨다. 그 때에 열두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를 비웃고(요 6:41-42),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요 6:66).

예수와 같이 자기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일을 남에게 알리는 데에 있다. "나는 미생물학자가 되어 오염된 물과 토지를 살려내겠다." "나는 값싸고 질 좋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 부국으로 만들겠다." "나는 교사가 되어 참교육을 실현하겠다." "나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나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겠다." "나는 기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나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남에게 알리는 사람들이다. 남에게 알릴 뿐 아니라, 책상 앞에 써 붙여 놓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는데 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는 식으로 비웃고 괴롭히고 싫어한다. 그러나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가를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남이 무슨 말로 유혹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목표를 이루고 말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를 실행하기에 앞서 무려 40일간이나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기도로써 준비하신 분이시다. 이 때에 마귀가 예수를 찾아와 30대의 젊은이가 뿌리치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던졌다. 이들 유혹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도 없이 떠도는 예언자가 되지 말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 수 있는 부를 챙길 수 있고,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에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권세를 부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 유혹을 과감히 물리쳤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떠했는가? 요셉도 소년기부터 하나님이 주신 큰 포부를 갖고 있었다. 자신은 비록 열두 형제들 중에 열한번 째로 태어났지만, 형들보다 더 위대하게 된 후에,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거라는 큰 포부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자주 자신의 포부를 형들과 부모에게 밝혔다. "형님들, 나는 언젠가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형님들은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내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했으며, 나중에는 이집트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먹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포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믿고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의 포부는 남이 알도록 자꾸 입 밖으로 실토를 해

야 한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도 빠뜨리면 안 된다. 자주 읽어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어야 한다.

필자의 친구에게 98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이 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성취해야할 목표가 없다는 데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생물이나 동물학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상급학년이 되면서 그 꿈을 버렸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찬양에 빠져서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4년간 친구가 그의 아들과 벌린 실랑이가 바로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에게 말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 그 일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넌 무엇이 될래?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금년의 목표는 무엇이며, 내년의 목표는 무엇이며, 또 내후년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런 것이 있거든, 네 책상 앞 책장이나 벽에 써서 붙어 봐라." 그런데 이게 무려 4년이나 걸렸다. 작년부터 비로소 무엇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처음 6개월간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학기말고사 때 공부하는 태도가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성적도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메모판을 사서 책상 앞에 달아주면서 자기 목표를 쓰도록 했고, 목표달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쓰도록 했더니,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목표를 세워 메모판에 기록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목표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달려가야 할 꼴인 지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둘째, 예수는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 노력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가 이 세상을 산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산 것이 아니다.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다. 예수에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웃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그분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쉽게 사신 게 아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웃고 울고 많은 시간 고뇌와 번민 속에서 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누가는 복음서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전하고 있다. 이때로부터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 중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많은 분량(42%)을 예수의 이 여행길에 할애하고 있다. 예수의 이 여행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 누군들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극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도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이 길은 고통의 길이었다. 괴로움의 길이었다. 가고싶지 않은 길이었다. 다른 한편 제자들과 민중은 예수의 이 여행이 왕이 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막 8:31)을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만류하는 제자도 있었고(막 8:33), 서로 누가 높은가를 놓고 다투었으며(막 9:33-34),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께 찾아가서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제자들까지도 있었다(막 10:42-45).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권력층에 속한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가 정말 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수를 경계하며 시기하고 질투할 뿐 아니라, 모함하였고, 결국 잡아죽이려고 하였다. 이 때마다 예수는 민중의 유혹을 뿌리치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 예수는 체포되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힘겹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였고, 천사가 내려와 돕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눅 22:43-44).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는 결국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 요한복음 19장 17-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를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롬 10:4)고 하였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다."(롬 8:4)고 하였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목적을 달성하셨다.

앞글에서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출생했는가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보다는 어떻게 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테레사 수녀의 삶도 살펴보았다. 그녀의 위대한 삶은 진실로 예수의 삶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보다 위대하지 못했던 것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버림받은 자를 돌본 일에서 예수보다 열등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서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테레사의 삶은 버림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결코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에서 그 진가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분의 죽음은 나이 많아 늙거나 병들어서가 아니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 그분의 죽음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된 죽음이었다. 한 마디로 예수는 가장 값지게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살았던 분이시다. 그분의 값진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고 큰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남에게 알렸다. 달려가야 할 꼴인 지점을 알고 힘차게 달리셨다. 자기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려고 노력하셨다. 기도하셨다. 유혹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

3. 예수의 삶이 주는 교훈

(고전 9:24-27)

앞글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신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낸 목적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말을 했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목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다 같은 24시간을 하루에 쓰면서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남

아서 심심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 자신의 삶을 따져 보아야 한다. 목표에 도달했다면, 성공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정하고, 종이에 적어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고, 굳건한 믿음과 열심 있는 기도로써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신앙의 발전이든, 성적의 향상이든, 삶의 질의 향상이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된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말을 곧잘 듣게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 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즉 마음의 소원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달성해야할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목표를 향해서 앞뒤안보고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뜻이다.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야 할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다. 또 예수는 자신의 목표를 자주 말로 표현해서 기정사실화 시켰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셨다.

아무 것에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맞힐 수 없다. 성공은 성공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만 온다.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추측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지 말자. 오늘 지금 곧바로 목표를 세우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겨냥하자. 그러면 적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일에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목표와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노력한다.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를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SBS에서 '속사포 만담'으로 인기를 끄는 김의환·강성범은 대사 한 줄 외우기 위해서 백 번 이상을 연습한다고 한다. 5분도 안돼는 방송 시간을 위해서 1주일을 완전히 바친다고 한다. 대본 짜는데 이틀, 춤 개발과 연습에 이틀, 대본 외우는데 사흘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운의 마라토너 김완기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10mm이나 더 길고,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는 발바닥에 물집이 잘 잡히는 단점을 가졌다고 한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봉주 선수도 짝발에다 평발이라고 한다. 왼발이 오른발보다 4mm나 크다고 한다. 그런데 이봉주는 지독한 오기의 '연습벌레'라고 한다. 독사로 알려진 정봉수 감독이 안쓰러워 할 정도로 열심히 연습한다고 한다. 이런 혹독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봉주는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영예의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농구나 야구 선수들 가운데는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연습벌레들이 많다고 한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야구천재 이종범이다.

이종범은 94년 페넌트레이스 MVP, 93년과 97년 한국시리즈 MVP 등에 선정된 국내 최고의 야수로써, 지난 5년 통산 타율 3할3푼2리, 홈런 1백6개, 안타 3백15개, 도루 3백10개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으로 97년 이종범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에 우리 돈으로 64억 원에 트레이드 되었다. 그런데 이종범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로지 훈련 때문이었다. 이종범은 빠른 발, 강한 어깨, 민첩한 발놀림, 호쾌한 방망이 등,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천재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조건은 야구선수로서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한마디로 가냘프다는 것이다. 이런 체격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에서 홈런 30개를 쳐낼 수 있는 엄청난 스피드가 나오는 것은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종범은 주변에서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비아냥거림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씩 노력을 했고, 개인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덩치 큰 동료들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새벽 별을 볼 때까지 열심히 연습했다고 한다.

유명 선수들에 대한 신문기사들은 대단하다. 나래의 주희정을 '연습벌레'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야구박사 박재홍을 두고, '천재는 땀으로 탄생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삼성의 최익성을 두고, '스타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연습생, 최익성, 신화는 있다'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익성은 94년 계약금 한푼 없이 연습생으로 삼성팀에 들어가 4년간 무명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들으며 지독히 훈련했다고 한다. 이런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에 최익성은 무명의 탈을 벗을 수 있었고, 97년 시즌에 22개의 홈런과 33개의 도루로 '20-2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습벌레들이 모인 곳이 스포츠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분야에도 있고, 기술분야에도 있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목표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쉬지 않는다.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

이 오늘에 이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겠다는 매우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으며, 그밖에도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부르셨다. 그러다가 결국은 외아들 예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면 좋은 점들이 많다. 첫째, 목표는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며, 왜 가야하는지를 일러준다. 둘째, 목표는 우리에게 달려갈 힘을 준다. 마라토너는 발에서 피가 나고 쥐가 나고 옆구리가 결리고 힘이 빠져 쓰러질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달린다. 왜 그런가?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목표는 열심을 내게 하고 인내심을 키워준다. 와심상담이란 말이 있듯이, 목표가 있으면, 장작더미 위에서도 잘 수 있고, 방안을 들고 나갈 때마다 쓸개를 빨 수도 있다. 넷째, 목표는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차범근 축구감독이 이끄는 국가 대표팀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훈련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월드컵 16강 진출이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목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준다. 시간의 낭비를 막아주고, 돈의 낭비를 막아준다. 여섯째, 목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을 가져다준다. 기쁨을 가져다준다. 만족을 가져다준

다.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코코넛 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에 토끼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뜨기가 무섭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무르익은 코코넛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토끼는 세상의 마지막이 왔나보다고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토끼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여우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뒤를 또 사슴이, 그리고 원숭이가 그 뒤를 따랐다. 이리하여 그 산에 살던 모든 짐승들이 토끼를 앞세우고 모두 필사적으로 달렸다. 죽을힘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그 중의 한 짐승이 왜 이렇게 달려가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원숭이는 사슴이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사슴은 여우가 달려가기 때문이라고 하여 결국은 토끼에게까지 왔다. 토끼는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큰 소리를 듣고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는 종전의 모습 그대로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였다. 그래서 짐승들은 토끼가 낮잠을 잤던 곳으로 같이 가보았다. 그리고 그 꽝하는 소리가 코코넛 열매 떨어지는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삶에 목적이 없는 사람의 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짐승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다음과 같은 마음의 다짐을 가져야 한다. (큰 소리로 읽는다)

나는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봉사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항상 믿음의 길을 걷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는 성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나는 성공한 후의 내 삶을 그려보고 있다.
나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항상 절망적인 생각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내 자신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일단 계획하시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목표를 세우도록 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공하도록 계속 자극을 주고 계신다.

4. 예수의 눈물

(히 4:14-16)

예수의 성품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다. 아버지와 같은 모습에서는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을 혼내주는 든든하고 정의로운 후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머니와 같은 모습에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마음 아파하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모습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쫓으시며 폭풍을 진압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습에서 발견되고 있고,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모습은 병든 자를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가난한 민중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천국복음을 들려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서 발견된다. 정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알렉산더와 같은 무적장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아이들을 감싸안으시며 비탄에 빠져 목자 없이 방황하는 민중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부드러

운 모습이 발견된다.

그런데 예수가 강한 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민중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것들이고, 부드러운 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가련한 민중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민중을 괴롭히는 마귀나 귀신 또는 정치인이나 종교인들과 관련된 경우 예수는 그들의 권위를 꺾고 권세를 멸하시는 강한 분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들은 복음서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폭풍을 잔잔케 하시며, 귀신을 몰아내시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말씀의 권위로 꺾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또 예수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민중과 관련된 경우 그들과 함께 하는 부드러운 분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들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처럼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갇힌 데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는 민중을 괴롭히는 세력들에게는 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대항하셨고,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민중들에게는 더 부드럽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감싸안으셨던 것이다.

예수의 이런 두 가지 성품은 모두가 억압과 번뇌와 고통 중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의 정의롭고 능력 많고 강한 성품은 우리 인간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의 자애롭고 부드러운 성품은 우리 인간을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의 정의롭고 능력 많고 권세 있는 성품은 그분의 신성에서 나온 것이고, 예수의 자애롭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은 그분의 인성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고, 또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성이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과 부성을 성품으로 받았고, 마리아로부터는 인성과 모성을 성품으로 받으셨다.

예수는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간을 해방시킬 수가 있었고, 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체험하실 수 있었다. 지금도 예수는 신성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성으로 우리를 감싸안으신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의 성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거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이 갖는 의미는 화려하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화려한 행렬과 환영인파를 볼 수 있는 날이고, 부활주일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를 축하하는 제자들의 큰 기쁨을 볼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둔 주간에는 예수의 눈물과 고난이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수의 눈물이 있고 난 후에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고, 매맞음과 십자가에 못박힘과 죽음이 있고 난 후에 화려한 부활이 있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신 일을 세 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우신 일이 모두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세 번째는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 중에 기도하며 우셨다.

예수의 이 세 번의 눈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죽음이다. 예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고 우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우셨다.

눈물과 죽음! 사람이 죽으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비통해하며 엉엉 소리내어 운다. 그만큼 죽음은 비통한 것이고, 고통스런 것

이고, 무서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갈라놓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든지, 영적인 죽음이든지, 영원한 죽음이든지 간에 죽음만큼 큰 고통과 슬픔이 없다. 그래서 예수도 이 죽음 앞에서 우셨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셨다. 마리아와 조객들이 슬픔으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격해지셨다. 성경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요 11:33)고 하였다. 그러나 희망 없는 자들같이 통곡하지 않으시고, 다만 소리 없이 눈물만 떨구셨다.

예수의 이 소리 없는 눈물은 복합적인 눈물이다. 첫째, 예수의 이 눈물은 인간이 겪는 죽음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에서 나온 눈물이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고통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예수의 이 눈물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다. 예수는 자기 자신도 몇 일 뒤에는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 죽음의 고통과 맞부딪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셋째, 예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련한 인간들을 영원히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눈물은 그 자신의 눈물이자 민중의 눈물이며 민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보시고 우셨다(눅 19:41). 이 때의 울음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린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소리내어 우신 눈물이다. 민중들은 대제국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며 겉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예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리내어 우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왜 소리내어 우셨을까?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foundation of peace)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성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루살렘 성의 패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소리내어 우신 것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이 예루살렘 성과 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많은 불쌍한 민중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닥칠 운명을 모른 채, 메시아를 외쳤고, 그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이 가져다 줄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고서야 찾아오는 법이다. 아무도 죽고자 아니할 때,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희생하고자 아니할 때, 아무도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 오직 예수만이 그것을 아셨다. 자신이 죽어질 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자신이 희생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자신이 징계를 받을 때,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자신이 매를 맞을 때,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는 소리내어 우셨다. 눈물이 있고 난 후에 기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한치 앞을 못 보는 목자 없는 민중이 가련하여 우셨고, 민중의 아픔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려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도 우셨고, 자신에게 운명지어진 이 엄청난 죽음 때문에도 우셨다. 그분도 인간이었는데, 어찌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우셨다. 예수는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고민이 극심하여 죽을 지경이었고, 몹시 슬퍼하셨다고 적고있다. 이곳에서의 예수의 슬픔은 친구의 죽음도 아니고, 민족의 패망도 아니고, 자기 자신

의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분도 인간이었는데, 어찌 소리내어 우는 정도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이때의 예수의 형편을 성경은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뇌와 슬픔으로 기도하였는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적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눈물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다.

첫째, 예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거울이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은 이 예수의 눈물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인정하셨고, 인간의 고통을 분담하셨으며,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은 예수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친히 체험하셨고, 그 큰사랑을 나타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눈물은 인간의 고통을 체험한데서 나온 하나님의 눈물이며, 인간의 고통을 분담한데서 나온 하나님의 눈물이다.

둘째, 예수의 눈물은 인간의 눈물이다.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세주이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눈물은 민중의 고통에서 나온 눈물이다. 민중의 아픔과 고통을 감지하고 인정한데서 나온 눈물이다. 이 눈물이 없었으면 예수의 죽음도 결코 위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에 테레사 수녀가 민중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과 죽음은 결단코 위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인간의 아픔과 고

통을 깊이 체험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녀의 삶과 죽음은 위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도 그분이 흘린 세 번의 눈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는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병정의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견디고 참을 수 있었고, 인간의 아픔과 죽음을 대신할 수 있었다. 이런 체험 때문인지 예수는, 계시록을 보면, 가장 먼저 인간의 눈물과 배고픔과 목마름부터 챙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5. 예수의 절규

(막 15:34)

예수는 AD 30년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있었다. 이 여섯 시간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남아 있는 말씀은 일곱 개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한 개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세 개, 요한복음에 세 개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실린 세 개의 말씀은 모두가 기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 .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눅 23:34-46)고 하셨다. 요한복음에 실린 세 개의 말씀은 모두가 예수의 육신에 관련된 말씀들이다. 예를 들면,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 자, 이 분이 네 어머니 시다. . . 목마르다. . . 다 이루었다!"(요 19:26-30)고 하셨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마지막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막 15:34) 라는 말을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의 활동과 말씀을 수집하여 기록하면서 몇 가지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몇 가지 주제들은 '배척', '성령', '기도', 그리고 '여행'이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정치와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민중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를 그렸고, 그런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가야할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다가가시는 예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누가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까지 배신자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편 강도를 축복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기도 장면을 소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유일하게 소개하는 예수의 절망적인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소개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 절규는 아마 누가 당시의 신앙인들이 박해상황에서 울부짖었을 절규와 비슷한 것이었을 텐데, 누가가 생략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는 짐작하건대, 배신자와 박해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리시고, 강도까지 축복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수에게 이런 절망적인 절규는 적당하지 않을뿐더러 신앙인들에게 모범적인 기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요한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소개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소개하였고,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들과 권위 있는 말씀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육체의 고통을 모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효성스런 사람의 아들 예수였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가 유일하게 소개하는 예수의 절망적인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소개하지 않고, 그 대신에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 자, 이분이 네 어머니 시다. . . 목마르다. . . 다 이루었다!"(요 19:26-30)는 말씀만을 기록에 남겼다. 요한이 예수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생략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는 짐작하건대,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고, 갈증을 호소하시며 자신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예수에게 이런 절망적인 절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오로지 예수의 이 절규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신 말씀이 적어도 일곱 번은 넘을텐데, 단 한번의 절규만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예수께서는 왜 이런 절망적인 기도를 했을까? 또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은 끝장인데, 정말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어 본 소리일까?

아무튼 예수의 이 절규 속에는 인간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들도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게된다. 예를 들면, 하는 일마다 실패했을 때,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때, 정의가 불의에 졌을 때, 나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된다.

독일 사람, 카프카(Frahz Kafka)의 작품 중에 『변신』이란 것이 있다. 주인공 그레골은 외판원 생활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젊은 가장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의 몸이 보기에도 징그러운 한 마리 벌레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몸을 가지고는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직장에도 물론 나가지 못한다. 그의 모습을 본 식구들은 순식간에 변해버린다. 어머니는 졸도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그를 방안에 가두고 방문을 잠가 버린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던 그레골은 어느 날 갑자기 온 식구들의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 때부터 그레골은 그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고 허무감과 고독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의 생활이란 감금당한 채 방안에 넣어 주는 식사를 받아먹는 것이 전부이다. 그레골은 날이 갈수록 자신을 저주하며 고독과 열등감의 수렁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구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있는 그레골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들은 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랜만에 맞는 해방감을 만끽하듯 가족 산책을 즐긴다. 이렇듯 인간의 고독과 좌절과 절망과 배신감은 공통적이다.

그런데 예수는 정말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절규했을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이미 그와 같은 고통을 각오하고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나 예고한바 있다. 가난한 민중을 편들며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정치권의 안정을 위협했을 때, 안식일 법을 어겨가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들을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유대전통에 반기를 들었을 때, 성

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예루살렘의 가진 자들에게 대항하였을 때, 또 사십 육 년 이상 걸려서 지어진 성전을 헐면 사흘만에 다시 짓겠다며 예루살렘의 성전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였을 때, 예수는 이미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민중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외쳤던 예언자들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는 정말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절규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를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지배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에게 병 고침을 받고, 예수에게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버렸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해도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자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 빌라도 법정에서는 "없이하소서. . .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를 외쳐됐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가 힘있어 보일 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병을 고쳐주었을 때, 귀찮도록 따랐던 민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힘없어 보일 때,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 심지어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버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스승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예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런 나약한 민중들의 배신을 배신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들의 버림을 버림으로 받아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는 그들의 버림을 하나님의 버림으로 받아드

렸다.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절규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수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나누어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은 버려진 민중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톨스토이도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는 민화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것은 테레사나 톨스토이가 모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 .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마 25:40-41)이라는 성경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인간으로부터의 버림당함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당함으로 이해하셨을 것이다. 예수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나누어 생각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물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입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의 잘잘못을 하나님께 묻고 검토 받고 심판 받겠다는 뜻이다. 이 점에 관해서 목원대학교 송기득 교수는 그의 삶과 믿음의 에세이, 『살며, 믿으며, 바라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모든 승패는 결국 하느님 앞에서 결정된다. 하느님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인정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에는 하느님께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인정이 진정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욥이 뜻 모를 재난을 만나 부인이 떠나가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를 믿지 않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예수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절규할망정,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검토 받고 심판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문자그대로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자신을 철저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뜻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규는 어떤 물음이기에 앞서 아픔에 대한 호소이다. 예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입 밖으로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 물음은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는 절규에 가까운 요청이기도하다. 예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잡히시기 수 시간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 26:39)라고 기도한바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이 갖는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셨을 리 없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인간들을 구원코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인간들의 뜻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뜻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원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는 죽음을 거부하는

몸짓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절규는 산고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어찌 고통 없이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인데 어찌 그만한 고통이 따르지 않겠는가? 한 알의 밀 알이 썩어져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알곡이 맺히는 것이다. 그의 절규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절규하는 천둥번개와 같은 것이다.

끝으로 예수의 절규는 곧 하나님의 절규란 사실이다. 예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몸짓이자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죽인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철길에서 놀고 있는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차에 뛰어들 듯이 하나님은 우리 못난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절규에서 인간을 구원코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절규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역설이다.

6. 예수의 빈 무덤

(막 16:1-6)

예수의 빈 무덤과 부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실제의 무덤과 부활뿐 아니라,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무덤과 부활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무덤은 사단의 부정의 결과요, 예수의 빈 무덤은 하나님의 긍정의 결과이다. 인간의 죽음은 사단의 'NO'의 결과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YES'의 결과이다.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Karl Barth)는 부활을 사단의 'NO'에 대한 하나님의 'YES'라고

했다. 사단의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고 긍정한다. 무덤에 갇힌 자는 영원히 그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무덤을 박차고 밝은 세계로 나올 수 있다고 긍정한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긍정한다. 낮은 자는 높아질 수 없고 높은 자만이 영원히 높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아 질 것이요, 낮은 자는 높아진다고 긍정한다.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한다. 먼저 된 자는 영원히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는 영원히 꼴찌가 된다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긍정한다. 높은 산은 항상 높고 낮은 골짜기는 항상 낮다라는 사단의 부정에 대해 하나님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긍정한다. 그래서 사단의 이 부정에 빠져들면 그 자체가 죽음이요 무덤이지만, 하나님의 긍정에 빠져들면 그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래서 시인 구상은 그의 「부활송」이란 시에서 "당신[예수]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고 노래했다.

둘째, 사단은 인간을 끝없이 회칠한 무덤에 가두려고 한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썩고 냄새나고 눅눅하고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한다.

미국에서는 공동묘지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무덤들을 화려하게 꾸며놓았기 때문이다. 비싼 대리석으로 만든 화려하고 거대한 집처럼 생긴 무덤들이며, 납골당과 동상들을 볼 수 있다. 잘 포장된 도로며, 잔디며,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린 공동묘지는 산책코스로도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무덤들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들뿐이란 점이다. 대단히 크고 대단히 화려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은 무덤인 것이다. 그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뿐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인간을 끝없이 회칠한 무덤에 가두려고 한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썩고 냄새나는 어두운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한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 인간을 부정과 비관과 허무와 죽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시기와 질투와 중상과 모략과 사치와 낭비와 교만과 허세에 빠뜨려 폐쇄된 공간인 무덤에 가두는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면, 겉모습은 화려해질는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썩고 병들어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다. 예수의 이 말씀은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여도 그 무덤 속에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뿐인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이 좋고 훌륭해 보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썩고 냄새나고 폐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면 무덤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당대의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민중을 위함이 없고, 그들의 가르

침에는 하나님을 위함이 없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정의가 없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다(딤후 3:5). 그들은 율법이란 폐쇄된 무덤에 갇힌 자들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돌이켜 반성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영원토록 가두려고 했다. 예수의 시체뿐만 아니라, 예수의 자유롭고 복음적인 정신과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상마저도 썩고 냄새나는 무덤에 가두려고 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덤에 가두려고 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덤에 가두려고 했다. 세마포로 꽁꽁 싸고 묶어서 가두려고 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온유한 자들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과 긍휼히 여기는 자들과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화평케 하는 자들을 편들며, 그들에게 복을 비는 예수를 폐쇄되고 생명이 없는 무덤에 가두려고 했다. 세리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폐쇄적이고 편협한 율법풀이로 불쌍한 민중을 옭아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놓은 사두개파들에게 도전하며, 진정으로 인간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줄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천국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에 가두고 장정 20명이라도 굴릴 수 없는 무게가 무려 1.5~2톤이나 되는 큰돌로 입구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당대 최고였던 로마군인들로 하여금 보초까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 육중한 돌문을 열어제치고 냄새나는 육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벗어 던진 채 그 냄새나고 폐쇄된 죽음의 공간을 벗어나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다. 세마포가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가 없었다. 불의가 그를 지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는 빈 무덤만을 남긴 채 무덤을 박차고 나왔다. 자신의 몸을 꽁꽁 묶었던 죽음의 오랏줄 세마포를 풀어 던진 채 무덤을 탈출하여 밝은 세상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이자 정치적 술수와 비방이 난무한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 민중의 삶의 터전이자 새 출발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셨다. 그곳에서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하셨다. 그곳은 비록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는 민중의 한이 서린 곳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던 곳이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무덤에서 빼내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의 빈 무덤은 많은 빈 무덤의 출발신호였다. 예수의 새아침은 많은 새아침의 출발신호였다. 예수의 새 출발은 많은 새 출발의 시작에 불과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우리 모두도 예수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무덤을 벗어 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우리 모두도 죽음과 죄악과 구습의 세마포를 풀어버리고 하늘에 오른 예수처럼 하늘에 오르는 변화된 사람이 될 것이란 뜻이다.

교회사를 보면, 신앙 선배들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 자신의 썩고 냄새나는 육신을 묶었던 세마포를 풀어버리고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의 새아침을 맞았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본다. 이런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 초기 개신교 신자였던 서상륜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이 땅을 밟았던 1885년에 우리 나라에는 이미 평안북도 의주와 황해도 소래에 교회가 있었고, 서울에만 이미 70여명의 세례 지원자들이 있었다. 이 모두가 서상륜이란 사람의 전도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서상륜은 1849년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난 평안북도 의주 사람인데, 14세 때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십대의 나이에 만주를 넘나들며 무역을 했던 국제 보따리 장사꾼이었다.

그런데 그가 만주에서 선교사를 만나 예수를 믿고부터는 장사를 거둬치우고 만주에서 번역된 우리 나라 최초의 한글 쪽복음서를 번역하는 일과 또 출판된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와 『예수셩교 요안복음젼셔』를 봇짐 속에 숨겨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판매하며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기독교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는 만주에서 로스(Ross)라는 선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외모로는 공자와 맹자의 도를 섬기고, 스스로 문벌을 신뢰하고, 안으로는 교만과 궤휼과 거짓과 간음과 탐냄을 품어 남의 생명을 해하고 재물을 속이며 남을 얕잡아 보고 나만 잘 생겼다고 자랑하였고, 주위 사람이 흠잡아 말하기를, '면주자루에 개똥'이라고 하여도 오히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다녔으니,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심하고 무섭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면주자루에 개똥'이란 말은 '비단자루에 개똥'이란 말로써 겉모양은 멋진데 속에는 냄새나는 개똥이 담겼다는 뜻이다. 서상륜은 대단한 미남자였지만, 실상 속에는 냄새나는 개똥으로 차있었던 것이다. 이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자 회개였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 가문을 내세우며 자만했던 나날들, 남을 속이며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지난 날, 인간의 모든 악한 행실을 직업 탓으로 돌리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였다.

이일 후로 서상륜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철저히 반성

하면서 옛일을 떨쳐버렸고,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새롭게되자, 그는 비로소 질그릇에 보석을 담게 되었다. 교만하던 비단자루가 변하여 겸손의 질그릇이 되었고, 냄새나는 개똥대신에 천국복음의 보석을 담게되었다. 서상륜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와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천국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과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실로 서상륜은 복음을 받아드린 후에는 면주자루에 개똥이나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썩고 냄새나는 무덤의 현실, 빛이 없는 무덤의 현실을 박차고 벗어난 후에는 질그릇에 천국복음을 담는, 무덤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부활하였던 것이다.

셋째, 사단은 인간들을 회칠한 무덤에 가두려고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썩고 냄새나는 무덤에 가두려고 했다. 그런 그가 오늘날에는 인간들을 영원토록 무덤에 가둘 목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한다. 사단에게 이용만 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연의 법칙을 수호하며, 인간의 죽음조차도 가장 자연스런 자연의 법칙의 하나로 받아드리고 있다. 부활을 믿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또 유물론 사상에 기초하여 적자생존과 양육강식의 힘의 논리를 신봉하며,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였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우주가 폐쇄된 체계 속에서 자연의 법칙인 인과율의 사슬에 매어 숙명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이며, 하나님은 이 우주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사에 관심도 없으시며, 주권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인간도 이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에 속한 한 부품에 불과하며, 죽음도 아주 자연스런 것이어서 부활과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무덤에 가두는 사람들은 결

단코 빈 무덤을 남길 수 없으며, 부활의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옭아매는 세마포를 풀어내고 썩고 냄새나고 어두운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창조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부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긍정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7. 예수 부활의 증거

(마 27:57-28:15)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 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당신 나라의 오랜 전통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어떤 분이 물었다. 이 물음에 썬다 싱은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예수 부활은 기독교가 시작된 출발점이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알맹이이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부활을 믿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부활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은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수 부활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예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역사적 정황 증거들도 교회 안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자료 부족을 느끼지는 않다. 다만 이들 자료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즉 신빙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 자료들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예수 부활이 과학의 문제인지 또는 신앙의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예수 부활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는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다. 창조와 진화를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로 입증할 수 없듯이, 예수 부활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다. 현대기술과학은 죽은 자를 살려 낼 수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과학적 방법의 제한성을 인정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결국 자연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 즉 창조나 부활과 같은 것을 실험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히 11:3)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롬 10:9)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성서가 신앙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도 아무나 창조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커다란 복이기 때문이다.

예수 부활은 유물이나 문헌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는 고증학 방식으로 입증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 정황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부활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진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진실성 여부는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입증의 문제는 아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듯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예수의 부활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부활의 일차적 증거는 믿음의 문제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부활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발생된다면, 그것이 과학적 사실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수 부활의 독특성은 사라지고 만다. 또한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독특성도 상실되고 만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시면서 범죄자들을 즉시 처벌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종교도 법도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과학도 학문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실재에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완전한 세계의 불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그림자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벗어나 실재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옮겨가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쳤다.

둘째, 예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의 수가 많았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열 한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목격한 사람의 수가 오백명도 넘는다.

예수가 묻혔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예수가 묻혔던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다.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진흙을 이겨 틈새를 봉한 후에 진흙에 관인을 찍어 당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당대 최고였던 로마 군인들이 4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인은 떨어져 나갔고, 돌문은 열려 있었으며, 무덤 속에는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남아 있고, 시신은 무

덤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예수는 바위를 뚫어 만든 새로운 동굴무덤에 묻히셨다. 유대인의 동굴무덤은 대개가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야 들어 갈 수 있는 130-150㎝ 높이의 입구를 갖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본실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본실 삼면의 벽은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깎아 만든 평상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두는 쪽은 베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두툼하게 높여 만들곤 했다.

무덤의 입구는 큰돌을 원판으로 깎아서 막았다. 입구의 문턱은 돌문을 끼어 넣고 좌우로 굴릴 수 있도록 홈을 파놓았다. 이때의 홈통은 무덤 입구 쪽을 낮은 쪽으로 해서 약간 경사지게 파고, 그 대신 돌문이 정확하게 입구를 막고 설 수 있도록 낮은 쪽의 턱을 높게 만들었다. 입구를 봉할 때는 돌문을 괴고 있던 받침목을 빼내고 밀기만 하면 홈통의 낮은 쪽으로 돌문이 굴러 쉽게 입구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문을 열고자 할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돌문의 무게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따르면, 무려 1.5톤 내지 2톤이나 된다고 한다. 이 돌문을 홈통에서 경사가 높은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국 캠프리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베자 성경 마가복음 16장 4절에 따르면,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가로 속에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누인 후 장정 20명이 굴릴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부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돌문이 열려진 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예수의 무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 16명이 4명씩 일 개조가 되어 4교대로 지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대의 로마 군인들은 천하를 통일한 제국의 군인답게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주후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폼페이 시가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쏟아 부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다. 16세기 중엽 이 고대도시의 존재가 발견되어 1748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도시 대부분이 발굴되어 거대한 유적 공원으로서 화산재에 파묻히기 직전의 모습을 들어내 보여주고 있다.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아폴로, 비너스, 주피터의 신전들과 극장 그리고 1만 5천명을 수용하는 대투기장과 같은 건축물은 물론이고,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고 횡단보도까지 있는 도로, 식품, 잡화 등의 소매점과 술집 그리고 호화 저택과 같은 귀중한 건물들이 남아있다. 그밖에도 도피하지 못한 사람들과 개, 식사중인 테이블과 여러 가지 음식물, 의료기구, 놀이기구, 포스터와 일상용품까지도 다수 발굴되어서 폼페이는 고대 로마인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 되고 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산재에 묻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화산의 반대방향에 위치한 성문 쪽을 향해서 죽어 있다고 한다. 영화에서도 잘 표현해 놓고 있지만, 모두가 피신의 아수라장 속에서 화를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크게 관심을 끄는 것은 성문을 지키던 로마군인이다. 사람들은 피신하다가 성문을 향해서 죽어 있지만, 이 군인만큼은 자신의 위치에서 정자세로 죽어 있다고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화급한 상황에서도 군인의 임무를 다하면서 죽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다고 볼 때에 감히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셋째, 예수 부활의 정황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이들 정황 증거들은 기독교가 지난 이 천년 동안 지켜온 주일 예배, 성만찬, 침례, 그리고 변화된 초기 신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일 예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 증거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늘로 두 번 깁거나 두 글자를 쓰지 않았으며 불을 끄거나

켜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을 무시해 버리고 일요일을 지킨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일가친척과 국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버림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데는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 날을 '주의 날' 또는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다.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일 예배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부활과 같은 사건이 아니고서는 유대인으로써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 예배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침례교 교인이었던 한 미국인 여성이 유대교에 개종하였다. 그녀는 단순히 개종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살기를 원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개혁주의 유대교에 속하고 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인의 유대인 자격에 대한 시비로 온통 국가가 시끄러워졌다. 이 일이 있는 직후 1988년에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자격을 정통파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실패한 바 있다. 잠시 잠잠하다가 1997년 들어 이스라엘 의회는 다시 '유대인 자격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통파 유대교 소속 라비를 통해 개종 절차를 밟은 사람만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내 유대인중 90%가 넘는 개혁주의 및 보수주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졸지에 이방인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속성이다. 오늘날에도 이런 정도인데 하물며 이 천년 전인 경우에는 어떠했겠는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며, 바울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유대인들

로부터 서른 아홉 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 난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부활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지난 이 천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성례인 침례와 성만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다. 침례와 성만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이들 예식이 초대 교회 창립 때부터 시작된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기독교만의 독특한 예식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순교를 불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 때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두개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다메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평생을 복음 전도에 힘쓰다가 마지막에는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다. 전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제 각기 여러 나라들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이상의 몇 가지 정황 증거들만 가지고서도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문제는 입증이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지만, 부활을 미신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며,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제3장 사도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1. 기도할 때
2. 시련에도 불구하고
3. 가장 귀한 선물
4. 위기를 기회로
5. 준비된 그릇
6. 협동사역

제3장

사도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1. 기도할 때

(행 1:14; 2:42)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는 자신의 생애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일들을 행하셨고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는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고,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나며, 율법과 예언의 대표이자, 하늘에 승천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교제하는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셨다. 또 기도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이뿐 아니라, 비유를 들어 필사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겸손의 기도'를 가르치셨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도 예수의 기도생활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예수의 기도생활을 본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을 예수의 기도생활과 동일한 패턴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둘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셋째, 제자

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는 이들 세 가지 물음에다 보도의 초점을 맞추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관심 가졌던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고(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과 집에서 기도하였다(2:1,46; 3:11; 5:12,21,42). 그들은 예수를 팔아 넘기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을 뽑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다(1:24).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1:4)고 명령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릴 때에 힘써 기도하였다(1:14).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는 예배 때에 힘써 기도하였다(2:42; 10:3,9). 감옥에 갇혔던 제자들이 풀려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4:23이하). 교회의 지도자 일곱 명을 뽑아 임명할 때에 기도하였다(6:6).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로 단죄된 스데반이 돌로 몰매를 맞고 죽어 가면서 예수처럼 살인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7:60). 방언과 병고침과 같은 성령의 외적증거를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하였다(8:15; 9:17). 옥에 갇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였다(12:5).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뽑아 파송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였다(13:3).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맡기며 금식 기도하였다(14:23).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은 후 쇠사슬에 묶인 채 빌립보 옥중에서조차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다(16:25). 또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밀레도란 곳에 내려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눈물로써 작별기도를 하였다(20:36). 수리아 지역의 두로에서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직전에 성도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작별기도를 하였다(21:5).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서는 그 섬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 것을 보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하루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둘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방법은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다. 이밖에도 수시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으며(12:5; 1:14; 2:42), 때로는 모인 곳이 진동하기도 하였다(4:31).

이들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합심기도가 많았던 같다. 예수는 주로 혼자 기도하셨다.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를 많이 했다.

셋째, 누가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또는 기도시간에 맞춰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제자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세례를 받고,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말하며, 무식한 갈릴리 어부출신 베드로의 막힘 없는 설교에 마음이 찔려, 유대교인 삼천 명이 단 하루만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기독교에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2장). 또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것과(8:15f) 바울의 안수를 받고 에베소에 거주하는 열두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것도(19:1f) 모두 기도할 때에 일어난 일들이다.

두 번째 사례는 로마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으며 기독교에 개종하고, 당시 유대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 시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도 기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어느 날 오후 3시 유대인들의 기도시간에 기도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하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낮 12시 유대인의 기도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이 갈라졌더라도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와 같은 짐승, 육식하는 조류, 기는 조류, 곤충, 파충류가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는 소리가 들렸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 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또 세 번째에도 이런 음성이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문 앞에 이르러서는 큰소리로 베드로가 그 집에 묵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 때 베드로는 이 환상이 의심치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의 지시인줄로 깨닫고 다른 기독교인 두 명과 함께 그들을 따라나섰다.

이런 환상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접촉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불결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서 나온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음식물의 일부가 부정한 음식일 수 있고, 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그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구원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 시에 도착하여 보니, 고넬료가 일가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셨다. 이를 본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해서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가친척들이 다 침례를 받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이루었다. 이런 큰 구원의 사건이 기도할 때에 발생했다.

세 번째 사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대 남자 앉은뱅이를 고쳤고, 또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녁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하루 중 마지막 기도가 드려지는 오후 3시 기도시간에 기도할 때에 발생된 사건이었다(3장).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를 통해서였고(9:40),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이 살아난 것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였다(28:8).

네 번째 사례는 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되었던 사도들이 풀려난 것과(4:23-31), 아그립바 1세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가 목베임을 당할 뻔했던 베드로가 풀려난

것과(12:5-12),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16:25f) 다 기도를 통해서였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발생된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기도는 역사 하는 힘이 강하다(약 5:16).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엡 6:18).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한다(마 21:22).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막 11:24),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빌 4:6), 예수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는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을 얻을 수도 있고, 기계도 돌릴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와 같아서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전기가 아무리 흔하다해도 아무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위치이다. 전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전기스위치이다. 기도는 마치 전기스위치와 같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 주변에 전기가 아무리 흔하다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항상 우리 주변을 덮고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 엄습해 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 생활에 불어닥친 혹독한 추위를 막을 수 없고, 기계 돌아가듯 우리의 삶을 힘차게 돌릴 수가 없다. 만일에 우리들의 삶에 '춥다,' '어둡다,' '힘이 없다' 하는 불평들이 있다면, 기도하

지 아니한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한 때나마 실망과 좌절과 비통함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삼일만에 찾아온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부터는 기도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게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만큼 기도라는 스위치를 자주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 2:36)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첫날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행한 첫 설교의 내용은 배척에 관한 것이었다. 사도행전 2장 22-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예수를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처럼 그들의 공적인 활동을 배척 당함으로 시작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시간에 성전

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 아저씨를 고쳐준 것이 계기가 되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성전 뜰에 세워진 솔로몬 행각은 뙤약볕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교회가 모였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하는데 격분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내용이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설교 때에는 자기 자신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는 고향 나사렛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배척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공생애를 마치고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많은 유대인들과 정치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으로 그들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마치고 있다.

사도행전 5장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의회에 출석시켜 심문을 받게 하였다. 이 때에는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변호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이 때까지의 사건들은 모두 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사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아람어를 쓰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이었고, 바울과 바

나바, 빌립과 스데반은 그리스말을 쓰는 해외교포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된 사건은 이들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스데반은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써 증거 하다가 이단자로 단죄되어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한편, 스데반을 이단자로 몰아 그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바울은 후에 자기 자신이 또 다른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로 단죄되어 돌에 맞아 죽었다가 겨우 살아나는 박해를 받았다.

바울은 한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된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로부터 서른 아홉 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살점을 돌려내는 채찍으로 세 번 이상 맞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밖에도 수 차례 죽을 뻔하였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에 떨어야 했다(고후 11:23-27).

예수의 공생애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으로 시작해서 갈릴리 지방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미움과 질투로 발전했으며,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제자들로부터는 배신을 당하셨고, 끝내는 로마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제자들의 공생애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배척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발전하였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5년째 옥살이하는 장면에서 끝나고 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지로 성령의 도움으로 활짝 열린 미래를 향해서 또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다. 비록 그곳에 가면 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련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얻은 명성과 보장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 인류를 구원키 위해서 매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월절 전에 도착할 목적으로 주후 30년 3월 초봄에 250리 길을 한 거름씩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다. 그 한 예로 바울은 주후 58년 봄에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창립되었던 기념일인 오순절 명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목적으로 수 천리 길을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면서 여행하였다.

그러나 여행의 목적지 예루살렘에는 영광이나 명예 대신에 배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에게조차도 쉽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가 걷고자하는 그 길을 말리는가하면,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닥치자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제자도 있었다. 따라서 예수는 이 여행 중에 울기를 세 번씩이나 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절망에 찬 절규까지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봄이 되면 죽었던 자연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눈물 후에는 기쁨이 있고, 배고픔 후에는 배부름이 있고, 절망 후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20장 22-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

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바울 일행이 빌립이 사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렸다. 그러나 바울은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21:13)고 단호하게 평안과 안일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잡혀서 예수처럼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4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배척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린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다. 그 결과 300년 후에는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고후 4:17-18)라고 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척과 큰 환난을 당하고도 굴복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생활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였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였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합심해서 기도하였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을 뽑을 때도 바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였다. 교회의 지도자 일곱 명을 뽑아 임명할 때에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였다.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였다. 선교사

를 뽑아 파송하기 전에도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맡길 때에도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되었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능력을 체험하였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척과 큰 환난을 당하고도 굴복 당하지 아니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그들의 열심 있는 기도생활 때문이었다.

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척과 큰 환난을 당하고도 굴복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처럼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은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일하셨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생활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공직에는 성령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직식 때에 안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울과 다윗 왕을 임직할 때에 사무엘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한 행위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인침을 상징한 행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침례를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침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성령 충만하심과 40일 금식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0일 이상 기도하였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도 예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

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4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설교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성도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대표로 뽑힌 일곱 사람도 포함된다.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군들이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척과 큰 환난을 당하고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열성 있는 기도생활 때문에 폭풍처럼 밀어닥친 그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새 희망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활동하며 열성적인 기도생활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은 IMF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시련과 역경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체념적으로 시련과 역경을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활짝 열린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받아드리는 것이다. 성도들이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승리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 후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3. 가장 귀한 선물
(행 2:38; 3:19)

사도행전 1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시대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약속,' '성령으로 세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것들이다.

첫째, '아버지의 약속'이란 말은 무엇인가 중요하고 값진 선물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예수가 한가지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다른 한가지를 말해 주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은 곧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몇 날'이란 10일을 말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승천하시고 10일 만인 오순절 날 아침 9시경에 성령이 강림 하셨기 때문이다.

또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기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이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 제국에 침략을 받아 586년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예언하였는데, 그것들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 '성령으로의 세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사 44:3; 겔 36: 25-27; 요엘 2:28-29).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체험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으로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이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령으로의 세례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설립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설립된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의 국민이 될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 나라의 특징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는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 교회는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찍음(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 교회는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찍음을 받고, 또 성령으로 선수금(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 교회는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찍음을 받고, 성령으로 선수금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 받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곳' 혹은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도장찍음 받고'와 '성령으로 선수금을 받고'란 말은 성령이 도장찍고, 성령이 선수금으로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도장찍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보증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결혼과 같은 것이고, 성령으로의 세례는 결혼반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선물이다. 이 결혼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에게 결혼반지가 있고, 또 그 반지를 끼고 있는 한 우리의 결혼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이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표이며 가장 귀한 선물이다.

결혼선물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결혼선물을 받아서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결혼반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결혼반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둘째, 결혼반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결혼반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인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서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성령으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인 동시에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것이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 평생토록 함께 살 수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인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서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 태어나게 하시며, 썩고 병든 곳을 치료해 주신다. 성령은 '이곳' 혹은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나누어주신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각종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주신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기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다(고전 12:8-11).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을 가져다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아마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를 용서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으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다.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의 표시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맺은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도장찍음의 표시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장차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이곳' 혹은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선수금조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릴 장엄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천국파티에 참석할 입장권의 표시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장차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땅과 집을 얻게될 매매계약서의 표시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또 믿음과 회개의 외적인 표시인 침례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받겠다는 변화된 태도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은 전혀 행위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보시고서 가장 귀하고 좋으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점이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점이다.

4. 위기를 기회로

(행 11:19-21)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장관들에게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애국심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위기(crisis)란 말은 한자로 위태할 위(危)자와 틀

기(機)자의 두 문자로 이루어져있는데, '위(危)'자는 위험을 뜻하고 '기(機)'자는 기회를 뜻한다. 그래서 위기란 위기도 되지만, 잘만하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nold Toynbee)는 인류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위기가 너무 커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적당한 위기는 인류문화와 문명을 흥하게 하는 도전(challenge)이라고 했다. 여기서 '적당한 위기'란 위기에 반응(response)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강한 위기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다른 사람은 약한 위기에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전혀 없어도 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위기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쓴 약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도 망하고, 위기가 없어도 망한다는 말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주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

죤 프리벨은 "인간의 최악은 하나님의 기회이다"란 말을 했다.

북해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먼 거리에 있는 북해로부터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한 모습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모든 어부들이 아무리 관심을 쓰고 잘해도 배가 런던에 도착할 때쯤이면, 청어들은 벌써 다 죽어 있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재미를 보는 것이었다. 동료 어부들이 이상해서 그 어부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는 비밀이라고 하며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어부는 동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밀을 떨

어놓으면서 말했다. "나는 청어를 잡아넣은 통에다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것 아니오?"라고 다른 어부들이 물었다. 어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청어를 두 세 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 대신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 다니지요.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도 청어들은 도망 다니기에 바빠서 죽을 겨를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길 후에도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현명한 어부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가운데 휠라코리아 주식회사 사장 윤윤수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

윤윤수(53) 사장은 월급사장이다. 그가 받는 봉급은 일년에 18억 원, 한 달에 1억5,000만원, 하루에 500만원, 한시간에 62만원이다. 엔리코 후레쉬 휠라그룹 회장의 봉급보다도 많고, 휠라그룹의 세계 55개국 자회사 사장들의 봉급보다 4-6배가된다고 한다. 9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달이면 몇 차례씩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휠라그룹의 세계 55개국 자회사 직원들이 윤윤수 사장으로부터 경영기법을 배워가고 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윤윤수 사장은 그 이유를 최근 출간한 에세이집 『내가 연봉 18억 원을 받는 이유』에서 밝혀놓고 있다.

윤윤수 사장은 태어난 지 백일도 지나지 않아서 장티푸스로 어머니를 잃고 심청이처럼 동냥젖을 먹고 자랐다. 그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서울의대를 지원했으나 세 번 낙방한 후에 외국어대 정외과를 가까스로 졸업하였다.

외대를 나온 후 어렵사리 해운공사에 들어갔으나 오래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인 JC페니 한국 사무소에 입소하여 5년 동안 일하다가 신발 전문 제조업체인 화승에서 수출 담당 이사로 스카우트되었다. 젊은 이사로 화승에서 2년간 승승장구하다가 우주인 ET인형 수출 건으로 실수를 범해 사표를 쓰게되었는데, 이 때가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생각과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결심으로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무역을 하다가 훨라와 손을 잡고 신발사업에 뛰어든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역사는 언제나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발전되어 왔다.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한국교회도 그러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자들은 언제 어느 때나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했지만, 정작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박해자 자신들이었으며, 그들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그러나 기독교는 박해라는 비바람을 맞으며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튼튼하게 자라갔다. 기독교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는 박해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해가 전혀 없었던 중세 때에 기독교는 오랜 암흑시대를 경험했어야 했다. 시련이 없었기에 단련될 기회가 없었고, 흐리지 않았기에 정화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역시 대부분이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교를 막고 박해자들에게 신앙을 변호하며, 내부의 이단자들의 도전으로부터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할 필요성에서 기록되었다. 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이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유다서 등이 영지주의와 같은 내부의 이단이 침투된 상황에서 기록된 책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승리, 부활의 주 예수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와 구원에 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흑암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이 그렇고,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이 그렇고, 오랜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세 차례에 나누어서 고국에 돌아온 사건이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승천한 사건이 그렇다.

사도행전 역시 우리에게 배척과 탄압의 위기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 말씀이 박해라는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의 열 두 제자들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 또는 스데반과 빌립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이었고, 안디옥교회의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주역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지방과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따라서 본토출생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들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등의 인물에서 점차 빌립과 스데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인물로 주연인물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주연인물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 위기는 6장에 나오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과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간에 발생된 갈등에서 비롯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본토출생의 아람어를 사용하

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이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과부들을 소홀히 대접한데서 불평이 생겨났고, 그래서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출신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뽑아 교회 업무를 보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두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후에 바울 사도가 된 사울과 스데반이 부딪힌 곳이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회당에서였다. 이곳에 출입했던 스데반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였고, 사울은 스데반을 이단자로 간주하였다. 당시의 율법은 이단자를 돌로 쳐죽이도록 정하고 있었다. 사울이 앞장을 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돌로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에까지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거꾸러졌고, 후에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기독교 사상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스데반의 순교이후 외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 사도행전 11장 19-21절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믿게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리스말을 사용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후에 세계선교를 담당한 안디옥교회가 탄생된 것

도 이 위기 때문이었다.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무리는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하는 기적을 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좇았다."고 적고 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리스말을 사용할 줄 알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깔보는 절반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가 복음을 전하니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다.

또 바울 일행은 외국의 선교지에서 같은 민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다른 도시로 피신을 할 때마다 그곳 도시들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흑암을 바꾸어 빛이 되게 하시고, 혼돈을 바꾸어 질서가 되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 위기를 바꾸어 기회가 되게 하신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나 명퇴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맞고 있을지 모른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5. 준비된 그릇

(행 9:1-6)

요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너나할 것없이 집집마다 생수를 떠다 먹는다. 그런데 샘에 물을 받으러 온 사람이 물통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많은 물이 펑펑 쏟아진다 해도 그 물을 받을 통이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 물을 받아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한다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자리도 내 자리가 될 수 없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디엔 가에는 내가 차지할 자리는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한다. 우리 자신을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

열왕기하 4장 1-7절을 보면, 요즘의 신학교와 비슷한 선지학교에 다니던 학생의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선지 생도는 죽고 돈벌이는 없는 데다가 빚쟁이들이 몰려와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

는 부인에게 물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다. "마을에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다가 방에다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 가득 채우십시오." 학생의 부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했다. 방안에는 빈 그릇들이 가득 찼고, 그 그릇들은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신비한 일이 발생했다. 한 병의 기름이 온 그릇을 가득 채울 때까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 멈추지 않고 펑펑 쏟아졌다. 그러나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에는 기름도 멈추고 말았다.

이들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준비된 기름 한 병과 준비된 그릇들만이 한 가난한 부인의 기도응답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밀려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계셨다. 그가 보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뭍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 두 척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를 예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셨으며, 말씀이 끝난 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여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2장 1-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잔칫집에 참석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에도 사용된 것이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던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에 관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열 처녀 중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다섯은 지혜로운 처녀라 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다섯은 미련한 처녀라 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고, 처녀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 마중 나가라는 전갈이 왔다. 처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겨들었다. 그러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제야 그들은 위기를 느끼고 급하게 기름가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신랑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도착하였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예수는 이 비유를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친다는 말씀이다. 최후의 순간에 너무 늦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말씀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줄 수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이 있다는 교훈이다. 기회란 이마에만 긴 머리털이 있고, 뒤통수는 대머리인 사람과 같아서 앞에서 잡아채지 못하면 때를

놓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같은 장군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순신은 1545년에 태어나서 28세에 무과에 올랐다. 그러나 임진란이 일어난 것은 그가 47세 때였다. 그가 무과에 오른 지 20년만의 일이다. 만일에 이순신이 이 20년 세월을 착실히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을 했다면 우리 조선이 어찌 되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준비된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의 열 두 제자들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 또는 스데반과 빌립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 교회를 세우는데는 제자들과 같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지만, 안디옥과 같이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데 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외국태생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연인물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셨지만, 사마리아지방에서는 빌립을 들어 쓰셨고, 해외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인물을 들어 쓰셨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 등을 보내어 해외선교를 하지 않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기독교를 세우는데 그리스말을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기독교를 세우는데 이 천년 전 로마제국시대를 택해야 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해외선교는 무엇보다도 선교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

한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빌립, 스데반, 바나바, 바울, 실라 등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었다.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방문화에 익숙하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본토출생의 유대인들은 배움도 짧을 뿐 아니라,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그릇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스데반이나 바울과 같은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스데반의 순교이후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에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준비된 그릇들이었다.

둘째, 이 천년 전 로마제국시대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로마제국에 속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시절부터 발달되기 시작한 도로와 항만이 있었고, 무역과 여행이 자유로웠다.

유대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건립하여 예배당과 학교와 민족회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할례 받지 아니한 문의 개종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은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도시에서나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 드려 기독교에 개종했지만,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God-fearer)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

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개종한 자들을 '의의 개종자'(Proselyte of righteousness)와 '문의 개종자'(Proselyte of the gate)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의의 개종자'는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의식을 준수하는 완전히 개종한 자를 말하고, '문의 개종자'는 율법과 유대교 의식에 제재 당하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이방인들이 외국에 많았다. 지금의 터키 서해안에서 동쪽으로 1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경 회당건립 후원자 명단이 적힌 기념비에는 유대인이 69명인데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려 54명이나 되었고, 개종자도 3명이나 새겨져 있었다. 이 기념비는 초대교회 당시 회당을 출입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 드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드릴 준비된 축복의 그릇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서 시작하여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출신 베드로를 택하지 않고,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울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가 준비된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크게 쓰실 것이다.

우리가 맞게될 새로운 천년 시대는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했던

2천년 전 지중해 연안 세계에 이루어졌던 그레코로만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사는 생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외국어와 전자정보통신망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천년 시대에 쓰임 받는 큰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세계화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은 기본이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컴퓨터와 전자정보통신에 익숙해 있어야 할 것이다.

6. 협동사역

(롬 16장 3-4절)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대개가 희생적인 부모나 부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성장하는 교회들도 대부분 그 배후에는 희생적인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와 물질이 있었다는 간증도 종종 듣는다.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결코 어느 인간 공동체도 그렇게 쉽게는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나 한석봉도 어머니의 지성으로 훌륭한 인물이 된 고전적인 사례들이다. 포항제철 부사장을 역임하셨던 여상환 선생를 한성신학대학에 두 차례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포항제철은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철강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철강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비롯한 공업의 발달이 가능했다는 것과 포항제철이 오늘날 세계 굴지의 철강공장으로 성장하게 된 배후에는 신들린 사람처럼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일했던 초창기 산업전사들

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자서전을 펴낸 정주영씨가 이끌었던 현대그룹도 비슷한 전철을 밟은 것으로 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처럼 대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고, 한국처럼 교회가 급성장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가없이 이루어진 우연한 기적만은 아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희생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적인 협동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바울을 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으리 만큼 그의 선교사역과 가르침은 일세기 중엽 지중해 연안의 전 유럽을 발칵 뒤집기에 족한 것이었다. 바울은 시리아, 키프러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전 유럽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신약성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옥같은 13편의 서신서를 남겼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부부 이외에도 디모데, 디도, 실라, 마가, 누가, 에바브로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지만, 성서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로서는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상의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난 곳은 제 2차 선교여행 중이었던 주후 51년 경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아가야 지역의 대도시 고린도에서 였다(행 18:1-2, 26).

바울은 제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앙 터키 지역에서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딤후 3:10-11; 행 14; 갈 4:13-15). 바울 자신이 고백한대로 바울에게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는데, 그의 신체적 장애가 바로 이곳 터키에서 받은 박해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지방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다. 이 도시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자 갈라디아도에 있었다. 이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갈 4:13-14).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육체적인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물겹도록 사랑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서 바울은 결코 정착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겉으로 나타난 이유였지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제 2차 유럽선교 때부터는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지방의 유력한 동역자를 찾지 못한 것이 바울 일행이 터키 지방에 정착하지 못한 숨겨진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였다(행 18:3).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바울 일행은 이들 부부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안정기반과 신체적인 보호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온 고린도에 힘써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동역자가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주후 49년경에 고린도로 추방되어 온 사람들이다. 아굴라는 흑해에 가까운 터키 북부 본도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류계층의 귀부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브리스길라의 영

향력이다. 가부장제도의 전통을 깨고 여성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성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가 총 여섯 번 가운데 네 번이나 된다. 성경에 보면, 동생의 이름이 형들의 이름보다 언제나 앞에 놓여서 형동생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삭과 이스마엘, 모세와 아론,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인 유다도 마찬가지이다. 셈은 함과 야벳의 동생이며,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의 동생이고,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며,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이 동생들의 영향력 때문에 형들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언제나 앞에 온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앞에 쓰인 경우가 많은 것은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아굴라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쯤에 바울 일행은 터키 해안지방인 소아시아에서 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써 유럽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사역하게 해주셨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협동사역자로 동역하게 해주셨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제 2차 선교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다음 선교 지역을 바울이 수년 전에 선교하기를 원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터키의 해안지방에 위치한 종교도시 에베소로 결정하고 선교단 전원이 고린도를 떠났다. 이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로 이주했고,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은 바울의 파송교회인 안디옥교회와 사도들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를 차례대로 방문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서 아굴

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합류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2년은 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2년 남직한 이 기간에 선교기반을 닦고 있었고, 바울 일행이 도착하면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수년 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일행보다 2년 남직 먼저 고린도에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체류한 것은 2년 3개월 동안이었다. 이 기간동안 제 3차 선교를 성공리에 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행 18:18이하; 고전 16:19). 그런데 로마서 16장 3-4절에 보면, 바울의 다음 선교지인 로마에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보다 먼저 다음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을 본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업가로서(행 18:3), 전도자로서(행 18:26), 바울의 동역자로서(롬 16:3), 혹은 주의 종 바울을 목숨 바쳐 섬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롬 16:4)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했으며, 그들의 집을 사업장으로,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교회로(롬 16:4; 고전 16:19), 혹은 선교사들의 합숙소로서 제공하였고, 바울의 말년에는 이들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맡아 사역하기도 했다(딤후 4:19). 또 로마서 16장 4절에 기록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으로 보아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운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배후에는 헌신적인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

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혼자의 힘만으로 또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목사의 설교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휘자의 노력만으로 성가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도사의 힘만으로 주일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의 기도와 참여와 봉사와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가 협동사역하는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직분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야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훌륭했던 것은 그들이 스타 같은 바울, 영웅 같은 바울을 우상처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다.

바울은 흔히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마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문벌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많이 배웠다는 것 말고는 인간적으로 남 앞에 내놓을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는데, 이는 그의 선교사역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요인이었다.

바울의 외모 또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못생긴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체구는 작았고, 양미간은 맞닿았으며, 약간 매부리코와 대머리에다 다리까지 오자로 휜 사람이었다.

바울은 언변도 그리 좋지 못했다. 바울은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었지만, 결코 능변가가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후 10:10)고 바울을 비방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언변이나 외모를 보지 아

니 하고, 바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충만함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실함을 본 받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 사람 미남이다' 라는 인상을 줄만한 외모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에 밑거름이 되었다.

제4장 박해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1.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2. 죽도록 충성하라
3.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4. 보응의 하나님
5. 승리의 노래
6. 시련은 짧고 영광은 길다
7. 최후의 승리

제4장

박해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1.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계 1:10-16)

IMF시대의 한파를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하는 요즘, 그 한파를 몸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IMF구제금융은 '구제'란 말이 암시하듯이 한풍이 아니라, 온풍이라고 해야 옳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한 평 짜리 등유 난로 하나로 30평 남짓한 방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할 수 없듯이 IMF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따뜻한 남풍이 아니라, 엄동설한의 북풍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요한 계시록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계시록은 공포영화나 스타트랙과 같은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불안 공포 분노 흥분 기쁨 등이 반복되고, 선과 악 또는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박진감이 넘치는 소설이나 희곡처럼 독특한 문학 형식을 갖춘 예언문서이다. 1-3쿼터 싸움에서는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의 세력의 탄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악의 화신인 불의의 사자를 쓰러뜨릴

정의의 사자가 더디 나타나 패전의 기운이 감돌고, 이길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4쿼터에 접어들자 비로소 정의의 사자가 나타나 불의의 사자를 물리치고, 온갖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의를 좇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크게 보상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라마 형태로 전달한 일종의 설교이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은 미래의 희망을 전달한 예언서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사는 모든 신앙인들을 위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이다.

김수경의 저술 가운데, 『반칙과의 전쟁』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수 천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두 나라의 전쟁에 관해서 적고 있는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정의의 나라와 불의의 나라의 싸움인데 너무나 오래된 전쟁인지라, 양쪽의 군사들조차도 전쟁중이라는 인식이 아주 희미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정의의 나라 군사들이 불의의 나라 군사들의 생활방식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병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이 전쟁은 이미 옛날에 정의의 나라의 패배로 끝나버린 싸움이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있었고, 또 정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었다. 어이없게도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우둔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몇 안돼는 군인 중의 한 사람인 나이 많은 대령이 정의의 나라 군사들을 소집해 놓고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비밀문서 보관소에서 이 오래된 전쟁 상황일지를 찾아냈다. 이 전쟁일지에 의하면, 전쟁은 이미 2천년 전에 끝났다. 승리자는 바로 우리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 전쟁은 우리가 전설로 여겨왔던 그 낙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공의로우신 왕께서는 수 천년 동안 무력하여 자꾸 적군에게 패배하고

굴복하는 우리 군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강력한 장수들과 참모들을 보내셨다. 우리 왕은 저쪽나라 왕과는 비교하기도 억울할 만큼 강력한 분이시다. 적군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깨비와 다름없다. 저쪽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나라에 반역하기 위해 거짓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의로운 왕이 처음 이쪽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에 대적하여 공의의 왕의 권세에 도전하고 나온 반역자가 있었다. 왕은 그를 벌하고 추방했다. 반역자는 앙심을 품고, 왕의 백성을 이간하여 이쪽나라를 멸망시킬 계략을 꾸몄다. 그는 공의의 왕이 이쪽나라를 건국하면서 세운 모든 정의의 원칙들에 철저히 반대되는 불의한 반칙들로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 사이의 전투는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장기전이 되었고,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정의의 왕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의 왕의 꾀임에 속아넘어가 포로로 잡혀 온갖 고통과 억압 속에서 죽어 갔다. 이에 정의의 왕은 이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기로 작정하시고, J장군을 보내셨다. J장군은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내려와 3년 6개월 동안 정의와 희망을 버린 군사들을 모아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불의의 나라가 위기를 느꼈는지 무섭게 반격해왔다. 전투는 치열해졌다. 정의의 나라가 밀리면서 전세가 불리해졌다. 그러자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J장군은 홀홀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J장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하들은 그가 전사한 줄로 알았다. 군사들은 몹시 절망했다. 그런데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J장군이 살아서 돌아오셨다. 게다가 그의 손엔 반역자의 목이 들려져 있었다. 그는 발꿈치만 살짝 다쳤을 뿐이다. J장군은 반역자와 그의 군사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이겼던 것이다. 그후 J장군은 지레 겁먹고 도망쳤던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했다. "제군들은 들어라. 본인이 적국의 왕을 죽었으므로 이 전쟁은 우리 나라의 승리로 끝났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잠시 후방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돌아와 승전가를 부르며 함께 개선할 때까지 전방을 잘 지키고 있길 바란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 적국의 군사들에게 엄한 벌을 주고, 너희들에게는 포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이름으로 군사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 한동안은 이쪽 병영에 대단한 개혁의 바람이 일었고, 정의가 되살아나고 희망이 솟구쳤다. 그런데 이미 2천년 전부터 다시 온다던 J장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 돌아왔다는 헛소문만 풍성했다. 그런 가운데 군사들은 예전처럼 정의와 희망을 잃게 되었고, 그나마 희망을 품고 정의롭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수의 병사들에게는 가혹한 억압이 가해졌고, 부정과 부패와 허세와 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정의로운 원칙을 포기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싸우느라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J장군이 수만의 근위병을 거느리고 돌아오셨다. J장군은 엄격한 목소리로 순식간에 종이병정처럼 구겨져 엎드러진 저쪽 나라의 패전군들을 포박하여 약속된 장소에 가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서 정의의 왕과 J장군에게 온전히 헌신하여 전선을 지킨 동지들을 불러모으셨다. 그들은 온갖 압박과 설움과 고통을 용케도 견디어냈던 사람들이다. J장군은 그들에게 말했다. "동지들,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 동안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을 내가 보았고 또 알고 있다. 내가 다 갚아 주겠다. 너희는 끝까지 나를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싸웠으니, 마땅한 상을 내리겠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나서 승리자들은 J장군과 함께 개선하여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정의의 왕 앞에서 구원의 기

뿜을 환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김수경의『반칙과의 전쟁』의 이야기처럼, 요한 계시록도 온갖 고난과 박해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상을 내리시고, 박해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먼저 온갖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J장군의 늠름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아무나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

샐만(Sallman)의 1950년도 작품으로 크리벨과 베이츠(Kriebel & Bates)가 저작권을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성화가 있다. 풍랑이 일고 먹구름이 낀 바다에서 배의 키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고, 젊은이의 배후에 예수께서 지키고 서서 한 손은 청년의 어깨에 올려놓고, 다른 손은 전방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젊은 항해사의 배후에 계신 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젊은 항해사만 볼 수 있고 예수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속에 예수의 모습이 있는 것은 화가인 샐만이 믿음의 눈으로 젊은 항해사 배후에 계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속의 젊은 항해사도 믿음의 눈으로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를 믿기 때문인지 그의 표정에는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해 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이 그림의 청년처럼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계시록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샐만의 그림처럼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에게해를 끼고

있는 터키 서해안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말발굽 형태로 일곱 교회가 약 80KM 정도씩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는 8시 방향에, 서머나 교회는 10시 방향에, 버가모 교회는 11시 방향에, 두아디라 교회는 12시 방향에, 사데 교회는 2시 방향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3시 방향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말발굽 형태로 놓인 일곱 교회들 가운데에는 로마제국의 성난 군인들이 기독인들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 감옥에 가두고, 창으로 위협하고, 십자가에 못박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로마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은 찬란한 모습의 인자가 폭풍을 만난 것 같은 일곱 교회 배후에 버티고 서서 지키고 계신다.

여기서 인자는 정의의 사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이시다. 박해라는 엄청난 폭풍과 시련을 만난 교회들은 마치 바다에 뜬 작은 배들이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요한은 폭풍 배후에 버티고 선 예수를 본다. 아무리 엄청난 박해의 물결이 몰아 닥쳐와도 이 예수가 지키고 서있는 한 교회는 든든하며,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 계시록 1-3장의 모습이요 메시지이다.

샐만이 젊은 항해사 배후에 선 예수를 본 것처럼, 요한은 박해로 흔들리는 교회 배후에 선 J장군 예수를 본 것이다. 여기서 예수의 모습은 마치 배를 요동치게 하던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잔잔 하라. 고요 하라"는 명령을 막 내리시려는 긴장된 모습이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인자는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의 예수이시다. 이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분은 힘있고 전능한 심판주요, 재림주이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과 단련된 발과 예리한 말씀의 검과 해처럼 빛나는 힘있는 모습을 하신 구원의 주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손안에 넣으시고, 교회를 왕래하시며, 교회를 지키는 구세주이시다. 이 예수가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폭풍이라도 능히 잔잔케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4장 35-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사가 실려 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셨다. 그 사이에 폭풍은 몰아 닥쳤고 배는 위태로웠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고 두려워했다. 그 때에 제자들은 능력의 주님을 깨웠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 하라. 고요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 졌다.

지금 한국호가 금융경제위기라는 폭풍을 만났다. 우리가 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다. 이 폭풍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쩔 것인가? 몰아치는 폭풍과 파도만 바라보고 놀라 자빠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 하라. 고요 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춘 능력의 예수를 의지할 것인가? 폭풍을 만난 한국호에도 예수는 계신다. 폭풍을 만난 우리들의 집에도 예수는 계신다. 폭풍을 만난 우리들의 중심에도 예수는 계신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우리가 탄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될 것이다.

2. 죽도록 충성하라
(계 2:10)

IMF시대의 풍랑이 되었든지, 가정문제의 풍랑이 되었든지, 개인문제의 풍랑이 되었든지 간에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예수이시다. 그래서 앞글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다. 앞글에 이어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터키 서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계시록 1장에는 부활 승천하신 인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은 찬란한 모습의 인자가 폭풍을 만난 것 같은 일곱 교회 배후에 버티고 서서 지키고 계신다.

인자의 이런 모습이 다른 종교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연인지 모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교 가운데는 미륵을 섬기는 민중신앙이 있다. 미륵신앙은 당나라 때에 성행하였고, 이 때에 기독교의 한 교파였던 경교(Nestorianism)가 당나라에 전해졌던 터라, 기독교의 메시아신앙이 불교의 미륵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미륵신앙은 메시아신앙을 닮고 있다.

미륵은 기독교의 천년왕국 개념과 비슷한 희망의 나라인 정토(pure land) 또는 불국토를 세울 구세주불(佛)로써 그 모습이 사금같이 빛나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며, 서른 두 가지 거룩한 얼굴형태와 여든 가지 미묘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머리털은

검붉은 유리빛깔이며, 머리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여의주와 보석으로 만든 하늘관을 쓰고 있다고 한다.

미륵신앙은 당나라 때에 신라에 유입되어 백제문화권에서 크게 융성했던 민중신앙이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일대에서는 사찰 마당에 세워진 미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미륵의 특징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미륵사찰인 금산사와 같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다 마당에 세워져 있다.

계시록 1장의 인자와 불교의 미륵이 서있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과 출생신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행 7:55)을 본 것처럼, 인자가 서 계신 것은, 마치 어미 새가 매의 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어선 긴장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찰에 선 미륵은 생명이 없는 돌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한 모습을 하고 있어 아픔으로 일그러진 인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의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며, 예수는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다시 오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관을 쓴 미륵은 인간의 수고를 보상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 인간이 죄의 삯으로 죽어야할 그 자리에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런데 미륵은 단 세 번의 설교만으로 무한 중생을 구원한다고 한다. 단 세 번의 설교만 듣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죄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다. 따라서 죄의 삯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구원에 도달할 자가 없다. 그런데도 미륵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다. 미륵은 인간의 아들로서 스스로 득도하여 보처보살이 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바로 알아야 한다. 미륵을 바라보아서도 안되고, 대통령을 의지해서도 안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3장에 등장하는 일곱교회에 주시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1장에 소개된 인자의 특징이 한 가지씩 각 교회마다에 다시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예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칭찬과 책망과 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풍랑을 잔잔케 할 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그토록 더디 믿느냐?"라고 꾸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만을 죽도록 믿어야 한다.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월계관, 생명의 월계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다.

1세기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있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대환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조롱을 받고, 채찍과 몽둥이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나운 짐승에 찢기고 할퀴며,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로마황

제를 섬겼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이 바람과 바다가 무섭다고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든 것과 같았다. 배 안에 예수가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배를 버린 사람은 결코 살지 못했다. 성난 바다가 그를 삼켰기 때문이다.

당시에 성난 바다는 로마제국이었고, 풍랑을 만난 배는 교회였다. 거친 풍랑을 만난 배는 부분적으로 파손되기도 하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물에 빠져 죽기도 했지만, 배 안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배는 결코 좌초되지 않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포상까지 받았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행위를 가지라"(2:5). "죽도록 충성하라"(2:10). "회개하라"(2:16). "굳게 잡으라"(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네가 열심을 내라"(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바울도 로마서 8장 17-18절에서 예수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에서

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예수께서 교회에 주는 경고 가운데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단의 무리로서 이교 사회와의 타협을 추구했던 집단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자유 함을 얻으면, 우상숭배나 음행을 해도 좋다고 믿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한 경고도 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맞는 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에 진을 쳤다. 이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여 바알의 신전이 있는 브올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였다. 싯딤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알고 지내면서 바알브올을 섬기자, 하나님의 진노로 염병이 퍼져 2만 4천명이 죽는 엄한 벌을 받게 된다.

염병이 번진 싯딤은 사막문화권이 끝나고 농경문화권이 시작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예로부터 항구도시에는 홍등가가 발달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농경문화권의 첫 관문인 이곳 싯딤에서 바알종교 의식에 접하게 되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남신과 땅의 여신 사이에 성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바알종교 의식은 아리따운 바알신전의 여사제들과 예배자들 사이에 성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예배행위는 광야에서 오랜 텐트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혹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졌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는 모습도 없고,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볼 수도 없었다.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여사제도 없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남성들이었다. 이런 메마른 종교의식에 식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숭배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끝없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바알숭배였다. 아무튼 이스라엘 남성의 일부가 싯딤에서 성창과의 첫 행위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결과 성적으로 깨끗했던 그들의 대부분이 성병에 감염되어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다.

이세벨에 대한 경고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아리따운 딸로서 아합의 선왕인 오므리가 정략적으로 아합 왕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여인이다. 솔로몬 왕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금치 못했던 원인도 이 정략결혼에 의해서 많은 이방여인들이 궁전에 입성한 때문이다. 그들이 올 때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신과 제사장들과 몸종들을 동반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당을 지어주고, 궁전을 지어 줘야 한다. 아합 왕도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신전을 지어주고, 자신도 바알을 숭배했다. 이는 아합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때문이다. 이 이세벨이 아합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토록 탄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세벨은 로마제국이 황제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를 탄압했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제거돼야할 악녀의 상징으로 부각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기손 강의 물귀신이 되었고, 아합왕은 전투에서 피흘려 죽음으로써 그 피를 개들이 핥았으며, 이세벨은 높은 건

물의 창 밖으로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으며, 그 시체는 짓밟히고 말았다. 이것이 박해세력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의 최후였다는 점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서의 음행과 우상숭배는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다. 우상숭배는 신랑 되신 예수를 버리고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심하게 일어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다. 바알종교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혹적인 종교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돈과 성을 섬기는 현대문화를 바알종교문화라 부른다. 우리 나라 재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 망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여기에 빠져들어 IMF한파를 겪는 것이다. IMF한파야말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금할 것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 것과, 이세벨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IMF시대에 어렵다고 신앙의 정조를 팔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자. 열심을 내자.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

3.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계 4:1-11)

앞글에서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와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다. 앞글에 이어서 계시록 4-6장을 중심으로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큰 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장영자 사건이다. 장영자 여인은 두 차례나 거액의 금융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생활을 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큰손이라고 말한다. 큰손이란 통이 크다는 뜻도 있겠지만, 특히 어떤 사건의 배후에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조종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장영자와 같은 큰손은 사탄의 손이요, 파괴의 손이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영시가 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다. 3불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을 닦았다. 그리고 줄을 조여 음을 맞춘 다음 연주를 시작하였다. 노인의 연주는 아름다운 천사의 음악처럼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하고는 다시 연주를 시작하였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고, 결국 이 바이올린은 3천불에 낙찰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시에서 노인의 손은 분명 큰손이다. 이 노인과 같은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건설의 손이오, 치유의 손이오, 구원의 손이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조종하는 손이다.

시편 99장 1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 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고 노래하고 있고, 시편 103장 19절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고 노래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독자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말한다. 이것이 압축된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이

다. 특히 계시록 4-6장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한 내용이다.

백발의 노인이 두 팔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두 팔로 감싸 앉고 온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 그림이 바로 보좌방의 환상을 설명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결말지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 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였고, 전도서 9장 1절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최선책인 것이다.

'역사 배후의 큰 손, 하나님' 이것이 계시록 4-6장의 주제이다. 계시록 1-3장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좁은 범주의 틀 속에서 다루어진 것이라 한다면, 계시록 4-6장은 하나님과 우주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다루어졌으며,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보다 넓은 안목의 세계관을 심어 주고 있다. 이 세계관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는 보다 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극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암시가 담겨 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을 뿐이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수고가 주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 나타나 있다. 이 환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

윌리암 헨드릭센은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 방과 그 주변 전경의 위치 그리고 온 우주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격 표적지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다. 중심의 가장 작은 원에서부터 바깥쪽 가장 큰 원에 이르기까지 일곱 개의 원을 그려서 4장에 나오는 인물과 가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가장 작은 중심 원 중앙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앉은 모습이 푸른 보석 재스퍼(jasper)와 붉은 보석 루비(ruby) 같고, 그 보좌 둘레에는 에메랄드(emerald) 같은 무지개가 있다. 윌리암 헨드릭센의 설명에 의하면, 이 장면은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을 둘러싼 중심 원에 재스퍼가, 두 번째 원에 루비가, 세 번째 원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놓여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재스퍼와 루비와 에메랄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세 겹으로 보호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4장 6-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번째 원에는 스랍(seraph)으로 알려진 네 생물이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황소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 여섯 개씩 가졌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고 외치고 있다. 이 장면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생물 또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

었지만,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三聖唱)이라 하여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기독교 예배의식에 첨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보좌가 놓여 있는 정사각형의 단상의 모습이다. 이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계단을 올라야 한다.

계시록 4장 4절과 10-11절을 보면, 단상 아래에 다섯 번째 원이 있고, 그 원에는 보좌 스물 네 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장로 스물 네 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 이들 스물 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엎드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고 외치고 있다.

계시록 5장 11-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원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들은 큰소리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원에는 우주와 모든 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도 큰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모습이 마치 재스퍼와 루비와 같고,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영광이 매우 찬란하고, 높은 위엄과 존귀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 스랍들은 상투스를, 24장로들은 존귀를 찬양하고 있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은 어린양 예수에게 존귀를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예수 모두에게 찬송과 존

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경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열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한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을 볼 수 있어야겠고, 헨델처럼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온 우주에 울러 퍼지는 장엄한 찬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간섭하시는 분이요, 끝을 낼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폭풍을 벗어나 안전한 포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 1장에서 본 인자의 환상이 5장에서는 어린양의 환상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계시록 4장 5-6절을 보면,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을 켠 촛대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양 예수는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 이 어린 양 예수는 승리하신 자요, 일곱 매듭으로 묶고 봉인한 책을 펴거나 읽기에 합당한 분이요, 피로서 성도를 사신 분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또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결단코 문자적인 일곱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일곱 영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말한 것이다. 뿔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힘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뿔 가진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제단에도 뿔로 장식을 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다는 말은 부활 승천한 예수에게 전지전능한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다.

1장의 인자의 모습과 5장의 어린양의 모습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나 결국 이 두 모습은 '폭풍을 잔잔케 하실 능력의 예수'를 각기 다르게 표현했을 다름이다.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일곱 매듭을 묶고 봉인한 책을 펼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이 일곱 봉인의 비밀을 '인 재앙'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네 가지 색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인에 나오는 흰말은 승리, 둘째 인에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의 파괴, 셋째 인에 나오는 검은 말은 기근의 피해, 넷째 인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다섯째 인은 신앙인의 순교,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 일곱째 인은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대로, 계시록 4-5장은 인류의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가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 따라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목적 없이 진행될 수 없고, 돌고 도는 윤회의 역사일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이 내리게되고, 새로운 인류를 위한 역사의 막이 오르게 된다.

IMF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폭풍의 위험이나 엄동설한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라도 요한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요한은 박해라는 무서

운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실 능력의 예수를 보았다. 요한은 지진, 전쟁, 기근, 순교, 천재지변과 같은 악순환이 거듭되는 비극적인 역사의 중심 속에서도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아줄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다. 요한은 칠흑처럼 어두운 현실에서 빛을 보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보았으며, 죽음에서 생명을 보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한이 창조신앙의 소유자였으며, 성경의 해석자였으며, 환상을 보는 종말론자였으며,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실린 요한의 환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좌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박해라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박해의 폭풍을 잔잔케 하실 예수와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바로 잡아줄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에 몰아쳐 오는 폭풍을 잔잔케 하실 예수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4. 보응의 하나님

(계 7:9-17; 14:1-5)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살았던 때에는 로마제국이 천하를 지배하던 시대로써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던 때였다. 일본은 옛날의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신(神)으로 섬기는 신사(神社)를 읍과 면 단위에까지 만들고 전 국민을 참배케 할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천황의 사진에 경축일마다 절을 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충성을 시험하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려 함이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1938년에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연회가 각각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이후 장로교와 감리교는 총회 차원에서 일본에

굴욕적으로 복종하였다. 이 때에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다. 또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때에는, 64년 네로 황제 때에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 때에 죄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된 것처럼,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이 6일 동안에 무려 6,433명이나 일본인들의 죽창과 흉기에 찔려 죽었다.

이와 같이 로마제국도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였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모시게 하였다. 요한의 때에 로마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도미티아누스는 죽은 네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으로 착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주(主)와 신(神)'으로 부르게 하였다. 이에 전 로마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하게 하였다. 이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기독교인들에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능력의 예수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황제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배고픔과 채찍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사자에 찢김과 십자가에 못 박임까지 각오했어야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또 예수의 깃발아래 머물 것이냐, 황제의 깃발 아래로 옮겨갈 것이냐를 결정했어야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황제보다 위대하신 분, 머지않아 악의 세력을 제압하실 분, 박해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 게임을 승리로 이끄실 슈퍼스타,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 무덤에 갇혔으나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사신 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지켜보시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서 하나님의 출장명령만을 기다리시는 분,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성도를 구원하실 분, 요한 자신이 옥중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예

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또 요한은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계시록 4-6장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몹시 당황하며,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요한 자신이 옥중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하늘 보좌방의 하나님, 게임을 진두 지휘하시며 1-3쿼터의 열세를 역전시킬 슈퍼스타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어놓으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요한은 마치 역전의 프로 농구 게임을 보여주듯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 주고 있다. 98년 1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벌어진 대우 제우스와 SK 나이츠와의 게임에서 대우는 3쿼터까지 60-72로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우지원이 4쿼터에서 17점을 몰아넣음으로써 대우가 SK를 91-88로 이겼다. 3쿼터까지 불과 5득점에 그쳤던 우지원은 팀이 77-81로 뒤지던 종료 3분을 남기고 터닝슛과 골밑돌파로 1분10초만에 83-83 동점을 만들었고, 종료 1분5초 전엔 외곽포를 터트려 85-83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으며, 87-85로 쫓기던 14초 전엔 자유투 2개를 모두 골로 연결시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그곳 시간으로 같은 날 시카고 불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합을 치렀다. 시카고 불스는 홈경기장의 이점과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키며 두 달이나 결장했던 스카티 피펜이 팀에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1-2쿼터까지 워리어스에 지고 있었고, 3쿼터에서는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는 시소게임을 벌렸다. 그러나 이 경기 역시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4쿼터에서 17점을 몰아넣음으로써 87대 82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들 게임에서와 같이 요한은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역전의 명장 하나님과 슈퍼스타 예수를 보여준다. 우리 팀의 감독 하나님은 게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명장이며, 슈퍼스타 예수를 언제 투입해야할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다. 또 슈퍼스타 예수는 감독의 기대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게임을 승리로 역전시킬 가장 확실한 우리의 영웅이란 것을 보여준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예수의 깃발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이기고 받은 포상금을 나누어 받지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의 깃발을 떠나 적그리스도의 깃발아래 선 자들은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7-9장과 14-16장의 말씀이다.

지금까지의 계시록의 내용은 다른 성경말씀들과 견주어 볼 때,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54장 7절을 보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고 노래하고 있고, 시편 118장 5-9절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고 노래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분에게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말한다.

계시록 7장과 14장은 고난 당하던 성도가 구원을 받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서는 말한다(14:4-5). 이들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좌 앞에 계신 어린양이 이들의 목자가 되사, 이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7:16-17). 그리고 그들은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14:2-3).

이와는 반대로 적 그리스도의 위협과 거짓 선지자의 호리는 말에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받게 될 재앙이 8-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이오,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들 재앙은 피 섞인 불과 우박으로 인한 것으로써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가 피해를 입거나 황충의 피해나 전갈의 쏘임과 같은 괴로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저주, 독종, 지진, 우박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 이들 재앙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 세력이 앞으로 지옥에서 또는 지옥에서처럼 당하게 될 극형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 재앙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 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뀐 것이다. 이들 재앙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과 14장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사탄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이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된다. 이는 천상과 지상 또는 천국과 지옥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천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고, 승리의 노래와 즐거움이 있고, 안도의 한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평화와 위로가 넘치지만, 지

상에서는 저주와 재앙과 비극과 슬픔과 괴로움만이 있다.

계시록에서 천상과 지상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천상과 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천상에만 있고, 재앙이 반드시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는 천국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지옥에서의 저주의 슬픔이 확연히 구별되겠지만, 그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과 16장의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절반에는 마치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이 무서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받고 있고, 다른 절반에는 마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서운 재앙들은 적대 세력인 사탄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오, 재앙이지만,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오, 사랑이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난 천상의 백성의 모습과 8-9장과 16장에 나타난 지상의 백성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될 7장과 14장에 나오는 천상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8-9장과 16장에 나오는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던 자들이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며,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목자 되신 어린양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

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생명수 샘을 마시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된다(7:9-17; 14:3-5; 15:2-3).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군사가 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된다(14:9-11).

이들 두 무리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내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요즘처럼 크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인내가 더욱 요구된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다.

5. 승리의 노래

(계 15:2-4)

앞글에서 '보응의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앞글에 이어서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계시록은 김수경의 『반칙과의 전쟁』에서처럼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지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단을 머리로 하고, 적그리스도가 지원하는 사단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민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거짓선지자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 게임이 일시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거짓선지자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거짓선지자에게 1-3쿼터에서 많은 점수를 내주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전의를 상실한 성도들에게 '결국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과 환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다.

게임 후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된다. 승자는 기뻐 뛰며 환호하게되고, 트로피와 포상금을 받지만, 패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주저 않고 만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내용은 한 장의 그림처럼 너무도 분명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이다. 미가엘의 승리와 적그리스도의 패배이다. 성도들의 승리와 거짓선지자의 패배이다.

다음의 두 장면을 머리 속에 그려보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창세기 6-8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홍수로 물이 불어서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가운데, 커다란 방주 한 척이 물위에 떠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여덟 식구가 서로를 얼싸안고 안도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고, 불어난 물과 거센 물결 속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들은 물위를 떠다니고 있다.

다음으로 창세기 19장 12-29절에 나오는 소돔성의 멸망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은 천사의 손에 이끌리어 소알성으로 피신한다. 소돔성을 탈출하여 안전한 곳에 도착한

롯과 그의 딸들은 서로 얼싸안고 안도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시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유황과 불과 연기 속에서 '아이구 뜨거워라.' '나 타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며 피해보지만, 결국 시커먼 숯으로 변해버린다.

다음의 두 장면은 계시록의 실제상황과 똑같은 것들이다.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우선 1945년 8월 15일의 서울 거리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36년간 압박과 설움을 당하다가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리의 풍경을 그려보길 바란다.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합창하며, 기쁨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물결을 그려보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음과 죽음의 구름을 보고, 폐허의 한 모퉁이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일본천황의 고개 숙인 모습을 그려보길 바란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며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해변의 풍경을 그려보길 바란다. 짧아도 250년, 길면 430년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집트로부터 압박과 설움을 당하다가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이스라엘 민족의 춤판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듯한 붉은 바다, 홍해의 깊은 물에서 '나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며 처참하게 죽어 가는 이집트 마병대의 모습을 그려보길 바란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들 구원받은 무리와 저주받은 무리의 극명한 대조들이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이 점을 우리는 계시록 1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대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홍해와 같이 붉은 바닷가에 서서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해변에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붉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홍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붉게 타오르는 소돔성의 불바다와 같은 것이다.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이랄 수 있는 바로와 그를 돕는 박사들과 군사들을 이기고 벗어나 홍해 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성도들이 지옥의 불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하늘의 붉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붉은 바다 홍해 해변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가운데서 몇 절만 읽어보자.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다. · · · ·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들 노래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늘나라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인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양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수를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엄과 권세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인자의 환상으로 나타난바 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분의 위엄과 존귀함은 이미 계시록 4-5장에서 보좌방의 환상으로 나타난바 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계시록의 특징은 분리와 반복에 있다. '분리'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철저히 분리시킴을 말한다. 예수의 깃발 아래 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으며, 언제나 천상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사단의 깃발아래 선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못의 저주를 받게될 지상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반복'이라 함은 앞서 설명한 '분리'가 반복해서 설명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구원에 관한 천상의 환상은 7장과 14장 그리고 21장에서 반복된다. 사단의 백성이 받을 재앙에 관한 지상의 환상도 8-9장과 16장 그리고 17-20장에서 반복된다.

요한이 이렇게 '분리'와 '반복'의 형식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승리의 노래'의 백미는 아무래도 19장에 나오는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일 것이다. 헨델은 이 부분을 '메시아'에서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때에 부르게 될 이 할렐루야 찬양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환난에서 성도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성도를 괴롭혔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보응의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노래이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스랍들이 성도들의 할렐루야 찬양에 '옳소'라고 응답하는 '아멘 할렐루야'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다. 그 내용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초대교회는 황제숭배의 위협 속에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다.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배반했거나 또 배반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때에 요한은 자신이 갇혀있던 밧모섬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과 싸워 필경은 이긴다는 것과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깃발아래 서면 살고, 황제의 깃발아래 서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했다. 그래서 계시록은 기록될 당시의 황제를 칼의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로, 황제숭배를 앞장서 강요하고 가르치는 자를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선지자로 단정하면서, 대 로마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으며, 황제를 숭배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탄압하는 성도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것이다. 잠시 받는 고난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6. 시련은 짧고 영광은 길다
(계 13:4-10)

바울은 고난은 짧고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고백이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신앙고백이요,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시련의 기간을 짧게 정하셨고, 그 대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

흔히들 계시록 10-13장과 17-19장을 중간계시라고 말한다. 이들 중간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시급히 구출하실 것과 박해세력을 무서운 재앙으로 응징하시겠다는 내용이다.

계시록 10-13장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단과 두 짐승으로 묘사된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기간을 짧은 삼년반으로 설명한 중간계시이며, 17-19장은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사단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것과 백마 탄 기사, 슈퍼스타 J장군, 예수를 투입시켜 지고있던 게임을 역전승으로 끝내고, 고통을 겪었던 성도들은 해방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되며,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살게될 것을 강조한 중간계시이다.

계시록 10-13장의 특징은 11, 12, 13장에 각각 나오는 삼년반이란 숫자에 있다. 삼년반이란 숫자는 '마흔 두 달' 혹은 '일천이백 육십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기간과 악의 세력의 탄압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삼년반은 문자적인 삼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징적으로 '시련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한 있다. 계시록에서는 이 삼년반의 시련기가 끝나면 즉시 정의와 사랑의 슈퍼스타 예수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한 바울의 신앙고백을 떠올려야 한다. 그래야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자신이 본 환상을 소개하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삼년반은 성도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시련의 기간이지, 재앙의 기간이 아니다. 성경에는 재앙의 기간을 삼년반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악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재앙과 환난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환난(7:14)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큰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하는 것들은 박해세력인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작전과 같은 것이다. 전술에 보면, '공격개시전 사격'이란 것이 있다. 이 사격은 보병의 진격명령이 있기 전에 소나기처럼 퍼붓는 포사격을 말한다. 보병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병의 진격 전에 적의 진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다름 아닌 악의 무리들에 포로로 잡힌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나기처럼 퍼붓는 공격개시전 사격과 같은 것이다. 성도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 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전에 먼저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 퍼부었다. 그러나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 따라서 삼년반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의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숫자이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이들은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이 악을 상징하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는 박해기간을 삼년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목회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유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큰 환난을 받았기 때문이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숭배 강요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을 받았기 때문이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모세는 적그리스도인 바로와 거짓선지자인 술객들과 싸워 이겼으며,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인 아합과 거짓선지자인 이세벨과 싸워 이겼다.

계시록에 이세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그녀의 행위가 음란행위와 관련하여 정죄 되는 이유는 바알종교가 실제로 사당의 성창(聖娼)들과의 성행위를 통한 예배의식을 인정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이세벨은 절세의 미인이며, 이방인으로 남편 아합왕으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케 한 신앙의 창기였으며, 참 신앙을 저버리게 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방신과 간음하도록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아합과 이세벨에서 유래하여 로마제국의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황제와 사제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의 가르침은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의 존재인 인간의 숫자 육을 삼 결합시켜 인위적인 가르침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마이너스 일의 이단 사설임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육은 인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완전수 칠에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다. 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이다. 삼은 완전 수이다. 따라서 666은 완전한 부족과 실패를 의미한다. 숫자 666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 될 수 있다. 666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66은 삼위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인 777에 반대되는 숫자이다. 숫자 777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다. 이를 예배 용어로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이라고 한다. 부족은 죄를 의미하고, 거룩은 완전을 의미한다.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한다. 이 말은 '과녁에서 빗나가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죄란 완전에 미치지 못함을 말한다. 그러나 거룩은 완전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거룩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부족한 인

간은 유죄하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12장에는 사내아이와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예수와 마리아이다. 마리아는 교회를, 예수는 교회의 머리를 상징한다. 여기서도 교회가 악을 상징하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는 박해기간을 삼년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한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써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써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이들 두 짐승이 성도들을 삼년반 동안 박해한다. 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칼의 권세를 가진 아합에서 유래되었고, 거짓선지자는 바알종교의 사제인 이세벨에서 유래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의 적은 언제나 칼의 힘과 이단 사설에 있었다. 칼의 힘이 적그리스도요, 이단 사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교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코란을 들었다는 점이나, 통일교가 한 손에 돈을 들고, 다른 손에 원리강론을 들었다는 점이나, 오늘날의 세속주의가 성공이란 이름아래 한 손에 돈을 들고, 다른 손에 마약과 누드 잡지를 들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미국주간지 위클리 월드뉴스는 한 CIA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CIA가 대이라크 공격용으로 플레이보이 같은 누드잡지를 이용할 것을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엄격한 회교원리주의 국가인 이라크에서는 남자가 모르는 여성의 발목을 흘낏 쳐다보는 것조차도 음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만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상공에 수 백만 권의 누드잡지를 마치 폭탄을 투하하듯 뿌릴 수만 있다면 순식간에 바그다드를 폭동과 종교적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성인잡지가 투하될 경우 이 잡지를 잡아채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어 결국 사회적인 동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럴 경우 걸프전 패배이후에 쿠웨이트 재침공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되고 미국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국익과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게 CIA의 분석이다.

CIA가 실제로 이런 작전을 실행에 옮길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누드잡지를 종교적 혼란을 야기하는 비밀병기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박해가 단지 총칼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박해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8-9장의 나팔재앙과 16장의 대접재앙에서 언급된바 있으며, 17-19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

17장에서는 황제숭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탄압했던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제국을 성서는 큰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성이 붉은 포도주에 취하듯이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을 죽었다. 그리고 이 성의 제왕들이 성도들에게 예수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온갖 악행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한 때는 그들이 이기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은 결코 어린양과 그의 성도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린양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결국 이기게될 것"이라고 17장 14절에서 말한다.

18장에서는 예수를 대항하여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던 제국과 제왕들이 철저하게 망할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며,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은 강한 자(18:8)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갑절로 갚겠다고 말씀하신다(18:6).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18장 4절에서 권하고 있다.

19장에서는 드디어 성도들의 슈퍼스타 백마 탄 J장군이 등장한다. 이는 마치 아군들이 빨갱이들에게 밀리고 또 밀려서 낙동강까지 이르러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 때에 맥아더 장군과 UN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적군을 무찌른 것처럼, 또 3쿼터까지 지고 있던 게임을 슈퍼스타의 집중력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슈퍼스타 백마 탄 J장군은 마치 말씀 한 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말씀 한 마디로 천지만물을 지으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무찔러 버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버린다. 또 그들을 숭배하고 따르던 자들도 J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싸움은 끝난다.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리스도가 이긴다. 끝까지 참고 견딘 성도들이 이긴다. 그리고 나서 승전가가 울러 퍼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합창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19:1-2).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19:6). 이 할렐루야 합창이 끝난 후에,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개선장군과 함께 깨끗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한다. 그리고 나서 축하잔치에 참여한다. 계시록 19장 9절은 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했다.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했다.

7. 최후의 승리

(계 21:1-8)

성경 66권의 주제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승리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비친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이다(롬 8:37).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짧게 잡아 250년, 길게 잡아 430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감행했던 영광의 이집트탈출 사건과 유대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후,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고국귀환이 70년만에,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 고국귀환이 148년만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고국귀환이 173년만에 이루어졌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일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부활사건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의 승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일컬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고후 15:20,23)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긴 후에 승리의 열매들이 된다.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골 2:15)고 말한 것처럼, 노예가 해방이 되고, 포로가 자유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된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고난에서의 구원, 시련의 극복,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은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다. 요한은 1-3장에서 왜 그리스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인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은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위협하는 박해의 폭풍을 향해서 언제라도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의 검을 들어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또 4-6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보석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방의 주인이시며,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는 그 분의 큰 뜻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분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시며,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3쿼터까지 잠시잠깐동안 악한 일을 하게 내버려둘지라도,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와 성도를 꺾을 수 없다. 그의 최후는 불 못 신세이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꼭 한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나 사단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피조물은 운명적으로 마이너스 1의 존재이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보았자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 갈 수도 없다. 피조물이 사는 길은 오직 플러스 1의 존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투는 실재로 있을 수도 없고, 사단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도 없다. 계시록이 비록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의 어린양, J장군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갑옷이나 군복대신 혼인예복을 입고 있다. 어린양 예수의 대적자들은 총칼에 의해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J장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위엄 있는 말씀으로 멸절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다. 처음부터 사단은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사단은 단 한 명의 천사에 의해서 단 하나의 쇠사슬에 묶이고 마는 힘없는 존재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표절하고 가장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들어가야 할 마이너스 1의 존재에 불과하다.

요한은 또 7-19장에서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나팔재앙, 대접재앙, 성도들의 삼년반 기간의 시련,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 멸망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한 때 시련을 겪었으나 하늘의 영광을 차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 때 돈과 세상 권력을 쥐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과 영원히 타는 유황불 못에 던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계시록 20-22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될 것인가를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인류가 가진 마지막 소망을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잠시 살펴보겠다.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7장, 21-22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모든 인간은 거룩한 몸으로 변형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의 집과 함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계 21:3-4).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계 22:5).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계 22:1),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다(계 22:2). 새 하늘과 새 땅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다(계 7:16). 정리해고나 부도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계 21:4).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계 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계 21:4).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이다(사 65:25).

여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깨끗하고 건전한 생각만 하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일곱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다(계 22:5). 새 하늘과 새 땅은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머리 좋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잘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물 잘난 사람도 아니다.

첫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련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이긴 사람들만이 이 곳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신다. "처음행위를 가지라"(2:5). "죽도록 충성하라"(2:10). "회개하라"(2:16). "굳게 잡으라"(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네가 열심을 내라"(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21:7)고 했다.

둘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

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했다.

셋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계 7:14).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했다.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뜻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놀라운 축복에 참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20:15)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21:8)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20:10)이라고 했다. 이들은 잠시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한 자들 같으나 실패자들이다. 그들의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조선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1. 조선 천주교인들의 순교영성(1)
2. 조선 천주교인들의 순교영성(2)
3.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1)
4.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2)

제5장

조선시대 기독교인들의 삶

1. 조선 천주교인들의 순교영성(1)

(히 10:32-39)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유대교가 되었던지, 기독교가 되었던지 언제나 물리적인 총칼의 박해와 이단의 거짓진리에 맞서야 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물리적인 박해와 거짓진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과, 바른 신앙을 변호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예배와 교육, 조직과 치리를 위한 내용도 많다. 특히 신약성경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유대당국과 로마당국으로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했던 이단자들의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 선교 역사 200년이 넘는 천주교가 되었든지, 선교 역사 100년밖에 안 되는 개신교가 되었든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차례 총칼의 박해와 거짓진리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가혹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역사는 성경을 읽

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대신에 정신적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세속의 온갖 유혹들을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증거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신앙을 탄압하는 박해세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남의 나라에 국가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점령국이 박해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국가의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제국 시대에 셀류키드(seleucid) 왕조가 유대교를 가혹하게 탄압한 적이 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안디옥쿠스 4세는 예루살렘성전을 약탈한 후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게 하였고,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식을 사형으로 금지시켰다. 이 박해 때에 유대인들의 정치 또는 종교집단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엣세네파 등이 생겨났고, 이들이 유다 마카비의 지도아래 게릴라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만 삼년만에 예루살렘성전을 탈환하기도 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국의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 페니키아 사람 이세벨로부터 바알신 숭배를 강요당하며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 이 박해때에 설상가상으로 삼 년 육 개월간 가뭄이 지속되어 광야 굴에 숨어서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야훼 신앙을 지켰던 칠 천명의 신앙인들과 엘리야는 가장 참기 어렵다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했다.

신약시대에는 국적을 초월해서 기독교인들이 대제국 로마로부터 대략 300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큰 박해를 받았다. 이 때에 기독교인들은 황제와 로마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당하였고, 이를 피하여 지하무덤 카타콤에 숨어 살았고, 더러는 체포되어 처형당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에도 박해세력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났

다. 첫째는 일본이 황제와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이를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 이 때에는 주로 개신교 교인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는 조선왕조가 103년 동안 천주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이 오랜 박해는 정권을 쥔 노론 벽파가 천주교를 받아드린 남인 시파를 제거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때로부터 천주교는 몹쓸 종교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의 순교역사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산 정약용의 매형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1886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3년에 이르는 이 기간에 천주교인 1만 여명이 순교하였다. 둘째는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40년간 받았던 일제의 탄압과 해방이후 공산군의 남침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개신교에 속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다. 특히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과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강요되던 1938년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되었다.

1919년 10월 장로교 총회에 보고된 장로교회의 3·1만세 사건의 피해상황하나만 보더라도, 체포된 사람이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의 수가 134명, 기타 기독교 관계 지도자로서 수감된 사람이 202명, 사살된 사람이 41명, 보고된 날짜에 수감 중인 사람이 1,642명, 매 맞고 죽은 사람이 6명, 그리고 소실된 교회가 12개였다. 또 감리교회의 경우 만세 시위가 막바지에 이른 1919년 4월 15일 낮 2시경,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라는 일본군 중위가 군경 한 때를 인솔하여 현재 삼일운동순국유적비가 세워진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나타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 주민들을 그 곳 감리교 예배당에 다 모이게 한 뒤, 군경들로 하여금 집중사격을 가하게 했다. 그들은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 이 만행으로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 그들은 어린아이까지도 칼로 찔러 죽었다. 그들은 이와 비슷한 만행을 현재 삼일운동순국기념비가 세워진 인근 수촌리 부근의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 열 다섯 군데에서도 저질렀다.

그런데 1919년에 있었던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는 신앙보다는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앙으로 인한 박해는 독립만세사건이 있고 난 뒤, 더욱 강화된 신사참배에서 비롯되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평양신학교가 폐쇄 당했고, 2백여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2천여 신도가 투옥되었고, 50여명의 교역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당한 박해는 2천년 전 초대교회가 황제숭배로 인해서 로마제국에 당한 박해와 같은 것이다.

6·25때, 공산군의 만행으로 인한 기독교의 피해는 초기 천주교인들이 당한 박해와 성격이 같은 것이었다. 조선당국이 기독교 자체를 이단시하여 박멸하려고 했던 것인 만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를 마약으로 간주했던 공산군들이 유물론 사상에 입각하여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사살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우리 민족의 기독교 순교역사를 보면, 대제국 로마로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받았던 그 무서운 박해에 못잖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이 그 시대의 고난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다.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1885년인데, 정약용의 매형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1784년이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승훈이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1592-98) 때에 일본에 끌러간 조선인들 가운데 천주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가운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이후 일본을 지배한 도꾸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에 순교자의 명단에 이름을 남긴 조선인 신도가 21명이나 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던 조선인이 25명에 이른다.

이 땅에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순전히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개신교가 태동한 17년 후인 1534년에 스페인에서는 이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예수회를 조직하여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가 1549년 7월에 일본 큐우슈우(九州)에 상륙하여 일본의 최고 지배자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게 기독교를 전하였고,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을 침공하기에 앞서 오오사까에서 예수회 신부들에게 말하기를, "명나라와 조선을 정복한 후, 전역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게 하겠다"고 장담할 정도로 선교에 성공을 거두었고, 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와 그 일행이 중국 광동성에 도착하여 검정색의 신부 옷을 벗고, 삭발을 하고, 회색의 승려복으로 갈아입고 부두에 내린 것이 1583년 9월이었다. 중국에 내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중국 경전의 연구였다. 중국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리가 한 나라의 전통사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들의 논리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진보적이었던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럽의 과학적 학문까지 중국에 전달하였는데, 중국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었던 우리 나라의 선비들이 중국을 통해서 서학과 천주교를 받아드린 것은 매우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로부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년이 넘게 받았던 탄압은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 자랑할만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조선 땅에 천주교 복음을 들여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선교사가 아닌 조선선비들이었다는 점이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땅에 개신교 복음을 들여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선교사가 아닌 선비출신의 조선인 보따리 장수들이었다. 둘째는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선혈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셋째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래가 드문 빠른 성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는 조선 기독교인들의 신앙영성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이다. 그들의 뛰어난 신앙영성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첫째,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았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 삼괴2리에 있는 재실 마을에 1890년 중반에 세워진 신앙고백비가 있다. 이 신앙고백비는 높이 1.27미터, 폭 39센티미터, 두께 22센티미터의 크기로 커다란 바위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신앙고백비의 특징은 조선사람의 모습인 모자, 얼굴, 그리고 몸통의 세 부분으로 구별된 데 있다. 얼굴 부분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조선인의 갓을 씌웠다. 김삼록이란 신앙인이 세운 이 신앙고백비는 얼굴 부분인 십자가 중앙에 '천주'(天主)라고 크게 쓰고, 몸통 부분 상단에 '천주성교회 성호십자가'라 쓰고, 그 아래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고, 둘째, 셋째, 넷째는 성직자들을 직위별로 차례로 위하고, 마지막 다섯째는 교우를 위한다고 적고 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위대한 신앙고백이다.

둘째,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교인들은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황일광이란 백정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을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보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되자, 교인들은 그를 친형제처럼 대우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농담조로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해 주기 때문에 내게는 이 세상에 하나, 또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 두 개가 있다."고 하였다. 또 윤권명이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종들을 모두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셋째,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팔, 다리, 머리를 잘라 전국 각지에 보내는 육시형을 1801년에 당한 전주 지방의 순교자 유항검의 처 신희는 배교하고 목숨을 건지라는 관리에게 "기독교는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남편이 그로 인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 섬기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빨리 죽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했고, 유항검의 동생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국법이 비록 엄하지만 기독교도 소중하다. 살기를 꾀하여 배교하기보다 순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유항검의 조카 유중성 역시 "죽기를 원할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과 이순이 부부도 유항검과 함께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다. 이순이는 유중철과 결혼하였으나 4년간을 부부생활 없이 정결하게 지내다가 참수형을 받았다. 그녀는 망나니 앞에서 매우 침착한 자세로 웃옷을 벗었고 조금도 흩트리지 않고 머리를 도끼 밑에 놓았다고 한다.

1866년 보령 갈매못에서 참수를 당했던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의 증언에 의하면, 젖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충남 합덕에서 가까운 신리교회로 3일, 6일 또는 8일씩 걸어서 찾아갔다. 그들은 잡히면 죽게될 죽음을 무릅쓰고, 머나 먼 산길을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와 눈을 무릅쓰고 찾아갔다. 가서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결코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기독교는 사교로 단정되었고, 국가정책은 사교를 말살하고 뿌리째 뽑는 것이었다.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번의 예배를 위해서 멀고 험한 산길을 남몰래 숨어서 걸었던 것이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2. 조선 천주교인들의 순교영성(2)

(히 11:33-38)

앞글에서 기독교 박해의 정황설명과 조선 기독교인들의 순교영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조선 기독교인들이 당한 박해방법과 피난생활에 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1885년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대략 103년 동안 '사학죄인'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천주교인이 무려 1만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록에 남은 숫자가 5천여 명이고, 무명의 순교자도 5천여 명에 달해서 일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던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남인 시파와 노론 벽파의 정치싸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교회는 정치집단인 남인 시파(時派)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사도세자를 동정했던 사람들로써,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했던 정조와 영의정 채제공 시대에는 노론 벽파(辟派)인 홍낙안의 공격으로부터 그럭저럭 보호를 받았다. 그러다가 1799년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고, 정조마저 1800년

에 죽자 반대파인 순조의 섭정 정순왕후와 홍낙안이 남인 시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정순왕후와 홍낙안은 교회를 박멸하고자한 이유를 기독교의 비인간성과 비국민성, 그리고 체제도전에서 찾았다.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임금의 명령이나 국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제사를 배척함으로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고, 비밀집회를 통해서 나라안전을 위협하며, 천국신앙으로 사회개혁을 꾀하고,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과 상놈의 신분타파로 반상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의 원수 집단이며, 인륜과 충의를 저버린 짐승의 무리라 하여 그 씨까지도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정순대비와 벽파의 무리들은 다섯 가구를 한 통으로 묶는 기존의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기독교인 적발에 이용하였고, 체포된 기독교인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고문한 다음 처형하였다.

조선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장소는 주로 강변이나 군사훈련장에 위치하는 곳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한강 당산철교 북쪽 끝 지점에 있는 절두산과 용산의 새남터였다. 새남터는 노들(또는 사남기)이라고도 불리던 조선의 군사훈련장이었으며 중죄인을 처형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전주천변의 초록바위와 서천교 밑이 처형장소였다. 그밖에 서울에서는 조선시대 도성 안의 시체를 밖으로 내갈 수 있는 출구였던 서소문 밖 네거리와 용산전자상가 부근의 당고개가 기독교인을 처형했던 장소였다. 서울외 지역에서는 전주감영의 군사훈련장이었던 숲정이와 해미읍성, 공주감영, 보령 갈매못, 여산동헌, 원주감영 등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처형했던 곳들이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38절을 보면, 성서시대에 신앙인들이 받았던 악형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고, 양과 염소가죽을 입

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맹수에 찢기고, 곤장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였다.

조선 기독교인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잔학한 박해를 당하였다.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배고픔이다. 신자들은 체포되면 갖은 방법으로 고문을 당한 후에 멀리 외딴 곳으로 귀양을 가거나 처형당했는데, 살아남은 신자 또한 집과 재산을 잃고 초근목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또 박해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었다. 다른 형벌은 잘 이기고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루에 두 번씩 주먹만한 조밥 한 공기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들이 누워 자는 더러운 볏짚 자리를 뜯어먹고, 심지어는 옥안에 기어다니는 이를 잡아먹기까지 하였다. 홍성에서 순교한 박취득은 8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해 기절하기도 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 광암리에 있는 대아리 저수지에 있었던 속칭 고산 널바위에 살았던 김성철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 6명과 마을사람 17명과 함께 체포되어 여산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고 나이 62세 때에 교수형을 받았다. 구전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나 혹형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옷솜에 있는 솜을 뽑아 먹다가 풀밭인 처형지로 끌려 나오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한다.

둘째, 귀양살이다. 다산 정약용과 그 형제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어 귀양살이를 했다. 심지어 배교한 교인들까지도 귀양을 보냈다. 또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녀와 처는 노비로 삼으며, 시집가기로 약속된 여자는 친정으로 보냈고, 그 밖의 식솔들은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가산을 몰수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육시형을 받았던 유항검의 큰아들 유중철은 동생 문석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항검의 처 신희는 함경도 경원부로, 여섯 살 난 아들 일석은 흑석도로, 세 살 난 일문은 강진 신지도로, 그리고 아홉 살 난 딸 섬이는 거제도로, 며느리 이순이는 평안도 벽동으로, 조카 중성은 함경도 회령으로, 유관검의 처 이육희는 평안도 위안으로 각각 보내져 노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셋째, 고문이다. 교인들이 체포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매질이었다. 해미에서는 교인들의 머리채를 묶어 나무(회화나무)에 매달아 매질하고, 활을 쏘았고, 커다란 돌다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다리를 들어 돌에 메치어 가슴이 터지도록 머리가 부서지도록 자리갯질을 했다.

원주감영에서 순교한 최해성은 어찌나 맞았던지, 다리뼈가 부서져 뼛조각 두 개가 땅에 떨어졌고, 등과 배에 구멍이 나서 창자가 빠져 나왔다.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수기를 낸 신태보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였다. 주리란 두 팔은 등 뒤로 묶고, 등과 팔 사이에 긴 막대기를 끼운 다음 그 막대기의 다른 절반에 양 무릎과 발목을 묶은 다음, 두 개의 굵은 몽둥이를 열 십자로 두 정강이 사이에 끼워 넣고서 두 사람이 몽둥이 끝을 타고 앉는 무서운 형벌을 말한다. 결국 신태보는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을 쓸 수 없게되어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은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체포되어 그가 재상에게 써 바친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상재상서)를 트집잡는 관헌들에게 몽둥이 끝으로 찔리고 톱질을 당한 끝에 뼈가 드러나는 고문을 당하였다.

합덕 사람 손자선은 공주감영에서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얼굴에 인분까지 덮어쓰는 고문을 당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포졸들이 때리다가 지쳐 "무엇이 고마우냐?"고 물으면, 그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

에 못 박히실 때에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시고 목이 말라 가래침을 잡수시며 돌아가셨거늘, 나를 이 모양으로 대접하여 주니, 이제야말로 내 죄를 보속하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네 이빨로 네 살을 물어뜯지 않으면 배교한 것으로 여기고 놓아주겠다"라는 꼬임에도 "만 번을 죽어도 배교는 못하겠다!"면서 양팔을 한 입씩 물어뜯어 기절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넷째, 죽음이다. 순교자들 가운데는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교수형으로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여자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방법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동원되었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물을 뿌리면서 백지를 여러 차례 붙여 질식시키는 가혹한 방법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다.

전주천변에 있는 초록바위터에서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홍낙민의 손자 홍봉주의 아들이 15세 때에 수장되었다.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는 전라감사로부터 "너마저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니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군주이시고 대부모이신데 어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유항검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시형을 당했다. 육시형이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 극형으로서, 죄인을 일단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여섯 토막을 내어 전국 각지로 보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이다.

해미 여숫골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꺼번에 생매장 당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해가 하나같이 선 채로 발견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열살 되던 해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목격했던 이주필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옛날 우리 신앙선조들은 처형이 늦으면 혹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포졸들이 밀어 넣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홍주관아에서 원시장은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당한 후에 결박된 채로 물세례를 흠뻑 받고 성밖에 내버려져 얼어죽었다.

충청북도 연풍에서는 돌구멍에 밧줄 올가미를 만들어 넣어 기독교인의 머리에 올가미를 씌우고 반대편에서 밧줄을 잡아당겨 머리가 돌에 부딪혀 죽게 하였다. 이 돌의 크기는 지름이 1미터, 둘레가 5미터이다.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뚫린 구멍의 크기는 앞의 것이 지름 20센티미터, 뒤의 것이 6센티미터로 원추형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성서시대에 신앙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로마에서는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숨어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깊고 험한 산 속으로 피난하여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도 일대 깊은 산골에 수많은 교인마을들을 형성하였다. 피난처의 특징은 도경계 지역 또는 군경계지역의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우촌으로 알려진 수리치골은 산 하나만 넘으면 충청남도 청양군과 예산군에 닿을 수 있는 공주시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고, 김대건 신부가 묻힌 미리내성지 역시 경기도 용인군에 가까운 안성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배론성지 역시 강원도 영월군에 가까운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속 군청의 군사들이 교인들을 잡으러 오면 쉽게 다른 군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인들이 숨어있는 관청에 체포령이 떨어지면 군사들은 먼길을 걸어서 잡으러 오기 때문에 군사들의 움직임은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교인들은 급히 산을 넘어 피신했던 것이다.

교인들은 산 속에서 화전을 일구기도 하고, 옹기를 만들어 구어 내다 팔면서 교인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바깥세상 정보를 얻

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망을 보다가 수상한 사람이 지나면 불을 지피는 척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굴속에서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또 옹기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서면 아무 집에라도 허물없이 드나들 수 있어 가족을 찾거나 흩어진 교우들을 만나고 교회 소식을 전하기에도 편리했다. 진천 근교 명암리에 있었던 교우촌 사기장골에서는 엉겨 붙은 옹이 그릇들이 발견되었는데, 옹기를 굽다 말고 포졸들에게 잡혀갔거나 도망갔을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예전의 우리 조상들은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입증해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대신에 정신적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세속의 온갖 유혹들이 널려 있다. 이런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 하는 것이 어쩌면 현대적인 순교일지 모른다.

3.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1)

(벧전 5:8-10)

우리 나라에는 각 시대마다 민족의 영성을 지배해온 종교들이 있다. 크게 보면, 삼국시대 이전에는 피조물 세계를 영으로 숭배하는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무교가 지배하였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피조물 세계에 부정적이며 탈세속적인 불교가 지배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관료적이고 형식적이며,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피조물 세계에 긍정적이며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기여한 공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개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 18세기 말 조선에 발달된 서양학문과 천주교를 들여

온 이들이 실학파였고, 19세기 말 조선에 민주주의를 비롯한 서양학문과 기독교를 들여온 이들이 개화파였다. 그래서 19세기는 실학파 천주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진보적이고 희생적인 기독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20세기는 개화파 개신교인들이 심한 탄압 속에서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기독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한국 천주교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가혹한 박해를 받아 순교의 피로 거름하기를 100년에 걸쳐했고, 일만 명이 넘는 많은 순교자를 냈다. 그러한 한국 천주교가 40여 년에 걸친 일본의 탄압과 수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순교는,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목숨 바쳐 지켜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순교는 수동적이고 무저항적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한국 천주교가 1909년 10월 26일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義士)와 같은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침략과 수탈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가 순교의 이 부정적인 면에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 천주교는 실학파 이승훈이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1784년 이후부터 100년의 긴 세월동안 참으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일만 명이 넘는 순교자를 내는 동안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천주교보다도 훨씬 늦은 1860년에 세워진 천도교 역시 탄압과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피동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에서 외세의 패권쟁탈이 절정을 향해서 달려갈 때인 1894-1895년에 동학도들은 '왜놈과 양놈을 물리치고 의를 세운다'는 뜻의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다섯 자를 새긴 깃발을 날리면서 혁명을 일으켜 양반사회와 공무원의 부패 그리고 외국의 침략에 저항했는가하면, 일제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싸우기

도 하고, 개신교가 주도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도 가세하였다.

한국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무려 100년이나 늦게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 올 당시는 일본이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들어내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 때에 한국 개신교는 비록 이제 막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 싹을 내던 단계였지만, 일만 여명의 순교자를 낸 탓으로 피해의식이 컸던 천주교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움츠려 든 그 때에, 분연히 일어서 민족운동과 애국운동을 일으켰으며, 민중을 계몽하며, 항일투쟁과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는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구교회로, 한국 개신교는 민족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신교회로 이 땅에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은 이 땅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였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다. 이상재는 1850년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 열 여덟 살 때에 실학파인 박정양의 밑에 들어가 13년간 심부름을 하면서 개화파 인사들과 사귀었다. 그리고 박정양의 도움으로 벼슬을 얻기도 하였고, 개화된 일본을 시찰하였으며, 초대 주미공사가 된 박정양을 따라 서기관으로 1년간 미국생활도 하였다. 비록 청국의 간섭과 훼방으로 박정양과 이상재는 미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이상재가 미국에서 보고 느낀 것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다.

이상재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발전된 문명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캐기 시작했는데, 한 청국인 관리가 서구문명의 근원은 성경에 있다고 일러주면서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을 한 권 주

었다. 처음 그는 군사 육성법이나 무기 제조법과 같은 비결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그가 신약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군사 육성법이나 무기 제조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 천명을 먹었다느니, 죽은 사람이 부활하였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미국의 발전된 문명의 기초라는 사실 때문에 성경을 손에서 떼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1902년 감옥에 수감된 이후, 성경을 다시 여러 차례 읽게 되었고, 비로소 깨닫게 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데에는 함께 수감되었던 개화파 기독교인들의 도움도 컸을 것이다.

한편 1884년 12월에 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한 정치 구데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다음,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이 11년만에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왔다. 미국시민권까지 얻었던 서재필은 조선에 돌아와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며, 독립협회를 창립하여 서구 민주주의 도입과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였다. 이 독립협회의 영향으로 고종은 국가의 명칭을 대한제국으로 고쳤고, 황제란 칭호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3년 만인 1898년에 독립협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하였고, 독립협회의 간부들에게는 체포령이 떨어졌다. 이때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개화파 인사들이 체포되어 한성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상재도 그의 아들 승인과 함께 1902년에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곳 감옥에는 1901년경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승만이 주선하여 도서실을 개설하였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헐버트와 같은 선교사들이 책을 마련하여 주었다. 이들이 넣어준 책들 가운데는 일반서적은 물론이고,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서적들도 섞여있었다. 이들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또 먼저 기독교인이 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이상재를 비롯한 많은 개화파 인사들이 이 한성감옥에서 기독교에 개종하였다. 이 때에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은 이승만과 이상재 말고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을 쓰신 남궁억을 비롯하여 유성준, 이원긍,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이승인, 신흥우와 같은 분들이다.

이들 개화파 기독교인들은 일본이 1904년에 일어난 노일전쟁에서 이기고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몰아냄으로써 명실상부한 한반도 지배자로 부상하게 되면서 석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연동교회로 모였다. 그러다가 일부 인사들이 묘동교회와 안동교회를 세웠고, 또 YMCA를 창설하여 청년운동을 펼쳤다. 이들 개화파 인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상재는 YMCA 신앙강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로 의식화된 많은 청년들을 길러냈다.

둘째,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은 곳곳에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민족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이다. 이승훈은 태어난 지 팔 개월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열 한 살 될 때까지는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모두 잃은 고아 출신의 장사꾼이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는 민족운동가로 변신하여 이름을 남긴 오산학교 설립자이다.

이승훈은 1907년 기독교인이자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그 이튿날로 상투를 자르고 개화인이 되었으며, 즐기던 술과 담배를 끊고 신민회에 가담하여 1910년 8월 한일합방이 되기까지 4년간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

이승훈의 민족운동은 동네 길을 쓸고 풀을 뽑는 것으로 시작하여,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을 계몽하였고, 신민회에 가담하여 동지들을 모았는데, 그가 속한 서북지역의 신민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 한일합방이후 이승훈은 1911년에 발생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심한 옥고를 치렀다.

셋째,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은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 독립선언문의 기초자인 육당 최남선을 비롯해서 서명자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독립선언문의 내용 역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 평등, 독립이었다.

민족독립운동에 힘쓴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가운데서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도파 독립지사 구연영 전도사, 전덕기 목사, 그리고 이준 열사를 소개하겠다.

구연영 전도사는 1895년 민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乙未義兵)을 일으킨 의병장 출신이었다. 구연영은 유생들을 규합하여 일으킨 을미의병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 운동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1897년 2월 스스로 남대문에 위치한 상동교회를 찾아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에 목회자가 된 전덕기 속장과 더불어 엡윗(Epworth) 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특히 친일파인 일진회를 규탄하는 강연을 자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일본군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천에서 미루나무에 묶인 채 아들과 함께 총살당하였다.

전덕기 목사는 아홉 살 때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된 다음, 숯장수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그는 17세 때인 1892년에 제발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을 찾아가 수년간 고용인으로 일하다가 후에 목사가 되었고, 남대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민족운동을 펼치다가 1911년 데라우치 암살 음모 사건 때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과 악형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39세의 나이로 순절한 사람이다.

전덕기 목사는 독립협회, 엡윗 청년회, 신민회 등 구한말 민족운동 단체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을사보호조약 무

효 상소운동(1905), 헤이그 밀사 사건(1907),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1911)과 같은 항일 구국운동을 주도하였다. 그가 만든 엡윗 청년회, 공옥학교, 상동 청년학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도파의 주요 멤버 가운데는 주시경, 이승만, 헤이그 밀사로 활동했던 이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비록 상도파는 아니지만, 전덕기와 더불어 을사보호조약 무효 상소운동을 함께 펼쳤던 인사 가운데는 진남포 감리교 청년회 총무 김구도 포함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전덕기 목사와 더불어 구국활동을 했던 헤이그 밀사 이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이준은 세 살 때 부모를 잃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란 고아였다. 이준은 민영환을 중심으로 이상재 등과 함께 1902년 개혁당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고, 1904년에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일진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철도(鐵島)라는 섬으로 잠시 유배를 가기도 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을사보호조약 무효 상소운동이 전덕기 목사가 시무하는 상동교회에서 열었는데, 이준은 김구 등과 함께 적극 가담하여 상소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의병운동이 구사상의 애국운동이라면, 우리 예수교인의 항일운동은 신사상의 애국운동이라고 하였다.

1907년 6월에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40개국 대표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고종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헤이그에 비밀특사를 파견하였는데,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 뽑혔다. 특사들의 임무는 을사보호조약의 무효와 일본의 침략적 근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그들의 후원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헤이그에 도착한 특사들은 숙소를 정하고 당당히 태극기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대표들의 온갖 훼방이 있었으나 특사들의 불굴의 노력으로 일제의 만행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표들은 끝내 만국회의에 초청 받지 못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했던 이준은 그가 묻고 있던 호텔에서 돌연히 순국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기독교식으로 네덜란드에 묻혔다가 56년 만인 1963년 9월 30일에 고국으로 돌아와 수유리 한신대학원 뒷산에 다시 묻혔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초기 한국개신교 신앙인들 가운데서 특히 집안이 가난했거나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으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 국가가 외세에 짓눌려 있을 때에 구국운동에 몸바쳐 헌신했던 위대한 분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개신교 신앙인들의 신앙족보에 실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신앙족보에는 그 어떤 민족의 기독교인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4. 초기 한국개신교인들의 영성(2)

(행 16:6-10)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선교사들의 간접적인 도움이 전혀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인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선 땅에 외국인 신부가 첫발을 디딘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요청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조선 천주교인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천주교보다 100년 이상 늦게 조선 땅에 전래된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땅에 개신교복음의 씨가 최초로 뿌려진 것은 선교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조선인들이 능동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전파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1885년 개신교 선

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처음 이 땅을 밟을 당시에만 해도 평안북도 의주와 황해도 소래에 교회가 있었고, 서울에서만도 이미 70여명의 세례 지원자들이 있었다. 이 모두가 서상륜이란 사람의 전도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조선에는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때이다. 기독교는 천주교 또는 야소(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서학에 반발하는 동학도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던 때였다.

서상륜은 만주에서 번역된 우리 나라 최초의 한글 쪽복음서 번역 팀의 한 사람이자, 판매원이이었으며, 뛰어난 전도인이었다. 또 그의 동생 서경조는 형 서상륜보다는 늦게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우리 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황해도 소래에서 목회하였다.

서상륜은 1849년생으로 평안북도 의주 사람인데, 14세 때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그는 한문을 공부한 잘생긴 양반집 자제였지만, 부모도 아니 계시고, 또 홍경래의 난(1811)에서 보듯이 반체제 정신이 강한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차별 때문에도 정치적으로 출세할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그래서 서상륜은 이미 십대의 나이에 만주를 넘나들며 무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경험부족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고, 고향 친구들과 함께 홍삼을 수출하는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 개신교 복음을 처음 받아드린 조선인들이 바로 이 서상륜과 같은 국경지역에 사는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한 양반출신의 국제 보따리 장사꾼들이었다. 천주교와 서학을 접하고 받아드렸던 최초의 사람들이 조선의 선비들이었던 것처럼 개신교를 접하고 받아드렸던 최초의 사람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양반출신의 상인들이었다.

이 때 중국은 아편 전쟁(1842) 이후 서방에 문호를 열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영국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선교사들이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섭리로 만주에 진출한 조선인 양반출신의 국제 보따리 장사꾼들을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쓴 것은 복음을 받아드렸던 몇몇 양반출신의 국제 보따리 장사꾼들이 먼저 위기를 만난 후에 영국인 선교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 글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동참했던 이응찬은 의주 사람으로 만주에서 처음으로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인데 장사꾼이었다. 그는 1876년에 만주에 내다 팔 물건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건을 강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응찬이 밑천을 모두 잃고 상심하고 있던 차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J. Ross)를 만나 그의 어학선생이 되었고, 그를 도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응찬은 1879년에 의주의 하급관리의 아들이었던 백홍준과 함께 역시 영국인 선교사 매킨타이어(J. McIntyre)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나라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홍삼을 가지고 중국에서 장사를 하던 중에 만주 봉천성 요령현의 항구도시 영구에서 장질부사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남의 나라의 주막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독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영국인 선교사 매킨타이어에게 어학을 가르치고 있던 고향 친구 이응찬이 서상륜을 매킨타이어에게 소개하였다. 이응찬의 소개로 서상륜을 찾아본 매킨타이어는 곧바로 서상륜을 자기 집으로 옮기고 극진히 보살폈으며, 영국인 의사를 불러 매일 두세 차례씩 진찰하게 하고 약을 써서 치료하여주었다. 물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보살핌이었다. 그 결과 서상륜은 두 주일만에 죽음 직전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 일로 서상륜은 크게 감명을 받았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소명을 주신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이 유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조국의 친구와 친척들은 자기를 인물 좋은 도적놈이라고 흉만 보고 상대도 하지 않는데,

생전에 보도 듯도 못하던 외국인이 기독교의 복음과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죽을 목숨을 살려 준데 대해서 서상륜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서상륜은 친구 백홍준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여전히 기독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탄압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특한 부름의 섭리를 따라서 서상륜은 "옛일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 온지 일년만에 서상륜은 장사하던 일과 집안 일을 모두 정리해버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교사를 찾아서 만주 영구로 되돌아갔다.

이 때, 만주 영구에는 2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1881년 5월에 돌아온 스코트랜드인 선교사 로스가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인쇄기를 설치하여 성경 인쇄에 착수하던 때였다. 이뿐 아니라, 로스는 의주 출신의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돌보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었다.

이 로스 선교사를 영구에 간 서상륜이 만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서상륜은 로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외모로는 공자와 맹자의 도를 섬기고, 스스로 문벌을 신뢰하고, 안으로는 교만과 궤휼과 거짓과 간음과 탐냄을 품어 남의 생명을 해하고 재물을 속이며 남을 얕잡아 보고 나만 잘 생겼다고 자랑하였고, 주위 사람이 흠잡아 말하기를, '면주자루에 개똥'이라고 하여도 오히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다녔으니,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심하고 무섭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면주자루에 개똥'이란 말은 '비단자루에 개똥'

이란 말로써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말이다. 겉모양은 멋진데 속에는 냄새나는 개똥이 담겼다는 뜻이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자 회개였다. 양반 집에서 태어나 가문을 내세우며 자만했던 나날들, 남을 속이며 생명까지도 빼앗았던 지난 날, 인간의 모든 악한 행실을 직업 탓으로 돌리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였다. 이런 회개와 반성이 있고 난 후인 1882년 봄에 드디어 서상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로스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국 개신교 개척자의 첫발을 딛게 되었다.

서상륜은 세례를 받고 대략 6개월 정도를 만주에 머물면서 로스의 성경번역을 도왔다. 그러나 서상륜은 자신의 사명이 성경번역보다는 번역된 성경을 조선에 반입하여 사람들에게 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1882년 10월 6일, 『예수셩교 누가복음젼셔』와 『예수셩교 요안복음젼셔』를 봇짐 속에 감춰 메고 반입을 시도하던 중에 의주국경검문소에서 검색을 받고 금서인 야소책을 소지한 혐으로 체포되었으나, 너그러운 검사관의 도움으로 책은 압수 당하였지만, 무사히 풀러날 수 있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서상륜이 검문소를 나와 의주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상륜을 검색했던 관리가 찾아와 압수했던 책들이 매우 좋은 책들이라며 그 자신이 바지 속과 소매 속에 감춰서 가져온 그 책들을 내놓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서상륜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고 담대하게 활동하였다.

한편 로스 선교사는 서울에 정착한 서상륜에게 성경을 전달하려고 애셨다. 평양출신의 인쇄공을 통해서 4백여 권의 쪽복음서를 1883년 5월에 비밀리에 전달하였고, 서상륜은 이것을 가지고 힘써 전도하여 그해 말에 13명의 세례 지원자가 있음을 로스에게 알렸다.

1884년 로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해와 제물포간 항로를 통해 쪽복음서와 한문서적『德惠入門』등의 신앙서적을 서상륜 앞으로 보냈는데, 세관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 때 조선정부의 독일인 관리 뮐렌도르프가 그 부인의 간청으로 개입하여 그 책들을 무사히 서상륜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 일이 있었던 1884년 말에는 세례 지원자가 7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세례 지원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었다. 아직 국내에는 선교사나 목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상륜은 그동안의 전도성과에 대해서 로스에게 알리면서 입국하여 세례 지원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해 12월에 갑신정변이 발생하여 외국인 선교사의 입국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에 언더우드와 7월에 아펜젤러가 입국하였다. 그리고 서상륜이 언더우드 목사를 만난 것은 1886년 말이었다. 서상륜은 언더우드에게 황해도 소래에 내려와서 그곳 신앙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선교사들에게는 여행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상륜의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 다음해인 1887년 1월에 서상륜이 황해도 소래에 있는 세례 지원자 4명을 인솔하여 서울로 올라와 세례를 받게 하였다. 세례를 받은 4명 속에는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언더우드는 1887년 가을에 가서야 비로소 북부 지방을 여행하면서 서상륜과 백홍준이 전도하여 생겨난 신앙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수 있었다. 그리고 이해 9월 27일에는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의 자택에서 세례 교인 14명으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1명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서상륜과 백홍준의 전도를 받아 교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 자리에는 만주에서 온 로스 목사도 참석하였는데, 자신이 가르쳐 파송한 서상륜과 백홍준의 활동성과에 매우 감격해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한국개신교 전도인 서상륜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 기독교인으로써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위대한 정신과 신앙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개신교 전도인 서상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다.

첫째, 조선 기독교는 조선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앞글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 또한 선교사들이 아닌 조선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인의 기독교이어야 한다.

둘째, 조선 기독교는 우리 글, 한글의 발전과 반포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 또한 언문으로 천시되어 질그릇에 불과했던 순 우리 글에 하늘의 보배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한글을 깨우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국 최초의 신앙인이자 유학자였던 광암 이벽이 1779년 천진암 주어사에서 나이 26세 때에 지은 「천주공경가」를 시작으로 교리서, 기도문, 성경 등을 순 우리 글, 한글에 담아서 전달하였고, 까막눈이 돼놔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깨우치는 일까지 해냈던 것이다.

셋째, 서상륜 자신이 영국인 선교사 매킨타이어가 베푼 선행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전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는데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초기 한국개신교 전도인 서상륜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푼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친척과 친지 그리고 동족

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경애와 희생적인 사랑이 서상륜에게 전달되었을 때, 서상륜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넷째,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서상륜은 복음을 받아드린 후, 옛일을 떨쳐버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과거의 삶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한 후에는 평신도로써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순교자들과 위대한 선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세계 어느 나라의 기독교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자랑스런 선배들을 많이 배출했다. 후배들인 우리들은 그분들의 업적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상륜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며,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주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될 것이다.

제6장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삶

1. 성경을 믿었던 천문학자들
2.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던 과학자들

제6장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삶

1. 성경을 믿었던 천문학자들 (시 19:1)

갈릴레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란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고 하였다. 그렇다. 자연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 자연은 창조 과정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기록한 책이다. 자연과학의 증거들은 지난날 지구와 우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었으며, 과거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다.

갈릴레오가 말했듯이 우주 생성과 지구 역사의 문제는 두 권의 책 즉 자연과학의 증거와 성서적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두 권의 책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쓰신 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만일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무지한 인간들이 자연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때문일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일부 과학자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든지, 성경에 대한 일부 신앙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되었든지 셋 중의 하나 일 것이다. 잘못될 가능성은 어느 쪽에나 다 있다. 과학자들이 지구와 우주의 생성 문제에 관해서 자연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신학자들이 지구와 우주의 생성 문제에 관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다. 과학자들의 빅뱅설이 자연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일 수 있고, 신학자들의 문자적인 6일 창조설이 성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연해석과 성서해석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회 교육에서는 성경을 교재로 창조론이 주장되고 있고, 학교 교육에서는 자연과학을 교재로 진화론이 주장되고 있고, 성경과 자연과학 사이에 큰 모순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서 배우는 학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근래 와서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자연의 증거가 완전 진화를 입증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화석은 진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진화를 입증할만한 중간상태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들은 오히려 창조를 입증해주고 있다. 화석 상태로 발견된 시조새도 이미 날개와 털이 있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진화과정의 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시조새가 진화과정의 새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 수 억 또는 수 만년 세월 속에서 형성된 수많은 동식물의 화석들 가운데 중간과정의 화석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화석이 진화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동식물의 기관발달이나 퇴화도 진화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 파리는 언제나 파리이며, 원숭이는 언제나 원숭이였듯이 유전학적으로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동물들의 태아가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것은 진화를 입증하기

보다는 우주의 설계자이며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맹장이나 꼬리뼈와 같은 흔적기관도 정말 흔적기관인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맹장이나 꼬리뼈 같은 흔적은 그 나름의 기능이 있다고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맹장이나 꼬리뼈가 흔적기관이라 할지라도 종(種) 내의 부분 진화에 불과한 것이지, 대진화나 화학진화 또는 생물진화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 자연의 증거들에 의한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자연에서 지지를 찾는 철학적 가설이란 점이다.

한편 자연의 기록과 증거는 하나님의 우주창조의 방법으로 문자적인 6일 창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우주생성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전하는데 있지 않고,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전하는데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신앙고백 또는 신학적 의미의 6일 창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의미적 6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후에 일정기간의 발달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이론이다. 성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를 6천년으로 단정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창조론이 과학적 증거에 의한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 우주의 창조자로 고백하는 위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이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생명 기원에 대한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과학은 물체나 현상을 관측하고 관측된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과학자는 관측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리와 가

정을 세우고 이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복된 실험을 하게 되고 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그 이론을 과학적 사실과 법칙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생명 기원에 대한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이러한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진화나 창조과정을 반복해서 실험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기원을 우연의 산물로 보는 진화론이 부정되고 생명체를 설계의 결과로 보는 창조론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첫째, 확률적으로 생명체가 우연이 형성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조물주의 창조 없이 생명체가 우연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은 $1/10^{130}$ 즉 10에다가 0을 130개 보탠 숫자 분의 일에 불과하다. 100퍼센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또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생체 내에서는 단 5초에 합성되지만, 생체 밖에서는 10^{50}년 즉 10에다가 0을 50개 보탠 숫자만큼의 햇수가 걸린다고 한다. 지구의 나이가 $4.5x10^{9}$ 즉 45억 년이기 때문에 10의 50승이란 숫자는 셀 수도 없는 숫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단백질 하나라도 우연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둘째, 무기 물질에서 단세포가 발생되는 과정의 화학진화나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는 과정의 생물진화 가설은 열역학 제 2 법칙에 위배된다. 자연의 법칙은 진화의 법칙이 아니라, 퇴보의 법칙이다. 과학기술문명과 도시문명의 발달은 진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다. 고대에는 동식물들이 얼마나 우람하고 울창했던지 그것들이 땅 속에 묻혔을 때 오늘의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이대로 땅 속에 묻힌다고 할 때 석탄

이 되고 석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전혀 없다. 그만큼 자연 상태에서의 동식물들이 다 퇴보했다는 증거이다.

셋째, 지구상에는 150만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한다. 이들 생물들은 놀랄 만큼 정확하고 질서 있게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뿐 아니라, 이 유전정보 한계 내에서 번식하고 있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형질의 선택이 일어나 더욱 복잡하고 질서 있는 고등생물로 발전되었다는 진화론은 생물학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이론이 되지 못한다. 문자를 사용했던 과거 4-5천년의 인류 역사상 중간 상태의 동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아무 곳에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시인들의 동굴의 벽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넷째, 지질-화석학적으로도 진화론이 입증되지 못한다. 지구상에 150여만 종의 생물들이 출현하려면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형태의 화석이 무수히 발견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통해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욥기서 26장 7절의 말씀과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는 예레미야 33장 22절의 말씀을 진실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힌 공로자가 되었다. 당시에는 별이 많아야 3000여 개일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30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고 말했고, 예레미야는 2600여 년 전에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말했다. 1608년 갈릴레오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이후 우주에는 은하계의 수만도 수십 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하며, 각 은하계는 수십 억 내지 수백 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청년 시절 갈릴레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평생을 수도사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신앙인이었으며, 아버지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두 딸만큼은 수녀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였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앞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1473-1543)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으로 열 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카톨릭 주교였던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교회법을 전공한 사제였다. 또 코페르니쿠스는 카톨릭 교구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주었고, 약도 나누어주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전공인 교회법이나 의학보다는 천문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천문학자 노바라 교수와 사귀면서 천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천체를 열심히 관측한 결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말씀을 들어 성경과 과학이 결코 모순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공로자가 되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동시대 사람으로 지동설의 주장은 물론이고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 타원의 궤도를 그린다는 점까지 발견한 사람으로 요한 케플러(Johann Kepler, 1571-1630)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케플러는 가세가 기우는 가난한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매우 허약하였다. 그러나 루터교 신앙이 철저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한편 케플러는 천문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방면의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학공부는 1594년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신학교에 수학 교사로 부임하면서 중단되게 되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1600년에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인 천문학

자 티코 브라헤(1546-1601)를 만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천문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후 케플러는 덴마크 황제의 수학 담당관으로 임명되었고, "혹성의 궤도는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중심을 가진 타원형의 궤도다"라는 케플러 제1법칙과 "태양을 초점으로 한 혹성의 움직임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면적 궤도를 그린다"는 제2법칙 등을 발견하였다. 케플러는 그의 책『우주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우연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발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만일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내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은사인 마에스트린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연이란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다. 특히 케플러는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우리들 천문학자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엇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케플러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노래한 시편 19장 1절의 말씀을 자신의 천문학 연구의 중심사상으로 삼고 일생 동안 노력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한 때 신부나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신앙인들이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지만, 특히 그들의 위대한 신앙고백은 우리가 마음 속 깊이 새겨야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란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고 했다. 요한 케플러는 "자

연이란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 케플러는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였고, "우리들 천문학자는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엇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자연의 책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어야겠다.

2.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던 과학자들

(창 2:21-22)

수술 때에 사용하는 마취제가 발견된 것은 150여 년 전이다.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제임스 심프슨(James Simpson, 1811-1870)이다. 심프슨은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영리한 심프슨은 14세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하였고, 29세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산과학 교수가 되었다. 심프슨은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어 줄 수 있을 가를 깊이 생각하던 중에 창세기 2장 21-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갈비뼈 하나를 떼어 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그 수술을 받은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 2:23)고 탄성을 울렸던 것이다. 그래서 심프슨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

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수술용 마취제의 개발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847년 11월에 심프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되었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이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1627-1691)이다.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욥기 28장 25절,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정하시며"란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하였다.

보일은 열두 살 때 이미 영어뿐 아니라 불어와 라틴어, 헬라어, 시리아어, 히브리어와 수학에도 능통했고, 원어로 성경을 읽을 정도였다. 보일은 학문에 대한 욕심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1644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준 유산을 고국 아일랜드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과 기타 많은 선교 사업에 사용하였다. 또 가난한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한 책을 출판코자 할 때에 선뜻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했다.

바다에 뱃길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은 120여 년 전이다. 뱃길을 발견한 사람은 매튜 머리(Matthew Maury, 1806-1873)이다. 1927년 미 해군 연구소에서 출판한 『해류의 발견자 매튜 머리』라는 책에 의하면, 매튜 머리가 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성경을 읽어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시편 8장을 읽게 되었다. 시편 8장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잘 보여주는 여러 시편 말씀 중의 하나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라는 8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매튜 머리는 "하나님께서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병상에서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서양 바닷물의 온도와 해류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바람과 해류의 순환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멘델의 유전법칙도 발견된 것이 불과 100여 전에 불과하다. 그레고리 요한 멘델(Gregory John Mendel, 1822-1884)는 오스트리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1848년에 사제가 된 사람이다. 1851년에 빈 대학에 입학하여 관심 많았던 식물학과 곤충학 등을 연구하였다. 1853년 마침내 대학을 졸업한 멘델은 사제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38-39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이 어떤 원리에 의하여 태어나고 자라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그는 완두콩을 이용하여 유전의 법칙을 알아냈다.

키 큰 완두콩과 키 작은 완두콩을 꽃가루받이하여 심었더니, 제1대에서는 우성인 키 큰 완두콩만 나왔다. 제2대에서는 키 큰 완두콩 3개가 나올 때, 열성인 키 작은 완두콩이 1개 나왔다. 제3대에서는 키 큰 완두콩에서는 키가 큰 것과 키가 작은 것이 함께 나왔지만, 키 작은 완두콩에서는 키가 작은 것만 나왔다. 완두콩의 색깔에서도 이런 법칙이 그대로 성립되었다. 단지 색깔 교배에서는 녹색이 우성으로 노란색이 열성으로 나타났다. 멘델의 유전법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과 종의 불변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미국의 월간지『라이프』는 최근(1997) 특집호에서 지난 일 천년을 만들어낸 1백대 사건과 1백인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사건으로 6위, 인물로는 8위에 오른 사람이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이다. 그는 프랑스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시골 중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스트

라스부르그 대학의 화학과 조교수가 되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지 않지만, 18-19세기만 해도 미생물의 자연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미생물을 연구하던 파스퇴르는 미생물 자연발생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세계와 생물들을 창조하고 7일 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미생물이 자연 발생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으로써 파스퇴르는 도저히 자연발생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파스퇴르는 "자연 발생설은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아. 이것을 밝히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스퇴르는 목이 긴 유리 그릇을 만들어서 S자 형으로 목을 구부렸다. 이것의 생김새가 백조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하였다. 여기에 고기즙을 넣고 가열한 후 그릇의 마개를 닫지 않고 공기 중에 방치하였다. 목을 구부려 놓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미생물들은 구부려진 목에 걸려서 유리 그릇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그릇 안의 즙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 이번에는 솜에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관찰해 보았는데, 솜에 미생물들이 번식한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을 즙에 넣어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금방 부패해 버렸다. 이번에는 솜을 가열한 다음에 넣어 보았더니, 즙은 다시 상하지 않았다. 이 유명한 실험으로 미생물의 자연발생설은 완전히 부정되었으며, 생물은 생물로부터만 발생된다는 생물발생설이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결과였다.

곤충의 아버지 앙리 파브르(Henri Fabre, 1823-1915)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공부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만을 골라 다녔다. 집안이 가난하여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다. 열 네 살 때에는 부모님 곁을 떠나 레몬행상을 했다. 잠은 근처 공원이나 나무 밑에서 쪼그린 채 자기도 하고, 한때는 철로변의 공사장 인부로 일하기도 했다. 그런 동안 몸은 야위어 갔고, 일거리가 없는 날은 물만 마시고 보낸 날도 많았다고 그는 훗날 고백했다. 그러나 파브르는 이렇게 일생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독학으로 공부에 정진하여 학비가 면제되는 사범학교에 수석 입학하였다. 처음 한 동안은 곤충에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평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러자 파브르는 이런 악평에 자극을 받아 또 한번의 끈질긴 인내력을 발휘하여 마침내 4년에 마쳐야할 과정을 3년에 마치고 19세의 나이로 공립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때부터 파브르는 곤충 연구에 매진하여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하였다.

파브르는 벌레들의 신기한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다. 그런데 신성한 교회에서 과학 강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결과 파브르는 교회에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파브르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파브르는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또 예수는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 이제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해 글을 쓰자."라고 결심했다. 이 후 그는 9년에 걸쳐서 『과학 이야기』, 『전원의 과학』, 『식물의 생활』, 『우리를 돕는 동물』 등의 책들을 잇달아 펴냈다. 이어서 파브르는 그 유명한 『곤충기』를 집필하여 출판했다. 파브르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극히 작은 것들 즉 곤충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살았다.

열역학 법칙이 발견된 것도 100여 년 전일이다. 이 법칙을 발

견한 사람은 캘빈(Lord Kelvin, William Thompson, 1824-1907) 경이다. 그는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였고, 70여 가지 특허품을 가진 발명가였다. 캘빈 경은 '절대온도,' '에너지,' '열역학' 등의 단어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다. 그가 발견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은 과거 언젠가 우주에 죄와 죽음과 같은 무질서가 침입해 들어왔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법칙이다. 캘빈은 16세 때에 쓴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계명을 내려 주셨다. 그 열 한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과학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 올라가라. 거기서 지구의 무게를 달고, 공기의 무게도 달며, 조수에 관하여 알아보아라. 행성들에게 운행의 길을 알려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태양의 여러 현상을 조절하라.'" 그는 이 결심대로 17세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였고, 18세 때에는 열역학에 관한 심도 있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2세 때에는 글래스고우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진화론을 반박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시작은 어떤 화학적, 전기적 활동이나 분자들의 운동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생물 창조의 지혜와 신비를 직접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병원에서 소독약이 쓰인 것도 100여 년 전에 불과하다. 소독약을 발견한 사람은 외과의사 조셉 리스터(Joseph Lister, 1827-1912)이다. 19세기 말 당시에는 수술 후 패혈증으로 죽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70명이나 되었다. 미생물학자 파스퇴르에 의해서 물체가 썩는다든지 포도주의 발효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었지만, 패혈증이 세균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셉 리스터가 파스퇴르의 글을 읽고 소독의 필요성을 발견하기까지만 해도 소독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패혈증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자, 리스터는 "하나님께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패혈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는 창조적 신앙을 가졌다. 그 결과 석탄산으로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들은 미국 연합형제단 교회의 청빈한 목사였던 밀턴 라이트의 셋째(W. Wright, 1867-1912)와 넷째(O. Wright, 1871-1948) 아들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같이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준 중요한 발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라는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과학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많은 수의 과학자들이 이 조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한국 창조과학회의 신조를 살펴보면,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진리임을 믿는다. 둘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기본 생물체는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창조이후에 나타난 생물학적 변화란 원래 창조하신 종류의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서 과학자의 길로 인도해주심을 믿고 충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적고 있다.

제7장 기독교인의 복음적 삶

1. 기독교 신앙과 삶
2. '더하기'의 복음과 '빼기'의 율법
3. '더하기'식 삶과 '빼기'식 삶

제7장

기독교인의 복음적 삶

1. 기독교 신앙과 삶

(창 1:1-5; 롬 10:9-10)

조지 워싱톤 카버가 한번은 미 상원에서 땅콩에 관한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 카버의 설명을 듣고 난 한 상원의원이 물었다. "박사께서는 어디서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책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책에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땅콩에 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성경은 땅콩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카버는 흑인 농부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식물과 광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동시대 사람으로 지동설의 주장은 물론이고 태양을 도는 행성들이 타원의 궤도를 그린다는 점까지 발견한 요한 케플러(Johann Kepler, 1571-1630)는 그의 책『우주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우연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발견하

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내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또 케플러는 "우리들 천문학자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이라는 책에서 무엇인가 찾도록 허락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 특히 케플러는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자연이란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케플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하는 것' 또 카버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선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삶이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기독교 신앙과 삶'이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요한 케플러는 가세가 기우는 가난한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매우 허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이런 신체적 악조건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덴마크 황제의 수학 담당관이 되어 천문학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조지 워싱톤 카버는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에 흑인 노예의 몸에서 태어났다. 카버의 삶은 자연법칙에 따라 처참하게 버려진 흑인의 삶일 수밖에 없었다. 카버의 아버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백인 밑에서 하녀로 있었는데, 백인 무장 폭도들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팔려가게 되었고, 보자기에 쌓인 채 버려졌던 카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지만,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말 한 필 값을 치른 후에야 카버를 데려올 수 있었다.

그후 카버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흑인을 받아 주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혼자 힘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아이오와 농과대학을 마쳤다.

1896년 32살의 카버는 앨라배마주에 터스키지학원을 세워 흑

인들을 교육하던 부커 워싱톤으로부터 "타락하고 가난하며 버려질 운명에 처해있는 우리의 동족 흑인들을 구출하여 떳떳한 인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돈과 명예를 버린 채, 이때부터 흑인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 57세 되던 해, 카버는 토마스 에디슨 연구소로부터 98년으로부터 77년 전이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인 연봉 1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도 뿌리친 채 32살 때부터 받기 시작한 연봉 125 달러에 만족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가난과 멸시와 천대 속에 버려진 흑인들을 위해서 몸을 바쳤다.

조지 워싱톤 카버는 흑인이란 어둠과 혼돈과 죽음을 딛고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일어선 위대한 창조신앙의 소유자였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흑인이란 악조건을 창조적 삶의 방식으로 극복한 위대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혼돈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해 내신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둠에 빛을 비추시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존재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타락을 회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정신이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의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도 법칙이 있다. 이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는 정반대이다. 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이 망가지는 죽음의 법칙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내버려두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망가지고 만다. 이것이 제2열역학 법칙이요, 엔트로피 법칙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좋았던 것이 나빠지고, 새 것이 헌 것이 되고, 살아 있던 것이 죽어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란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자연의 법칙에 거슬려 망가지는 것을 막고, 망가진 것을 고쳐나가는 것, 즉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에덴동산의 법칙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타락이후에 생겨난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자연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타락이후의 것을 타락이전의 것으로 되돌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있음이 없음이 되는 것, 생명이 죽음이 되는 것, 빛이 어둠이 되는 것,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것, 바로 선 것이 넘어지는 것,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것,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 평화가 분쟁이 되는 것, 일치가 분열이 되는 것,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 선이 악이 되는 것,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것, 믿음이 의심이 되는 것,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것, 긍정이 부정이 되는 것, 능동이 수동이 되는 것, 열림이 닫힘이 되는 것, 건설이 파괴가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무질

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 타락한 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것,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것,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것,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것,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 악을 선이 되게 하는 것,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 의심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는 것,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 모순을 조화롭게 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부정이 긍정이 되게 하는 것, 수동이 능동이 되게 하는 것, 닫힘이 열림이 되게 하는 것, 파괴가 건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의 참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에게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며 예수의 플러스식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다.

고대 유대인들은 숫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표기하는 관습이 있었다. 따라서 성경에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6,7,8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소개하겠다.

고대 시비린 신탁에서는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하고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숫자 7로 표기한다. 7을 완전수와 거룩한 수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6일째 날에 만드셨다고 해서 숫자 6으로 표기한다. 6이란 숫자는 묘한 숫자이다. 6은 완전수 또는 하나님의 수인 7에 가장 근접한 숫자이면서도 단지 1이 부족한 숫자이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6이란 숫자를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겠다. 마이너스 1, 이것이 인간이 무엇이며 누

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인간은 그 능력이 무한해서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으면서도 신의 능력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부족과 죄만 깨닫게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플러스 1의 존재로부터 남는 1을 얻어다 부족한 마이너스 1을 채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플러스 1인가?

고대 시비린 신탁에서 예수를 8로 표기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왜,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했을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기교회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용어 가운데 '제8일째 날'이란 것이 있다. '제8일째 날'이란 '주님의 날' 또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한다. 이 날이 기독교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이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 첫날' 또는 '안식 후 첫날'이란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8일째 날'이란 용어를 썼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오, 또 교회가 시작한 날이란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특히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또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데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맛좋은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조지 워싱톤 카버나 요한 케플러는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나 믿어진다.

2. '더하기'의 복음과 '빼기'의 율법

(마 5:38-44)

신약 성경 27권은 처음 쓰여질 당시 그 글을 받아 보는 정해진 수신자들이 있었다. 이들 수신자들은 개인인 경우도 있었고,

교회와 같이 특정 집단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무특정 다수를 향해서 쓰여지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독자를 향해서 쓰여졌다. 이 가운데 몇 권의 책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가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모세에 견주어서 설명한 부분이 많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해준 십계명과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가장 훌륭한 성경책으로 믿고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에 개종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생각들이 자칫하면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와 모세를 유형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예수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점과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점과 예수께서 행한 기적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들보다 훨씬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예수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참 예언자로 보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마 3:11), 유대인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었던 성전보다 더 크신 분(마 12:6), 물고기 배속에서 살아 나온 요나보다 더 크신 분(마 12:41),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마 12:42)으로 강조하고 있고, 의미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했던 다윗 왕보다 더 크신 분(마 22:41-46), 그리고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저런 명령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 5:21-44)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를 모세보다 더 큰 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수는 역대 어느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시며(히 1:4),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

스도이시며(히 1:5-2:18),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다(히 3:1-6). 이뿐 아니라, 예수는 믿음의 최고 목표이시며(히 3:7-4:16),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시며(히 5:1-10:39),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히 11:1-13-19)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5-7장에 실린 주옥같은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9-22장에 실린 천국 비유와 예루살렘 입성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나눈 변론에 대해서 마태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마 7:28; 22:33)고 민중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고, 마가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찜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막 1:27)고 무리의 놀람을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눅 4:32)고 민중의 충격을 소개하고 있다. 민중들이 예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한결같이 '놀라워' 했고, '새 교훈'이라고 했고, '권세'가 있다고 했다.

예수의 권위는 그 분의 행동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마태와 누가는 각각 20개씩의 예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10개의 기적을 마태는 8-9장에서 몰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8장 27절과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마 8:25), 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눅 8:25)고 적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의 권위에 다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이를 두고 누가는 9장 43절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고,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겼다."고 했다. 그만큼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서

나타난 권위는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둘째, 예수가 전한 복음은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었다. 예수의 복음은 살리는 것이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죽이는 것이며, 죄를 깨닫게 하여 곤궁에 빠뜨리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더하기'가 되지만, 모세의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빼기'가 된다. 예수의 복음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하였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서 가운데 '고엘 하담'이란 용어가 있다. 이 말은 '피의 복수자'란 뜻이다. '피의 복수자'는 자신의 친인척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잡아 동일한 상해를 입힐 복수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피의 복수자'는 상해 당한 자와 가장 가까운 근친 가운데서 뽑힌다. 이 사람의 복수는 합법적인 것으로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대 근동세계의 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동해상해법이었다. 가해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입히는 처벌법을 말한다. 모세가 전한 율법에는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과실 치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꾸어, 피를 용서로 갚으라고 가르쳤다. 마태복음 5장 38-44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가르치셨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빼기'의 율법을 수정하여 '더하기'의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이다.

고대 유대인들은 숫자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이 있었다. 따라서 성경에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6,7,8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말씀드리겠다.

고대 시비린 신탁에서는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하고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숫자 7로 표기한다. 7을 완전수와 거룩한 수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6일째 날에 만드셨다고 해서 숫자 6으로 표기한다. 6이란 숫자는 묘한 숫자이다. 6은 완전수 또는 하나님의 수인 7에 가장 근접한 숫자이면서도 단지 1이 부족한 숫자이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는 6이란 숫자를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겠다. 마이너스 1, 이것이 인간이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인간은 그 능력이 무한해서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으면서도 신의 능력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부족과 죄만 깨닫게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플러스 1의 존재로부터 남는 1을 얻어다

부족한 마이너스 1을 채우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플러스 1인가?

고대 시비린 신탁에서 예수를 8로 표기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왜,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했을까?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기교회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용어 가운데 '제8일째 날'이란 것이 있다. '제8일째 날'이란 '주님의 날' 또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한다. 이 날이 기독교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이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 첫날' 또는 '안식 후 첫날'이란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8일째 날'이란 용어를 썼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오, 또 교회가 시작한 날이란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특히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를 숫자 8로 표기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

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또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데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맛좋은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 그렇다고 모세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와 모세가 전한 율법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빼기'의 율법을 전해 받고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하물며 '더하기'의 복음을 전해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세계 최고의 예수의 민족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에게 '더하기'가 되게 하는 분으로 믿으며 예수의 더하기식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다.

3. '더하기'식 삶과 '빼기'식 삶

(마 11:28-30)

앞글에서 '더하기의 복음과 빼기의 율법'이란 제목으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와 그분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고, 모세와 그의 율법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그분의 복음만이 '마이너스 1'의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더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예수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시며, 심지어 천사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예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율법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교훈이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일 뿐 아니라, 지키기 힘든 것들이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들이었지만, 예수의 교훈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일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쉼과 자유를 주는 것들이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앞글에서는 예수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예수의 행동과 모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예수의 '더하기'식 삶과 모세의 '빼기'식 삶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마태복음 5-7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긴 예수의 말씀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8-9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10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말씀과 기적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이집트에서 행한 10개의 기적에 비교가 된다. 예수의 산상수훈과 모세

의 율법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예수의 산상수훈은 인간에게 더 하기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쉼과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은 인간에게 빼기가 되고, 억누름과 고달픔이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의 8복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예수의 8복은 모두가 위로와 축복을 약속하는 긍정적인 말씀들로 되어있지만, 모세의 십계명은 모두가 "~하지 말라" 또는 "~하라"는 명령과 부정적인 금지의 말씀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 ." 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이 지키라. .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8-9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10개의 기적 또한 각종 질병과 귀신들림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고 살리는 것인 반면, 모세의 10가지 기적은 오히려 인간에게 각종 질병과 자연의 재해를 주고 인간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기적은 인간에게 보탬이 되고 구원이 되지만, 모세의 기적은 인간에게 빼기가 되고 재앙이 된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인간에게 플러스가 되지만, 모세의 말씀과 행동은 인간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오랜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능력 많고 겸손한 지도자이다. 또

모세가 전한 십계명과 율법은 당대의 어느 주변국들의 것들보다 뛰어난 것들이다. 율법이 나쁘거나 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간에게 있다. 인간에게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인간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모세의 말씀과 행동이 인간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첫째, 예수의 복음과 기적에 비교해서 열등하다는 뜻이오, 둘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행동보다 열등하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고 하였다. 율법이 인간의 윤리적인 생활에 다소의 보탬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인간에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인간을 죄와 불행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뿐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은 인간에게 유일한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보다도 더 극적으로 예수의 기적과 모세의 기적을 비교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마태는 8복, 8개의 천국비유, 8개의 종말비유와 같이 숫자 8을 즐겨 사용하였고, 8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넉넉함, 충만함, 또는 넘침을 일깨워 주었지만, 요한은 숫자 7을 즐겨 사용하였다. 일곱 가지 축복들(2-3장), 일곱 교회(1:4,11), 일곱 영(1:4), 일곱 금 촛대(1:12), 일곱 별(1:16), 일곱 인(5:1), 일곱 뿔과 일곱 눈(5:6), 일곱 나팔(8:2), 일곱 우뢰(10:3), 일곱 표적(12:1,3; 13: 13-14; 15:1; 16:14; 19:20), 일곱 면류관(12:3), 일곱 재앙(15:6), 일곱 금 대접(15:7), 일곱 언덕(17:9), 일곱 왕(17:10) 등, 온통 완전수 혹은 거룩한 수 7로 계시록을 장식하고 있다. 요한은 7이란 숫자를 통해서 기독교인과 기독교 복음의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 완벽한 축복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의 기적을 7개만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7개의 기적들은 모세의 열 가지 기적들 가운

데 파리, 이, 개구리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기적들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한은 숫자 7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예수의 기적을 모세의 기적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7개만 선별적으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할 당시에 모세가 행한 열 가지 기적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재앙을 초래한 부정적인 것들 즉 '빼기'인데 비해서, 요한복음에 실린 예수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모두가 다 축복을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것들 즉 '더하기'였다. 여기서 예수와 모세의 차이, 또 기독교 복음과 유대교의 율법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모세는 물을 피로 바꿈으로써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재앙을 불러왔지만,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파투날 뻔한 잔치분위기를 되살려 놓아 잔치에 참여한 자들과 주인에게 기쁨의 은혜를 가져다주었다. 이 두 개의 기적은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다.

둘째,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기르는 가축에 심한 악질이 나게 하여 모든 가축을 죽게 하는 재앙을 가져다주었지만, 예수는 병으로 거의 죽게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집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셨다. 여기에서 가축은 주인이 기르는 짐승이란 점에서 왕의 신하가 기르는 아들과 비교되어지고 있다. 모세가 이집트인들이 기르는 가축을 병들어 죽게 했다면, 예수는 왕의 신하가 기르는 아들이 걸린 병을 고쳐주었다.

셋째, 모세는 이집트인들과 짐승들에게 독한 피부병이 나게 하여 몹시 괴롭게 하였지만, 예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던 삼십 팔 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성경이 38년 된 병자의 병명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의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그 사람을

피부병에 비교하였다. 아무튼지 이 두 개의 기적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다.

넷째, 모세는 이집트인들과 짐승과 채소밭에 뇌성과 불과 우박을 맹렬히 퍼붓게 하여 큰 피해를 주었지만, 예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몰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나타나 성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다. 이 두 개의 기적은 자연의 재해와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다.

다섯째, 모세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우게 함으로써 엄청난 재산 피해를 이집트인들에게 입혔지만, 예수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 배고픈 민중에게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였고, 먹고 남은 음식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하였다. 이 두 개의 기적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다.

여섯째, 모세는 이집트에 삼일간이나 흑암 재앙을 내려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였지만, 예수는 실로암 못 근처에서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고쳐 광명을 찾게 하셨다. 이 두 개의 기적은 보는 것과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다.

일곱째, 모세는 이집트인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줌으로써 큰 슬픔에 쌓이게 하였지만, 예수는 죽은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냄으로써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었다. 이 두 개의 생명과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다.

이렇게 예수의 행동은 파투날 뻔한 잔치분위기를 되살린 것이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친 것이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한 것이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복음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다는 것은 자신과 남에게 이익을 주며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며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 가지는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한다는 뜻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의 삶을 따라 산다는 뜻이다. 예수를 신뢰한다는 뜻은 예수를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오, 예수의 삶을 따라 산다는 뜻은 예수를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하기가 되시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씩 둘씩 보태지기 시작한다. 다른 편으로는 예수의 '더하기'식 삶을 본받아 남에게 보탬이 되고, 더하기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더하기식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죠지 뮬러이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인 죠지 뮬러는 1805년 독일의 크로펜스타트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허몬 프랑케의 생애를 읽고 크게 감동 받아 30세에 고아원을 시작했다. 그가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 준비된 물품은 선물받은 접시 세개, 쟁반 스물 여덟 개, 대야 세 개, 물병 하나, 컵 한 개, 소금병 받침 세 개, 칼 네 개, 포크 네 개, 그리고 채소를 깎는 강판 한 개 뿐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62년 동안 조지 뮬러는 약 30억원 이상을 후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뮬러는 한 번도 또 한 푼이라도 남에게 호소하거나 부탁해서 얻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더하기가 되시는 예수를 철저히 믿고 기도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죠지 뮬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 죠지 뮬러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그날 그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많은

돈을 보내주었지만, 뮬러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뮬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의 더하기식 삶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진정한 축복과 쉼을 얻는 것이오, 인류에게 더하기가 되신 예수의 삶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되기 위한 것이다.

제8장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적 삶

1.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
2.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
3.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4.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제8장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적 삶

1.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벧전 2:9)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사람들이다. 또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선포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인정하신다면 이보다 더 유쾌하고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혹시 자기자신을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정말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생각만 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왕처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아니겠는가? 진짜 왕으로써 왕처럼 살지 않는 사람 있겠는가? 모든 왕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왕처럼 행동한다. 그렇다면 왕 노릇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말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자기 안에서 왕 노릇하

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자기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롬 5:17, 21). 또 계시록에 보면, 부활에 참여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계 20:4-6).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필자를 포함해서 과연 왕 노릇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반성과 함께 어떻게 사는 것이 왕 노릇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왕 노릇을 못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왕은 참으로 자유 하지만 홀로서야 한다. 외로울 때가 참으로 많다. 98년에 큰 인기를 얻었던 KBS사극 '용의 눈물'에서도 잘 반영되었지만, 참으로 자유한 자와 참으로 권력을 손에 쥔 자는 외롭다. 따라서 왕이 갖추어야할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옳은 일에 홀로 설줄 알고 홀로될 줄 아는 것이다.

예수를 만 왕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빌라도가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마 27:11)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막 15:18)고 하셨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홀로 서셨다. 삼 년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던 민중도 떠나갔다. 그러나 예수는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죽음의 길을 걸었다.

구상이 1974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 가운데 '그분이 홀로서 가듯'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천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나 혼자의 무력에 지치고 번번이 패배의 쓴잔을 마시더라도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정의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적 기색도 없이 아니, 볼 꼴 없고 병신스런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또 왕은 참으로 자유 하지만,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하며, 대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며, 옳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다스림의 기본은 자기자신이다. 그 다음이 가정이다. 그 다음이 국가다. 그래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오르내릴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거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울을 들어다 본다. 필자도 매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거울을 들어다 본다.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저기 거울 안에 있는 사람 누구야? 거 대개 못생겼네!” 물론 나 자신을 보고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 만은 아닌지 때때로 거울에 가래침이 묻어 있는 것을 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침을 배트며 저주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순간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거울을 보면서 쓱 한번 웃으면서 왼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쭉 뽑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있어. 잘될 거야.” 혹은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야.”

이 두 가지 생각과 행동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왕 노릇 하는 자세라 생각하는가?

어느 날 공자가 하급관리로 있는 조카 공멸에게 물었다. "자네는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공멸은 대답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일이 많아서 공부를 못했고, 보수가 적어서 친척 대접을 못했으며, 공무가 다급해서 친구와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 공자는 공멸과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제자 자천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자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배운 것을 실행해보니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고, 보수를 아껴 친척을 대접하니 더욱 친숙해졌고, 공무의 여가를 친구들과 교제하니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과 행동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왕 노릇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날 10개 나라의 대표들이 배를 타고 세 시간 거리에 있는 섬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다. 배는 항구를 벗어나 먼 바다에 이르자 물이 스며들고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배에 물이 스며든 이유는 선장이 정원을 무시하고 세 명을 더 태운 때문이었다. 그들이 탄 배의 수용 인원은 7명뿐이었다. 이대로 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모두가 물귀신이 될 판이었다. 그러나 세 명만 배에서 내린다면 나머지 일곱 명은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양보해 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여러분 저는 대영제국의 국민입니다. 제가 신사도를 발휘해서 배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다이빙을 해서 물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다음 타자로 누군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국민인 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물 속에 뛰어 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대한민국 만세를 세 번 외쳤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이 놈의 쪽바리새끼.”하면서 물 속에 밀어 넣었다.

이것이 작금에 우리 나라에서 일고 있는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의 형태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왕 노릇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비겁하지 않아야 한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비겁한 자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는다."고 했다. 예수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다.

요즘 또 갑자기 학원에서는 이지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매맞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98년 6월 1일에 강원도 태백에서 십대 5명과 이십대 1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살 짜리 초등학생의 몸에 문신을 새기고 담뱃불로 지지는가하면 땅을 파고 매장했다가 꺼내 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울산 화봉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의 이지매를 견디지 못해서 이재선(14) 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군을 죽게 한 학생은 이군의 목, 얼굴,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고 수돗가에서 물고문을 했고, 책과 체육복 등 모든 준비물을 이군에게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허리띠로 마구 때렸으며, 사탕을 사오라고 해놓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15분 안에 봉지 채 다 먹으라고 시켰으며, 22차례에 걸쳐 153만원을 뜯어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힘있다고 남을 해치는 일은 결코 왕 노릇이 아니다.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는 끔찍한 범죄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겁한 사람들이다. 남을 해치려드는 사람만큼 비겁한 사람은 없다.

유교에서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수치, 더러움, 욕심을 억제하고 남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정의의 마음, 사양할 줄 아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진리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왕 노릇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본능이나 욕망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왕 노릇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생활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왕 노릇할 줄 아는 사람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왕비병 엄마가 키우는 공주병, 왕자병 아이들'이다. 이런 병리현상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첫째, 귀족형이다. 서울에 있는 어떤 유치원은 자연실습 시간에 아이들에게 꽃씨를 나누어주고 화단에 꽃씨를 뿌리게 했다가 몇몇 부모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선생님, 우리 애가 피아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이 손에 찬물도 묻히지 않아요. 아무거나 만지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어떡해요. 선생님 다음부터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좀 빼주세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선생님 알기를 자기 집 가정부쯤으로 안다는 것이다.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선생님, 저 점심 안 먹을래요. 피자 시켜주세요." 그런데 이런 귀족형 아이들에게는 집밖에서 받는 대우가 집안에서 받는 대우와 다를 때 느끼는 상실감이 커서 자칫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네로 황제형이다. 과거 교사였던 주부가 동네 목욕탕에서 버릇없이 구는 여섯 살 남짓한 아이를 나무랐다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뺨을 얻어맞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40대 초반의 이 버릇없는 아이의 엄마는 전혀 이 일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목욕에만 열중하더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인은 40이 다 돼 얻은 아들이라 귀하게 키운다며 어떤 일에도 매를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네로황제형의 아이들은 물건을 닥치는 대로 부수고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는 폭군이라고 한다. 행여 엄마나 주위사람들이 체벌을 가하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지러진다고 한다.

셋째, 이멜다형이다. 필리핀의 이멜다는 사치로 악명 높은 여

성이다. 이멜다처럼 사치품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부모들은 여자 아이의 경우 귀를 서너 군데 뚫어 반짝이는 14금 귀걸이를 서너 개씩 걸어주거나, 사시사철 드레스 복장으로 동화 속의 공주처럼 키우며, 남자아이의 경우 머리는 무스로 빗어 올리고 검은 양복에 검은 선글라스까지 세트로 입혀 아이를 광고 모델처럼 키운다. 그런데 문제는 활발한 신체놀이를 통해서 표현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의 아이들이 입은 옷 때문에 마음대로 뛰어 놀지를 못해서 점차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가 모든 것을 선택해 주는 경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표현력이나 적응력이 뒤떨어지게 된다.

넷째, 찰스 황태자형이다. 특권층의 부모나 또 특권층을 동경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특수계층에 어울리는 여가활동을 시키거나 무조건 일류를 고집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도 취미활동보다는 골프나 승마, 외국 여행 등 값비싸고 호사스러운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과 자신의 환경 사이에서 오는 간격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최고만을 고집하다 보니 최고가 되지 못했을 때 겪는 열등감이 클 수밖에 없고, 현실보다는 이상에 젖어 살다보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다섯째, 마마보이형이다. 아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엄마가 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고 아이도 엄마의 그런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아이는 의존적인데다가 도전의식이나 창조성이 결여되어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도 늦고 뒤쳐진다는 것이 유아교육학자들의 지적이다.

왜곡된 자녀 교육의 예를 들어보았지만 왕 노릇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자녀를 바로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곡된 왕 노릇의 교육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야말로 왕비병에 걸린 엄마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왕자처럼 혹은 공주처럼 대우하신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외면한 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혹시라도 잘못된 귀족이나 황제, 혹은 왕비나 황태자처럼 또는 마마보이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2.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마 3:1-12)

성경은 예수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부르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한다.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다. 이 직책은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것으로서 이 직책을 가진 자는 왕과 대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책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사이에 서서 신의 뜻을 받아 인간에게 전달하며, 신의 뜻을 따라 인간을 다스리며, 신과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 성경은 예수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메시아 또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런 성서적 입장에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또는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살펴

보려고 한다.

먼저 예언자와 왕과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써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예언자는 왕의 독재와 횡포를 견제하는데 헌신한다. 사무엘하 11-12장을 보면,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아이까지 배게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꾀를 내어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 휴가를 주어 집으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말로 다윗에게 설명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 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삼하 11:11)." 그러자 다윗은 이 충성스런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세워나가게 한 다음 군사를 후퇴시켜 전사하게 하였다. 이 때 예언자 나단은 주저 없이 다윗을 찾아가 그의 야비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그러나 왕은 강한 권력을 가진 반면, 예언자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가운데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자의 횡포를 견제하기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서 강자를 대변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 예언자와 제사장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제사장이 평화에 종사할 때에 예언자는 정의에 종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어야 할 것은 평화나 정의 어느 한쪽이 아니다. 평화도 얻고, 정의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평화 하고자 하면 정의가 희생되고, 정의하고자

하면 평화가 희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평화에 비중을 두게 되고, 예언자는 정의에 비중을 두게 된다. 그런데 정의는 선과 악 사이에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지 선악사이에 중립지대란 없다. 예언자란 다름 아닌 선에 서서 악을 저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사랑으로 죄를 감싸안는다.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허물을 용서한다.

부모로서의 그리스도인 또는 교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때로는 예언자처럼 때로는 제사장처럼 정의롭고 평화롭게 교육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예언자로서의 부모상을 너무 깊게 심으면 비판적이 돼서 포용력이 떨어진다. 그 반대로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상을 너무 깊게 심으면 비판의식이 떨어지게 돼서 정의로운 시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측은지심과 사양지심과 아울러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을 가르쳤던 것이다.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은 제사장적 삶의 패턴이고,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은 예언자적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를 보자. 예수는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으며,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러나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담대하게 지적하셨고, 비판하셨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갈아준 지 오래된 어항의 물처럼 썩게 된다. 물이 썩게되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고기가 살 수 없다. 그 반대로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오염된 강물을 걸러 소독한 수돗물처럼 불신이 커진다. 수돗물은 소독된 물이지만 아무도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도 이와 꼭 같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불신이 커지고,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썩어 냄새를 뿜기게된다.

셋째,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온건파 가운데는 이념을 악이라 말하고, 그 반대로 이념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중립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온건파를 일컬어 회색분자 또는 비들기파라고 한다. 한편 비들기파는 흑백논리나 정의론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매파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꽤 오래한 사람들을 보면 정의에 약하고 평화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공동생활의 계급적인 역학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불편을 겪기보다는 불의라 할지라도 차라리 눈감아 줌으로써 평화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단체경기에는 반드시 이겨야한다는 신념이 강한 반면, 개인적으로는 이기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기고 불편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져주고 말자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공동생활에서는 튀어도 안되고 못나도 안 된다는 역학 때문에 획일적이고 유니폼적인 인격형성을 알게 모르게 강요받게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공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승부욕이 매우 약하다. 공부를 잘하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총애를 받게되면 반대급부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구나 농구시합은 이기지 않을 수 없는데 비해서 탁구나 개인이 하는 게임은 이기는 것이 왠지 불편하다.

공동생활에 있어서 온건과 중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할 게임을 포기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피해가려 한다면 문제가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 앞에서는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지 선악사이에 중립지대란 없다. 그래서 예언자는 평화를 지키려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의 삶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잘못을 지적 당하고 달갑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좋다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예언자의 삶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예언자였던 예수의 삶을 보자. 그분의 삶은 떠돌이의 삶이었고,

빈털터리의 삶이었고,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삶이었다. 예수는 예언자로서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유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항하였다.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귀중한 도구였던 율법과 전통에 도전하였고, 성전과 안식일 예배에 도전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가진 자들을 편드는 것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지키기 힘겨운 멍에였다. 그러나 예수는 예언자로서 힘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중심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없는 민중을 대변하는 주변부의 자리에 섰다. 그 대가가 바로 정처 없는 떠돌이의 삶이요, 빈털터리의 삶이요,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세례 요한을 보자. 세례 요한은 집도 절도 없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에서 외롭게 지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예언자였다. 중국의 여숙간이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은 타락한 선비도 다 할 수 있지만, 때의 되어 감을 아는 것은 뚫린 선비가 아니고서는 못한다. 또 때를 아는 것은 누구나 보기만 하면 할 수 있지만, 되어 가는 것을 아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는 못한다."고 하였다. 예수나 세례 요한이 위대한 예언자였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옳고 그름을 알고, 때의 되어 감을 알고, 되어 가는 것을 안 선견지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나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새로운 세계의 삶을 선포하였고, 새롭고 정의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독설을 퍼부었

던 것이며, 심지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불륜까지 지적하였다. 예수도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 일컬으며 말하기를,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눅 13:32)고 하였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예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세례 요한은 사해 동쪽 마캐루스성에 갇혔다가 목이 잘리는 극형을 받았다.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요, 배고픔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요, 비난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직장 상사의 부정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배고픔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해보면, 정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불의의 편을 들면서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살아남기 위한 자신들의 비겁한 몸부림을 감추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용기가 없이는 정의에 편에 설 수가 없다.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은 항상 페어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느리고 결집력이 약한 반면, 불의의 편에 선 자들은 항상 더티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빠르고 결집력도 강하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든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든지 하는 결론에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동안 정의의 편에 선 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정의에 편에 선 성도들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역사를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부름 받았다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의 편에 설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든 상황에서 견뎌 낼 수가 없다.

성서시대의 예언자들을 보면, 그들은, 첫째, 삶의 해석자들이었다(히 13:8). 그들의 삶은 고백적이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마찰되고 발생되고 파생되는 모든 사고 사건들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재수나 운수로 해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주변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으로 보고 또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았다.

둘째, 그들은 성경의 해석자들이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시내산 계약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해석함으로서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촉구하였다.

셋째, 그들은 시대의 해석자들이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절망 중에서 동터오는 여명을 보았으며, 미래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이사야는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환상을 보았으며(사 6:13;11:1,10), 에스겔은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을 보았다(겔 37:1-10).

예언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시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만이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 예언자가 될 수 있다.

3.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수 6:1-7)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써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일에 헌신한다. 그러나 예언자는 왕의

독재와 횡포를 견제하고 사회의 각종 부조리와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헌신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다. 왕이 정의와 평화 모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예언자는 왕의 정의로운 통치를 감시하게되고, 제사장은 왕의 평화로운 통치를 위해서 헌신한다. 예언자는 정의에 제사장은 평화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서서 고난의 시기에는 언약궤를 메는 일에, 투쟁의 시기에는 나팔을 부는 일에, 평화의 시기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제사 바치는 일에 헌신한다. 예언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귀중한 일이 어느 특정인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란 점이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할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후안까를로스 오르띠즈는『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이다』(김귀탁 옮김. 도서출판 만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다. . . . 더구나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자는 누구나 화해자이며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세상 사람들을 제사장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후안까를로스 오르띠즈의 이런 시각에 동의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다.

첫째, 제사장은 배달부이다.

98년 6월 15일 미국 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 6차전에서 시카고 불스가 유타 재즈를 87대 86 한 점차로 승리를 거두고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농구의 황제에서 일약 농구의 신으로 격상된 마이클 조던이 승리를 거둔 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좋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런데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에게 아쉬운 패배를 맛보아야했던 유타 재즈의 칼 말론은 'mailman' 즉 '우편배달부'란 별명을 갖고 있다. 팀 동료 존 스탁턴의 패스를 받아 어김없이 득점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말론이 배달부 역할을 잘하는 시합은 유타 재즈가 이기고, 배달부 역할을 잘 못하는 시합은 지게된데서 붙은 별명이라고 한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이다. 제사장의 일은 다름 아닌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배달하는 배달부의 일이다. 인간으로부터 사정과 형편을 전달받아 하나님께 배달하는 우편배달부의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다. 다른 많은 제사장들은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하였고,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하여 해결하시는 해결사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아뢸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뿐이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헌신적인 해결사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완벽하게 배달부의 일은 못한다할지라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고, 남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의 기도를 많이 올려야겠다.

둘째, 제사장은 화해자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죄지은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자이다.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사이 또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화해자(peacemaker)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시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셨으며, 인간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불러 화해시키며, 사람과 사람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명을 맡겨 주셨다.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할 때에 레위인들 가운데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꾀했던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서 반란자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 죽었고, 그들의 가족과 재산도 큰 지진이 일어나 삼켜버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민중이 폭동을 일으켜 모세와 아론을 해하려하자 염병이 순식간에 번져 무려 14,7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 제사장 아론은 신속히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민중사이에서 속죄예배를 올렸다. 그러자 재앙이 그치고 염병이 사라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 아론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사이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화해자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겠다. 이 일이 곧 전도하는 일이고 싸움을 말리는 일이다.

셋째, 제사장은 남을 축복하는 자이다.

민수기 6장 22-2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하도록 하였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하셨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 성도들도 항상 남을 축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남편은 부인을 축복하고, 부인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축복하고, 서로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넷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앞장서는 자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떠돌이 천막생활을 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먼지와 불볕 더위 속에서 끝없이 옮겨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호도 의심 없이 굳게 믿었다.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이다.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또 전쟁할 때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하였다.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상징인 돌비가 들어있었다. 이 돌비가 바로 십계명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을 강 건너편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

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섰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주로 겨울에 비가 내린다. 또 봄에는 헤르몬 산에 쌓였던 많은 눈이 녹아 내린다. 그래서 요단강은 봄철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른다. 이 때가 되면, 강폭도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진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바로 이 때였다.

제사장들은 물이 불어나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 받들고 앞장을 섰던 것이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마치 소양강이 댐에 막힌 것처럼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를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아갈 때에 이런 놀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요단강은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좁고 낙차가 큰 강이다. 하나님이 요단강의 흐름을 막으셨을 때에 잠깐 동안 높은 댐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강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걸린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약속의 상징물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제사장들의 믿음의 행동은 분명히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요단강 물에 제일 먼저 들어선 자들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히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멘 채 요단강 가운데서 굳게 서 있다가 맨 나중에 나온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민중 앞에서 행진한 것처럼 아무리 힘겨운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 난간을 헤쳐 가야겠다.

다섯째,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자이다.

제사장은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우는 성도들을 독려하고 적진을 놀라 무너지게 하는 힘찬 나팔수이다. 제사장은 영적 시합에 나가 싸우는 성도들을 응원하는 치어리더(cheerleader)이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나온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을 함락시킨 것은 칼과 활과 창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힘차고 긴 나팔소리였다.

여호수아는 행렬 맨 앞줄에 무장한 군인들을 세웠고, 그 뒤를 제사장 일곱 명으로 하여금 양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따르게 하였고, 그 뒤를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게 하였다. 나머지 민중들은 군인들의 뒤를 말없이 침묵하며 따랐다. 들리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소리와 행진하는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수와 언약궤를 앞세우고 육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성 주위를 돈후에 마지막 칠일 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았다. 마지막 한바퀴를 남겨 놓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던 제사장들이 길고 힘차게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다. 나팔을 힘차게 불고 함성밖에 지르지 않았는데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나팔재앙을 만나 큰 고통을 겪는 장면이 나오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치고 힘들어 낙심한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 용기를 북돋우어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4.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고전 9:24-27)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예언자, 가장 훌륭한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예언자였을 뿐이지 실제로 왕이나 대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짧은 36년의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또 참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훌륭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다. 그분은 실제로 왕이었거나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또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으로서 또 가장 훌륭한 예언자로서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해왔다. 그분은 실제로 왕이었거나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위대한 예언자요, 가장 훌륭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실제로는 왕이거나 예언자이거나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예수처럼 왕 노릇할 줄 알아야 하고, 예언자 노릇 할 줄 알아야 하고, 제사장노릇 할 줄 알아야 한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에 홀로 설줄 알고, 정의의 편에 설줄 알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줄 아는 사람이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본능과 욕심과 죄를 다스리고 불의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편에 서서 가진 자의 독재와 횡포를 견제하고 각종 부조리와 죄악상을 고발하는 사람이다.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서 썩고 캄캄한 곳에 소금을 뿌리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사람이다.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장서는 사람이다. 투쟁의 시기에는 정의의 용사들을 응원하는 사람이다. 평화의 시기에는 죄인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사람이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씨조선 마지막 100년, 다시 말하면, 19세기를 산 천주교인들 가운데 10,000여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있다. 이들 순교자들이 우리 민족의 제사장들이었다.

20세기의 처음 절반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여 싸웠다. 이 일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교인들이었다. 이들 역시 일제로부터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고, 더러는 순교하고 있다. 이들 애국지사들이 우리 민족의 예언자들이었다.

한국천주교는 일제시대에 안중근과 같은 소수의 독립지사들을 제외하고는 예언자노릇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그들이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때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민주화 투쟁에 힘써왔다. 명동성당이 민주화 투쟁의 성지처럼 굳어진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유신독재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기는 개신교의 진보세력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시 보수세력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예언자교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박해시대도 아니고, 왜정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재시대도 아니다.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일도 없고, 자주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울 일도 없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칠 일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시민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노릇이나 제사장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도 할 일이 많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물질로 후원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운동, 부패추방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등에 힘을 쏟는 '참여연대'라든지, 부동산투기근절운동, 부동산실명제실시운동, 금융실명제실시강화운동, 우리농업살리기운동,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운동을 펼치는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이다. 또 심각한 환경파괴로부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생명체복제반대운동, 핵폐기물수출반대운동 등을 펼치는 '녹색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다. 또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일이 예언자노릇 하는 것이다.

또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돌보는 복지시설들, 기타 여러 사회복지법인들, 각종 선교단체들, 기타 자원봉사단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다. 또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일이 제사장노릇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종교 제반 분야에서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라의 경제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민족의 개화와 민주화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마저 오늘날에 와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두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예언자노릇 잘하고, 제사장노릇 잘하고, 왕 노릇 잘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포기한 채 평화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포기한 채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적당한 상벌 없이 용서와 관용으로 일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나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것도 일종의 불신행위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39-42를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 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까지 대주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동행을 강요하는 사람의 청을 두 배로 들어주면, 그 사람이 과연 이 쪽의 착한 마음에 감동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인지, 또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남의 빚 보증을 서줘도 요즘 같은 IMF시대에 별탈이 없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동부지역 여러 곳에서는 재침례파에 뿌리를 둔 아미쉬(Amish), 후터라이츠(Hutterites) 또는 메노나이츠(Mennonites)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세계를 거부하고 원시농경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평화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평화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범죄대상이 되고 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조롱한다.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은 고통받기 일수이고 때로는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평화주의자들의 이상적인

삶은 아름답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매맞아줘서 때리는 사람의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맞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맞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맞아주면 줄수록, 때리는 사람의 성격이 광폭해지고 사디즘(sadism)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매맞는 사람도 자주 맞다보면 마조히즘(masochism)에 빠질 수 있다. 매맞지 않으면 되래 불안하고, 매맞고 나야 안도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매맞는 부인들의 고백이나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자들은 대개 약자에게 강한 면모를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은 올바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권위 있고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세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행하였지만, 예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일들만 행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억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39-42절의 말씀들은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복음정신 또는 기독교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복음정신이 용서하고 돕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범법행위를 눈감아주고 강도를 놓아주고 빚 보증을 함부로 서주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

올바른 기독교정신은 십자가에 농축되어 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이자 곧 정의의 표시이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자, 인간의 죄 값에 대한 저주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주보다는 사랑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랑은 정의와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고사성어 가운데 '송양지인'(宋襄之仁)이란 말이 있다. 송 나라가 초 나라를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의 일이다.

날이 밝자 초 나라 군사가 배를 띄워 강을 계속 건너기 시작했다. 송 나라의 공손고가 송양공(宋襄公)에게 이르기를, "초군이 날 밝기를 기다려 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를 심하게 깔보기 때문이옵니다. 그들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를 기다려 공격하면 초 나라 군사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고 했다. 공손고의 말이 끝나자마자 송양공은 출전할 때 갖고 나온 큰 기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 눈에는 저 인(仁)과 의(義), 두 글자가 보이지 않소? 과인은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이오. 어찌 비겁하게 적이 강을 다 건너기 전에 공격하겠소!." 공손고는 어처구니가 없어 탄식만 했다. 그사이에 초 나라 군사가 순식간에 강을 건넜다. 초군 대장 성득신이 긴 채찍을 손에 들고 군사를 지휘하여 동서로 진을 펴는데 초군의 기상이 하늘을 찌를듯했다. 공손고가 다시 양공에게 간청했다. "적은 아직 진을 치지 못했나이다. 이때 북을 울려 적을 무찌르면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릴 것이옵니다." 이에 양공은 공손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그대는 적을 공격하는 일시적인 이익만 알고 만세의 인의(仁義)는 모르는가! 어찌 진도 치지 못한 적을 공격하겠는가!" 이 싸움에서 송군이 참패를 했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바로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다'는 뜻으로 쓰이는 고사성어 '송양지인'(宋襄之仁)의 유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월드컵 시합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 예언자노릇, 제사장노릇 잘해야할 이유가 마치 월드컵국가대표팀이 시합에 나가서 잘 싸워야할 이유와 같다.

축구시합은 이기기 위해서 한다. 절대로 지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시합에 이기려면, 강한 투지와 개인기 및 팀웍이 있어야 한다. 투지는 승부근성이자 정신력이요, 개인기는 기술이자 실력이며, 팀웍은 전술이자 전략이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시합을 이길 수 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4-27절에서 스포츠 경기에 출전한 사람들은 모두가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경쟁한다고 말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다. 이 말은 목표 없이 뛰지 아니하고, 헛스윙을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월드컵 대표팀은 1무2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다. 1-2차 전에서 멕시코와 네덜란드에 참패당한 이유는 투지, 개인기, 전술전략 모두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전인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개인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유의 투지와 승부근성을 십분 발휘하여 좋은 경기를 펼쳤다. 그리고 우리 나라 월드컵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20억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한국인들은 실리보다는 명분, 현실보다는 이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착실한 투자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월드컵농사를 망친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는 것 같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 선수들의 개인기가 부족한 이유를 기술교육이나 기반시설투자 없이 체력과 투지만을 이용한 손쉬운 승리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일본은 전용구장을 건설하고, 유망한 어린 선수들을 외국에 축구유학 보내고, 값비싼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해서 J리그를 국제 수준으로 높여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코치나 감독에게 촌지를 건네지 않고서는 경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벤치만 지키다 선수생활을 끝내야 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소년 스포츠의 산실인 학원 스포츠의 현실이자 관행이란 점이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부근성도 가져야하고, 실력도 쌓아야하고, 전술전략도 갖춰야한다. 내일 당장 예수가 재림하신다해도 경쟁에서 이기려는 투지와 실력향상을 위한 피나는 노력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냥 져주고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정직한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지, 승리를 양보한다는 점이 아니다. 이 땅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제9장 기독교인의 관리자적 삶

1.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2.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3. 변해야 생존한다
4.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5. 믿음대로 된다
6. 심는 대로 거둔다
7. 벗삼아 읽은 책은 평생의 스승 된다
8. 땀흘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제9장

기독교인의 관리자적 삶

1.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딤전 4:7-8)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공허한 자기 확인뿐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산에 오른다고 한다. 그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투지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기본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을 진정으로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산에 대한 진지함과 경건함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단독 무산소 등정에 성공했던 라인홀트 메스너는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에서 친동생을 잃는 등 수많은 동료가 산에서 추락사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메스너는 죽은 이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고 말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에 가졌던 진지함과 경건함이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에 잃기 쉽고, 결국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8천 미터 이상 되는 열 네 개의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한국 등반대원들 가운데 77년 9월 15일 한국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산을 등정한 고상돈 대원이 79년 알래스카의 매킨리(6,194m) 봉에 등정한 후 하산 길에 추락사했고, 95년에 빛고을 브로드피크 원정대가 브로드(8,047m) 봉에 등정한 후 하산 길에 박현재 대원이 추락사했고, 동국대 산악부원 및 산악부원 출신 8명으로 구성된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길에 안진섭 대원이 추락사했다.

인간은 누구나 험한 산을 오르는 등산가와 같다. 체력을 단련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목표를 정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 가운데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좌절감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만심이나 허탈감 같은 것들이 찾아온다. 이 때 찾아오는 좌절감과 자만심을 극복한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영영 실패자가 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마릴린 먼로와 엘비스 프레슬리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휘트니 휴스턴과 디에고 마라도나는 마약중독자였다. 86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케이블 TV 설교가 두 사람, 짐 베이커와 지미 슈와거트가 여자 문제로 무너졌다.

마릴린 먼로는 죽기 한 달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몇 미터 경주인지도 모르고 달려 왔습니다. 힘겹게 달려와 종착점에 도착해보면 그곳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착점이 물거품이란 것을 아는데는 무려 36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한 때 고무풍선처럼 불어나는 인기를 누렸다가 여기 저기에서 새어나가는 바람구멍을 막지 못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병리현상을 '물거품 인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요즈음 신세대

가수들 가운데 자살이 속출하는 이유도 역시 '물거품 인기 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명기나 명창이 인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문은 없다. 옛적에 평양에서는 어느 한 기생이 그림과 글과 시에 뛰어난 삼절로 인기가 오르면 일부러 베옷을 갈아 입혀 부엌일을 시켜 손님과 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기에서 파생되는 자만심을 꺾기 위함이었다. 옛적에 명창들은 수년간 폭포 곁에서 혹은 동굴 속에서 목에서 피를 쏟으며 혹독한 수련을 했고, 스승으로부터 종아리를 맞아 핏발이 가실 날이 없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후에 명성을 얻었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품을 다져 가며 인기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진지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삶에서 진지함과 경건함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참으로 변치 않는 진리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무실에 "경건함을 잃는 순간 추락한다."는 말을 써놓고 읽곤 한다. 한 시라도 경건함을 잃게 되면 불경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경망스러워져서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며,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어 남에게 상처를 주게된다는 것을 수없이 깨달았다. 나를 해치는 적은 남에게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경건함을 잃게 되면 불경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경망스러워져서 함부로 지껄이게 되고,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게되어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멀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과 자신 앞과 자연 앞에서 진지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경건이란 것이 무엇인가? 경건이란 것은 한글 사전에 "삼가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겸손히 공경하고, 사람을 겸손히 공경하고, 자신과 자연 앞에서 올바른 자세와 행동을 취하는 태도를 일컬어 경건이라 할 수 있다.

약관의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에 쓰러지고 만 것도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지함과 경건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소아시아, 팔레스틴,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정복하면서부터 자신을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알렉산더는 인도의 뉘사에서 그리스로 귀환할 때에 여덟 필의 말이 끄는 거대한 마차 위의 누대에서 장군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파티를 열었다. 인도를 떠나 페르시아에 도착했을 때에 알렉산더는 장군들을 모아 한 탈란트짜리 금관을 현상금으로 내걸고 술시합을 벌이게 했다. 이 시합에서 포도주 일곱 되(12쿠오트)를 마시고 승리한 한 장군은 금관을 쓰고 사흘을 좋아하다가 죽었고, 이 때의 술시합의 후유증으로 무려 41명의 장군들이 죽었다고 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본토로 개선했을 당시 고린도 회의에서는 그가 그리스 여러 도시국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화신으로 숭배할 것을 제안했고, 그리스에는 마침내 미치광이 술잔치 소용돌이가 일게 되었고, 디오니소스의 광신자들이 술에 미쳐 제 아비, 제 어미를 찢어 죽이는 사태가 무수히 발생했다고 전한다.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도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는 해인 33살에 고열로 신음하다가 갈증을 이기려고 마신 술에 취해 광란하다가 죽었다.

『알렉산더 대왕』이란 책을 쓴 존 M. 오브라이언은 책의 부제로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알렉산더 대왕을 쓰러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알렉산더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던 것이다. 외부의 칼날에 목숨을 잃지 않는 영웅은 반드

시 '자기 안의 적'의 손에 쓰러지게되어 있다. 알렉산더도 그랬다. 오브라이언은 알렉산더를 쓰러뜨린 내부의 적은 다름 아닌 미친 술파티와 힌두교적 허무주의였다고 한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은 '자기 안의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하없는 알렉산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투지를 갖춘 등산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결국 인간이 자기를 이기는 길은 경건의 훈련을 쌓는 길이다. 그래서 '군자는 하루 세 번 자기를 반성한다'고 했고, 시편 33편 16절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노래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들 앞에서 진지하며 경건한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자신에게 진지하며 성실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며, 귀한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우리는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연을 훼손하고 더럽히면 반드시 자연은 인간들에게 보복을 해온다. 자연을 업신여기면 자연 또한 인간을 업신여긴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다.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한다.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버리고 인간과 동일하게 되신 것

을 말한다. 예수의 마음이란 예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분 상승을 꾀하지 않고, 오히려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을 말한다.

예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병든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으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는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택하셨다. 또 예수는 협동정신과 참여정신으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맛보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겸손과 순종과 협동 정신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셨으며,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신다.

33세의 짧은 생을 마친 알렉산더와 예수를 비교해 볼 때, 알렉산더는 천하 무적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일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였으나 마음의 적인 교만과 방탕과 허무를 다스리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추락하였고, 예수는 시골 지방의 뜨내기 교사에 지나지 않았고, 민중선동과 신성모독이란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일시적으로 패하는 듯 하였으나 겸손과 순종과 협동 정신으로 마음의 적을 다스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다.

얼마 전 CNN 방송 회장의 아들 조나단 레빈이 뉴욕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조나단 레빈은 재벌의 총수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며, 부와 명예를 포기한 채, 마약과 범죄로 이름난 뉴욕 브롱스의 한 고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재벌의 아들답지 않게 방하나짜리 싸구려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재산은 봉급을 저축한 약간의 예금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적은 월급을 쪼개어 가난한 학생을 도왔고, 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야구표를 사주면서 범죄와 싸우며 학생들을 선도했다. 조나단 레빈이야말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경건을 잃지 않고 마음의 적을 다스렸던 진정한 승자라 할 것이다.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2.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마 12:43-45)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 버릴 수 있을까?

아름다운 꽃이 많은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꽃밭에 불을 지르고 물을 부어 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비결은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밭엔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망쳐버립니다.

또 어떻게 하면 친구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마구 헐뜯고 비방을 하면 그 친구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 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대로 그냥 편하게 두면 내 인생은 저절로 망쳐버리게 됩니다.

또한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두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 내 영혼은 무참히 망가져서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내버려두면 망쳐버린다'는 것이다. 꽃밭도 우정도 건강도 영혼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진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버려두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제2 열역학 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한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버려두면 무질서가 극대화되고 에너지가 흩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물이 낡아지고, 철제가 부식되고, 사람이 늙고 병들듯이 자연 상태에서는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엔트로피를 억제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철제에 부식방지용 페인트를 칠하고, 기계에 기름을 바르고, 닦고, 조이고, 광택을 낸다. 군인들이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총기 소제이다. 녹을 제거하고 기름을 발라 광택 나게 하지 않으면 총기검열 시간에 호된 기합을 받는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일정기간 타지 않고 방치해두면 사용할 수 없는 고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사람을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계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자연 상태 하에서는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그래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 소개한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꽃밭도 우정도 건강도 영혼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그래서 돌본다는 것,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필자는 집에서 몇 가지 난 종류를 비롯해서 화초를 키우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성이나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화초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가는 값비싼 화초라도 죽이기 십상이다. 하물며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우정도 건강도 영혼도 학업성적도 망가지지 않고 배기겠는가?

앞글에서 진지함과 경건함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다.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자기 관리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때이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남녀간의 사랑이나 친구간의 우정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육체건강이든 정신건강이든 건강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모의고사에도 성적관리가 필요하고, 영혼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 내버려두면 망가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타락한 자연의 법칙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다. 시간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스타는 인기관리, 운동가는 체력관리, 학생은 성적관리, 사업가는 고객관리, 경영인은 인사관리, 환경청은 환경관리를 하듯이 우리 자신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잘 관리한다. 잠언서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믿음과 기도와 사랑으로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얼마 전에 농구 선수 허재, 탤런트 신은경과 김세준, 가수 김흥국 등 인기인들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빼소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인기인들이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경우들이다. 앞글에서도 설명했듯이 20대의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와 휘트니 휴스턴, 축구 신동 디에고 마라도나, 케이블 TV 설교가 짐 베이커와 지미 슈와거트와 같은 사람들이 한 때 세계를 손에 쥐었던 사람들이지만 자기 관리 소홀로 실패했거나 실패할 뻔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

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70년대에는 '아시아의 표범'으로, 80년대에는 '갈색 폭격기'로, 90년대에는 '호랑이 조련사'로 불리는 차범근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은 매일 새벽 수 킬로미터를 뛰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밤늦게까지 각종 축구정보를 분석하는 노력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월드컵 본선 4회 연속 진출이란 목표달성을 위해서 선수들에게, 첫째, 술과 담배를 금할 것, 둘째, 실력 위주로 선수를 기용할 것, 셋째, 사생활을 건전하게 할 것, 넷째, 축구에만 전념할 것 등 대표팀 운영원칙 네 가지를 정해 놓고 차범근 감독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영일, 하석주, 김도훈, 박건하, 서동명, 유상철, 이민성, 이기형 등 20여명 모두가 "우리를 축구교 신자로 불러달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적인 흥미와 담을 쌓은 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는 박찬호와 선동열 선수는 자기관리에 아주 철저하다. 박찬호는 다저스 구단에서 연습 벌레로 이름이 나 있다. 다저스 코치들은 "지금까지 훈련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선수는 박찬호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술과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을 뿐 아니라, 야구가 안 풀리고 힘들수록 더욱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하는 '이열치열 스타일'로 슬럼프를 벗어난다. 끊임없이 달리고 거의 매일 헬스클럽에서 체력을 단련한다. 그 흔한 파티나 행사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주당으로 소문났던 선동열도 일본서는 부단히 술을 멀리하고 있다. 술을 마실 시간도 없지만 마셔도 다음날 컨디션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관리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과히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워두면 악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비워두면 잡생각이 지배하게되고, 마음을 비워두면 사탄이 지배하게 되고,

시간을 비워두면 게으름이 지배하게 된다.

뉴욕 맨해턴구에 있는 최대 흑인지역 할렘가는 18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궜는데, 지하철 계획으로 땅값이 폭등했다가 폭락하게 되자, 흑인들이 싼값에 사서 들어오게 되었다. 또 백인들은 흑인들을 피해서 헐값에 그 좋은 집들을 팔아버리거나 아예 내버리고 떠났다. 이후 이 지역은 흑인들과 걸인들의 천국이 되었고, 건물은 부서지고, 거리는 낙서와 쓰레기와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었다. 미국의 대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 다운타운 상가와 사무실 거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 중심에 함렘지역을 갖고 있다. 낮에 활기를 띄던 다운타운 상가와 사무실 거리들도 오후 6시 이후 사람들이 퇴근한 다음에는 함렘지역으로 돌변한다. 폭력과 술과 마약과 도둑질이 판을 치고 아무 곳에서나 누워 자는 유랑인들의 세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집을 비워두거나 도시 거리를 비워두게 되면 모든 원치 않는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 비워둔다고 비워 있질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서 예수는 '마음을 비워두면 악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 경고하고 계신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지만 얻지를 못하였다. 그러자 귀신은 옛집이 생각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하고 와서 보니, 집은 비어 있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그래서 귀신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았다. 그 결과 귀신 들린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선하고 착한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고, 성령으로 마음의 성전을 채우고, 좋은 계획과 노력으로 시간을 채워야한다.

둘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였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한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씩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가치만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이 무일푼일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 천만원 또는 수 억 원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짧은 시간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요즘 시중에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창조하는 재테크와 짧은 시간에 높은 효율을 창조하는 시테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버리고 저축되지 않는다. 남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시간은 이렇게 매정하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는 것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줄이고 노동집약율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관리 방법만으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부에서도 시간관리와 시간활용이 절대적이다. 같은 분량의 시간을 공부하고서도 남보다 성적이 뒤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두뇌가 나빠서만 은 아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우선 순위 등 시간의 활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복잡하고 바빠진 현대생활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교회 갈 시간조차 빼앗기고 만다. 교회 갈 시간을 빼앗기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고,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

먼 옛날 귀신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인간들이 행복

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사탄은 몹시 화를 내면서 귀신들에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먼저 거짓말 귀신이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말했다. "어리석은 놈,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억지 부린다고 해서 누가 믿겠어?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어?" 그러자 전쟁 귀신이 말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사탄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야. 오히려 어려운 환경일수록 신앙심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욥에게 당한 일을 벌써 잊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게으름 귀신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의 일이 잘 되도록 돕겠습니다. 부자도 되게 하고, 지식도 많이 쌓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걱정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미루는 마음을 넣어서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만들겠습니다. 선한 일도, 신앙생활도, 공부도 내일로 미루고 또 미루다가 끝내는 죽을 때까지 미루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은 무릎을 치면서 좋아했다. "야, 그거야말로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야. 듣거라 귀신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게으름 귀신을 도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척하다가 그들의 마음에 게으름을 집어넣어 더 큰 불행에 빠뜨리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인 게으름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변해야 생존한다

(눅 13:1-5)

최근 몇 년에 자주 쓰이는 말이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라는 용어이다. 다중화, 다원화, 다양화되는 현대사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훤하게 알 수 있는 정보통신과학기술시대, 국경을 초월한 개방과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 틀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쓰이는 용어이다. 위험을 느끼면 자신의 몸 색깔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처럼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변신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회 회장은 동아일보에 쓴 '기업 장수론'이라는 에세이에서 기업의 수명을 30년으로 보는 것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30년 전의 1백대 기업 중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6개에 불과하며, 10대 기업 중에서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기업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노쇠하여 망하고 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시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 높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며, 또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고,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정보통신교환이 활발한 조직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변해야 생존한다'는 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변해야 할까? 무엇이 변해야 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특

성부터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글에서 '내버려두면 망가진다.'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다.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제 2 열역학 법칙이요,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법칙에 거슬려 망가지는 것을 막고, 망가진 것을 고쳐나가는 것, 즉 재창조해 가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타락이후에 생겨난 법칙이다. 그래서 믿음은 타락이후의 것을 타락이전의 것으로 되돌리는 능력이다.

있음이 없음이 되는 것, 생명이 죽음이 되는 것, 빛이 어둠이 되는 것,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것, 바로 선 것이 넘어지는 것,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 타락한 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부지런함이 게으름이 되는 것,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 평화가 분쟁이 되는 것, 일치가 분열이 되는 것,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 선이 악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으름을 부지런함이 되게 하

는 것, 불의를 정의로움이 되게 하는 것,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것,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것,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 악을 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다.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것, 믿음이 의심이 되는 것, 희망이 절망이 되는 것, 기쁨이 슬픔이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미움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것, 의심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는 것,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모순을 조화롭게 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다.

긍정이 부정이 되는 것, 능동이 수동이 되는 것, 열림이 닫힘이 되는 것, 건설이 파괴가 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 사는 모순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부정이 긍정이 되게 하는 것, 수동이 능동이 되게 하는 것, 닫힘이 열림이 되게 하는 것, 파괴가 건설이 되게 하는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우리 신앙인들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얼마 전 TV에서 불법으로 성행하는 투견(鬪犬) 현장을 보도한 적이 있지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동아일보에 쓴 '럭비 정신'이란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견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투견을 챔피언으로 만들려면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년 된 어린놈을 골라 싸움부터 시키는데 그 대상이 은퇴한 챔피언이다. 은퇴한 챔피언은 나이가 들어 힘은 약하지만 워낙 노련해서 처음에는 적당히 싸우다가 젖비린내 나는 어린 투견이 지칠 때쯤 해서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조련사는 은퇴한 챔피언이 이길 때쯤 해서 이들을 떼어놓는다. 이렇게 한번도 패하지 않으면서 퇴역 챔피언의 기술을 전수 받고 대회에 나간 어린 투견은 대부분 챔피언이 된다. 그러다가 한번이라도 지는 날이면 그 날로 은퇴시켜야 한다. 싸움에 한번 진 투견은 다시 챔피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진 투견의 패배의식은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의식의 전환 즉 하나님을 두텁게 신뢰하는 믿음의 변화 없이는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없다. 패배의식은 가능성을 잠재우게 하고, 공포를 불러오게 하고, 의지와 행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건희 회장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럭비 정신이라고 말한다.

럭비 시합은 일단 시작되면 눈비가 오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걷기조차 힘든 진흙탕 속에서도 시합은 지속된다.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격렬한 태클과 공격을 반복하면서 밀고 밀린다. 이렇게 럭비는 악천후를 이겨내는 불굴의 투지,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 태클을 뚫고 나가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운다. 이것이 럭비에 담긴 정신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적이다. 세계를 정복했고, 젊고 혈기 왕성한 알렉산더 대왕을 쓰러뜨린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적이었다. 우리에게 흔히 있기 쉬운 마음의 적은 패배의식이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다. 몸을 던져서 난관을 돌파하는 럭비의 정신으로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일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정신력에서 나오며, 그보다 더 큰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적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보약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실패는 병가지상사라 했듯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흔한 일이다. 위대한 과학적 발명과 발견도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그 열매가 맺힌다.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만 2천 번의 실패를 거쳐야 하고, 석유탐사에서도 최소한 25번은 실패해야 비로소 하나의 유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단 한번에 합격한 사람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여러 번 실패한 후에 어렵게 합격한 사람보다 세배 정도 높다고 한다. 이렇게 실패는 성공을 위한 보약일 뿐이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대개가 경건함과 진지함을 잃는 순간에 발생된다. 앞글에서 '경건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사전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이 실패의 3요소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지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를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사례에서 배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개인이나 사회에게는 결코 진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

과 사람 앞과 자연 앞에서 진지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믿음의 변화이든지, 의식의 변화이든 지간에 그 열매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변화는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예수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두 차례나 경고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은 곧 '내버려두면 망한다.'는 말씀이나 '변해야 생존한다.'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

변화는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곧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는 또 이전의 하던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치고 새롭고 변화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눈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된다. 의식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승리한다. 변해야 성공한다.

4.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창 3:8-19)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이 말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하비 콕스가 쓴 책제목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3절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뱀이 하

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

앞에서 '변해야 생존한다'는 주제로 자연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다. 자연의 법칙은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내버려둔다'에 '뱀이 하는 대로'라는 단어를 덧붙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망가진다.'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습관이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가운데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도 있다. 습관이란 우리 인간들에게 때때로 폭력 이상의 것을 행사할 뿐 아니라, '세 살 적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잘못 길들여진 습관은 여간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 믿음의 법칙을 따른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첫째,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사고의 습관으로 키워가야 한다. 무를 유로 바꾸는 습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습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습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습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습관,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습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 타락한 것을 거듭나게 하는 습관, 병든 것을 고치는 습관,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꾸는 습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습관,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습관,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습관,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습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습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습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습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습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습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습관,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습관, 닫힘을 열림으로 바꾸는 습관, 파괴를 건설로 바꾸는 습관을 키워가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에는 인간이 믿는 내용과 생각까지도 포함된다. 믿음에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생각 때문에 많은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곧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새롭게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성령은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사고의 습관을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기독교 신앙과 성령의 변화의 능력은 인간을 죄와 사망 또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구원하는 큰 능력이다.

그러나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성령과 정 반대이다. 사탄은 인간의 생각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파괴적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믿음은 바로 이 사탄의 생각을 꺾는 성령의 능력이다.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좇아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둘째, 파괴적인 행동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란 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습관,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 꾸준히 성경 보는 습관,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발전적으로 이끌고 가는 습관과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행복에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들이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들 즉 게으름, 과식, 도박, 지나친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데스 메탈 음악과 같은 악마주의에 빠지는 습관은 불행에로 인도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들이다. 이러한 습관은 사탄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는데서 비롯된다. 뱀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면 망가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하자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생존한다. 파괴적인 악습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서 술, 담배, 거피와 같은 기호식품에 관한 성경적 입장과 버려야할 악습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창 1:4)고 적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딤전 4:4)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들에는 나쁜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술과 담배 또는 마약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이나 담배 또는 약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란 점이다. 술이나 담배 또는 약물은 무생물이다. 스스로 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다.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 악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세상도 잘못 된 것이요, 모든 것이 나쁘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과 행동 즉 창조적인 믿음과 성숙한 행동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 자세, 모든 것에 제재 받지 아니하면서도 덕을 앞세우는 자세, 이

런 자세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귀중한 태도이다.

술, 담배, 거피 또는 약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이다. 죄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다. 죄는 언제나 이성의 동물인 인간의 개입에서부터 발생된다.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 재앙은 인간에 의해서 빚어진 재앙이지, 술이나 마약에 의해서 빚어진 재앙이 아니다. 술이나 마약은 피동적이지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재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인간이지, 생명력이 없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건설적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안돼'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과 '가능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습관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안돼'를 되풀이하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부터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지키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 또는 마약류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몰라서 폭탄주를 마시고, 지나치게 흡연하고, 마약에 손을 데는 것이 아니다. 음주 흡연의 재난을 잘 알면서도 행한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모든 불행은 결국 인간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미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좇지 않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사탄의 유혹을 좇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적인 행동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사탄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과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여기서 '과식'을 음식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에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지배하는 자세이다. 약이 아무리 좋다해도 오남용은 안 된다. 고기가 아무리 맛좋다해도 과식은 안 된다. 돈이 아무리 많다해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대 로마가 몰락하게 된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치와 쾌락이었다. 노예 소녀들로부터 온종일 사우나탕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면서 사치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고 토해내는 것 속에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남용과 착취만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멸망이다.

둘째로 과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무식한 술시합으로 41명의 장군들을 잃었고, 자신도 술 때문에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우리 국민은 폭음을 즐기는 음주습관 때문에 발병율이 21.7%나 되고, 한해 동안 술을 마셔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음주 비용은 연간 25만5천6백 원인데 비해서 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그 배가 넘는 연간 60만원이 넘는다. 이를 합하면 술을 마시든지 안마시든지 술로 인한 손실액은 국민 1인당 86만3천800원에 이른다.

러시아의 대통령 엘친이 독주를 좋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재자 스탈린이 국사나 정치 문제들을 밤에 술자리에서 결정하곤 했다든지,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술에 취에 쿠데타를 실패할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술을 좋아한다. 러시아 정교가 음주에 관용적인데다가 오랜 공산주의로 인간의 욕망이 마비된 시민들이 무미건조한 삶을 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민 한 사람의 일년 술소비량은 보드카 60병에 이르고 있고, 약 4천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가 망국으로 치닫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비밀이 바로 술에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음주습관은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고 살인적이다. 지나친 음주습

관은 개인의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망국으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지나친 흡연 습관을 버려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10초당 1명 꼴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한 암연구소 소장은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수명이 5분 30초 단축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식품의약국(FDA)이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흡연자가 치매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두 배나 높고, 남성 흡연자는 치명적인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여성 흡연자는 정박아 또는 폭력, 방화, 파괴, 성폭행 등을 일삼는 비행청소년을 출산할 확률이 높고, 유방암과 골다공증에 걸리게 하며, 폐경기와 피부노화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또 흡연자는 심장마비, 당뇨병, 후두암과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영국에서는 담뱃갑에다 "매년 영국에서 3만9천 명 이상이 폐암으로 죽는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5천3백여 명보다 훨씬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넷째로 약물남용의 악습을 버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만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약 3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상습적으로 본드와 가스 등을 흡입하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까지 더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단순히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 또는 마음의 평화나 힘을 추구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들 가운데 40% 이상이 술이나 담배, 환각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본드, 가스 등을 복용한 경험이 있고, 특히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 22%는 상급생의 협박에 못 이겨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약물 남용 청소년들은 혀가 꼬이고,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고통

을 호소하게 되며, 마약을 하는 성인들의 경우 금단현상, 피해망상증, 의처증, 영양실조, 간기능장애, 심장기능장애, 결핵, 성병 등으로 패가망신하는 등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크게 고통을 받게 된다. 쾌락의 뒤끝에는 반드시 무서운 저주와 고통이 수반된다.

다섯째로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일부가 헤비 메탈이나 데스 메탈 음악의 악마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악마주의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는 없다. 악마교는 악령 숭배, 살인, 섹스를 자유롭게 탐닉하기를 주장하며 모든 신성한 가치를 부수고 새로운 가치 즉 악의 가치를 세우자고 주장하면서 '내게 금지된 것을 나는 소망한다'고 노래한다. 이들의 특징은 악을 권장하고 선을 징계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악마주의 밴드인 디어사이드의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소절이 있다. "기독교인을 죽여라. 너희 기독교인은 우리가 경멸하는 유일한 족속이다. 나는 너희들의 죽음을 보고 싶다. 너희들은 곧 죽을 것이다. 위선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신앙을 설사하고 도덕적으로 병들어 몸이 뭉개지고 칼에 찔려 내팽개쳐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전문으로 공연하는 소규모 헤비 메탈 클럽이 서울에만 해도 2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이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헤비 메탈 가운데서도 사운드가 파괴적이고 가사 내용이 죽음, 살인, 전쟁, 방화, 섹스, 마약, 신성모독, 악령 숭배같이 기괴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악마주의 헤비 메탈 밴드를 일컬어 데스 메탈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음반 재킷들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다. 어떤 그룹은 공연 중에 연주자가 자기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관객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종종 무대 위에서 블랙 매스(Black Mass)라고 불리는 사탄숭배자들의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며, 알몸으로 제단 위에 서서 닭의 피를 뿌림으로써 공연을 마치기도 한다. 과거 록 스타였다가 지금은 목사가 된 리틀 리차드는 "몇몇 로큰롤 그룹들은 빙 둘러서서

피를 마신다. 또 그들 중 몇은 무릎을 꿇고 마귀에게 기도를 올린다."고 전하고 있다.

가수 김종서는 재수시절 사탄주의를 표방하는 블랙 새버스, 레드 제플린의 음악에 현혹되면서 환청이 들리고 삼사일 씩 잠을 못 자면서 정신이 피폐해져 정신질환까지 앓게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고백했다.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이런 사탄주의 음악을 경계하고 혹시 라도 여기에 빠져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또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좇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을 언제나 부정에서 긍정으로, 파괴에서 건설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절망에서 희망에로, 죽음에서 생명에로 이끌고 간다.

5. 믿음대로 된다

(마 9:27-31)

믿음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제 1단계는 유년기의 아이들이 부모를 맹목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단계이다. 제 2단계는 믿음의 내용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의 단계이다. 제 3단계는 알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제 4단계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확신의 단계이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정하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확신에 찬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뢰와 지식의 단계에 머물려 있지, 순종과 확신의 단계에까지

올라서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확신 속에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 엔도우 슈우사쿠는『예수 지하철을 타다』란 책에서 말하기를,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99%의 의심을 박차고 일어나 1%의 희망을 달성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은 지식의 믿음이다. 그런데 지식의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가진 큰 능력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작지만 삶 속에서 묻어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비록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크게 자라 열매를 맺고 또 새가 날아들어 집을 짓고 새끼를 칠 정도가 된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다.

올바른 믿음과 생각만큼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 방송의 다이어트 광고 가운데 "You are what you eat."이란 문구가 있다. 이 말은 "당신의 몸매는 당신이 먹는 음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You are what you believe." 즉 "당신이란 존재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법칙에 따라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믿으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주먹을 믿으면, 감옥을 안방으로 삼게 될 것이고, 무신론과 진화론을 믿으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한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과 생각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다. 생각은 두뇌 활동에 국한되지만, 믿음은 두뇌뿐 아니라, 마음과 속 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이라도 세상적인 생각이 있고, 믿음의 생각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펜하겐의 한 동물원에서는 원숭이와 고릴라 등이 전시된 건물에 사람을 짐승처럼 철창에 가두어 놓고 관람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안전 망에 붙은 안내판에는 "사람, 호모사피엔스, 영장목(靈長目), 사람과(科), 분포 전세계"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렇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간도 동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에게 이성이 있고, 인간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인간은 비록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다. 만일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거나 짐승일 것이다."고 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둡고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부정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지만, 신앙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과 순종과 확신 때문에 어둡고 불확실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다.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란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학창시절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팔도강산'이 있었다. 이 노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얻었는데, 노래 가사에 "잘살고 못사는 것 마음먹기 달렸더라."는 소절이 있어서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노래였다. 이 노래 가사대로 우리 국민은 마음먹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경제 부국을 일구게 된 것이다.

크레멘트스톤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였다. 생각이나 믿음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1492년 독일에서 『뉴렌베르그 연대기』(Nurenberg Chronicle)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몇 년 전 이장림이 발간해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책,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에서와 같이 『뉴렌베르그 연대기』도 성경 구절을 예로 들고 역사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일년 안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책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페인 리스본에서는 항구를 떠나는 작은 범선이 있었다. 이 배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당시의 절망적인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밝은 희망을 품고 대서양의 파도와 싸우며 서쪽으로 서쪽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갔다. 파도를 가르는 뱃머리에는 한 사나이가 서서 수평선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 종말이 온다고 모두가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을 그 때에 또 바다 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때에 이 사람은 바다 끝 멀리에는 절벽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고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출항한지 한 달 후에 그는 정말 새 땅을 발견하였다. 1492년 10월 12일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이다. 그가 처음 본 새 땅은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였다. 그는 이 섬 이름을 '산 살바도르'(San Salvador) 곧 '구세주'라고 지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당시 유럽은 뉴렌베르그의 연대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때였다. 일년만 있으면 모든 세계의 역사가

끝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러한 극단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믿음의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그는 일년만 있으면 망한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던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고 희망을 주었다. 콜럼버스는 99%의 의심을 박차고 일어나 1%의 희망을 달성했던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얼마 전 미국에서 UFO(미확인 비행 물체)가 인도하는 다른 세상으로 간다며 물의를 일으켰던 '천국의 문'(Heaven's Gate) 신도들의 집단 자살 소동일 것이다.

서기 2000년을 앞두고 지금 세계는 세기말적인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97년 여름 미국의 유명 방송사들은 외계인의 침공과 지구의 종말 등을 다룬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한국은 귀신 관련 프로그램들을 주말 황금 시간대에 앞다투어 방영하였다. 한편 출판계는 '환생의 라이라,' '내부로부터의 방문자,' '샘야제 이야기,' 'X-파일' 등 환생과 외계인과 UFO를 다룬 책들의 판매가 늘고 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이 사람들에게 집단 자살과 같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학생들과 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을 세 개의 연구그룹으로 나눈 후에 첫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몇 마리의 쥐들을 주면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천재적인 쥐들을 다루게 될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런 만큼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도 몇 마리의 쥐들을 주면서 말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쥐들은 보통의 쥐들입니다. 그런 만큼 보통 수준의 연구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

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도 몇 마리의 쥐들을 주면서 말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쥐들은 바보들이라 할만큼 수준 이하의 쥐들입니다. 그런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잘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주 동안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천재로 소개된 쥐들은 정말 뛰어난 행동을 보였고, 보통의 쥐로 소개된 쥐들은 보통의 행동을 보였으며, 바보로 소개된 쥐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쥐들은 모두 보통의 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쥐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과 생각이 보통의 쥐들을 천재 쥐 또는 바보 쥐로 만들었던 것이다. 자기 그룹의 쥐들이 천재라고 믿었던 학생들의 신뢰가 보통의 쥐들에게 전달되어서 천재성을 나타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 그룹의 쥐들이 바보들이라고 믿었던 학생들의 불신이 보통의 쥐들에게 전달되어서 바보 쥐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사람의 존재는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 혼자 뿐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자기 혼자 뿐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자연의 법칙대로 살게되면, 좋음이 변하여 나쁨이 된다. 천재성이 변하여 바보가 된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대로 살면, bad가 변하여 good이 된다. 바보가 변하여 천재가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존재는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란 키프러스 섬의 왕이 등장한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만든 상아 여인상에 반해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여신이 그의 소원을 받아들여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자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신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란 것인데 부모나 교사가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 학생은 실제로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되며, 인정과 기대를 높이 할 수록 더 훌륭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나이가 어릴 수록 또 부모나 교사의 기대와 본인의 소원이 일치될 때에 더욱 효과적이다.

마태복음 8-9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10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기적들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낳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였으며, 눈 먼 소경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기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6. 심는 대로 거둔다

(갈 6:7)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그의 『권력의 이동』이란 책에서 인류는 근육질에서 나오는 힘(Muscle)과 돈(Money)의 권력시대를 지나 이제는 정신(Mind) 또는 지식의 권력시대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시대는 힘센 장사가 대

우받았던 시대였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시대는 폭력이나 부(富)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는 "21세기 정보사회의 마인드"란 주제의 강연에서 근대문명을 가능케 한 개미와 같은 조직중심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며, 앞으로 오는 시대는 거미와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예견하면서 21세기는 정보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각의 패턴이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것뿐이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성에서 '다른 것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상대성에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에로, 하드웨어 몸체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브레인중심에로, 생명이 없는 조화 같고 온정이 없는 기계적인 세계관에서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고 끈끈한 정이 있는 유기체적이고 생태학적인 세계관에로, 인간중심의 가치관에서 생명중심의 가치관에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기존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이 분이 미국인 오랄 로버트 목사이다. 이 분은 자신의 이름, '오랄'이 뜻하는 바와는 달리 지독한 말더듬이였다. 또 폐병으로 사경을 헤매었던 사람이다.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목사로 또 오랄 로버트 대학교의 창설자로 성공했다. 그는『씨앗 신앙의 기적』이란 책에서, 인간을 의지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열매만을 추구하던 생활에서 씨뿌림의 생활로, 소극적인 믿음생활에서 기적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생활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꿀 것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오랄 목사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삶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원천과 도구의 원리이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

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천이 인간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라는 생각에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이시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관리자에 불과하다. 우리의 공급원은 주인이지, 관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급의 원천이시며, 사람은 도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공급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직장이나 부모나 후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비의 공급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인간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는 한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기대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원리가 부모나 회사의 사장이나 후원자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성실함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공급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어떤 농부가 밭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재배에 성공했다. 그가 재배에 성공한 나무는 엘베르타(Elberta)라는 크고 맛좋은 복숭아가 열리는 품종이었다. 사람들은 그 복숭아를 사기 위해서 원

근 각처에서 찾아왔다. 복숭아 농사는 성공적이었다. 수확도 좋았고 수입도 짭짤했다. 그러나 이 농부는 나무보다는 열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자기에게 돈을 벌어 주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공급원은 복숭아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이쯤에 미치자, 농부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에만 정신이 팔려서 나무를 돌보지 않았다. 수확이 줄기 시작했다. 수확한 열매도 전보다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입이 줄었다. 농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숭아나무를 살펴보았다. 나무마다 벌레가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 때서야 농부는 서둘러 약을 치고 병든 나무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늦은 헛수고였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과실수는 한 해만 정성들여 돌보지 않아도 쓸모가 없게 된다. 결국 농부는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심을 수밖에 없었다.

실패를 경험한 이 농부가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 우리는 삶의 공급원과 도구를 바꾸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공급원은 부모도 회사의 사장도 후원자도 아니다. 이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둘째, 심음과 거둠의 원리이다. 받는 것에서 주는 것에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열매만을 추구하던 생활에서 씨뿌림의 생활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느냐는 말씀이다. 뿌린 것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따겠느냐는 말씀이다.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신다.

성서에는 자신의 헤아림으로 오히려 헤아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반대로 적은 것으로 심고 크게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자신의 헤아림으로 오히려 헤아림을 당한 사람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예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땅을 팔았다. 그러나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전 재산을 털어서 헌납해 버리고 나면 살길도 막막했고, 아깝다는 생각도 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분만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감추었다. 사실 그들은 이 돈을 전혀 감출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땅을 팔기 전에도 그들의 땅이었고, 판 후에도 그 대금을 임의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뻔한 거짓말로 교회와 하나님을 속인 데 있다. 농경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웃 집 수저가 몇 개라는 것까지 다 외우고 살았다. 누구네 집 땅이 몇 마지기이고 값은 얼마라는 것까지 다 알고 살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헤아림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

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거짓으로 심었고 죽음으로 거두었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자의 능력대로 그 돈을 장사에 투자했다. 투자한 만큼 이 사람들의 열심도 남달랐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것은 그가 투자한 돈의 액수가 컸기 때문에 이익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크게 투자한 만큼 손해도 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노력은 남보다 컸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의 보너스가 주어진 것은 결코 불공평한 혜택이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공정한 원리가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헤아렸다. 속된 말로 통박을 굴린 것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마25:25) 생각했다. 죽도록 벌어봐야 주인의 몫으로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받은 것을 투자하지도 심지도 않았다. 받은 대로 잘 간수했다가 되돌려 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이자는 생각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결국 심지 않고 거두려 했던 게으른 종은 받은 것까지도 빼앗기고 말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성서에는 적은 것을 심고 크게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 때 역시 몹시 굶주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불쌍한 과부에게 간청을 했다. "배가 몹시 고프니 밥을 좀 주십시오." 이 때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만, 나는 밥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 다가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입니다"(왕상17:12).

절박한 순간이었다. 배고파 죽어 가는 아이를 둔 과부의 심정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매정하게 엘리야는 음식을 가져오도록 요구했다. 도대체 남의 생각은 조금치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게는 배고파 죽어 가는 아이가 있답니다. 선생님께 나누어 드릴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간곡히 부탁한다. "걱정 말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드십시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결코 소모되지 않을 것입니다"(왕상17:13-15).

상식을 초월한 매정한 요구였다. 그러나 이 과부는 순종했다. 마지막 남은 약간의 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통의 가루가 소모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여러 날을 먹어도 통의 가루가 줄어들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소모되지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수확한 것이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둔 것이다.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다.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다(요 6:1-13).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에 모인 민중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상식을 초월한 요구를 하셨다. 그 숫한 민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몹시도 가난했던 제자들 역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돈도 없으려니와 그 많은

음식을 구해온다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때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든 도시락을 예수께 내어놓았다. 소년으로써는 결코 작지 아니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그의 적은 음식은 수천 배로 불어나는 기적을 창출했다.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다.

셋째, 믿음과 기적의 원리이다. 소극적인 믿음생활에서 기적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생활로, 절망에서 희망에로, 불가능에서 가능에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믿음으로 반죽될 때에 기적의 빵이 산출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보리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믿음으로 공급될 때에 수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산출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는 한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다. 성서시대에 발생했던 기적과 반드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마 17:20)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막 10:27)는 소박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달라 질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눅 12:28) 순박한 믿음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눅 12:31) 우리의 삶은 기적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

7. 벗삼아 읽은 책은 평생의 스승 된다 (딤후 3:14-17)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는 책 읽는 데 가장 좋은

독서팔경(讀書八境) 가운데 하나를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이라고 했고, 소동파는 책 속에 있는 미녀와 부귀와 출세를 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 하여 독서를 '추도(秋盜)' 즉 '가을 도둑'이라 하였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다.

책 읽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따돌림을 받는다." "허약하고 실천력이 없다."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다."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약한 반면, "아는 것이 많고 머리가 좋아 창의적일 것 같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 같다." "사업을 잘 해 부유하게 살 것 같다."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두 명 중 한 명은 책을 전혀 보지 않거나 본다해도 30분 미만이고, 연간 독서량은 일본 사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9권 정도이며, 월 평균 도서구입비가 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반면 우리 나라 직장인들은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보다 술값으로 지불하는 돈이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학생들도 책을 읽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연대와 이대가 있는 신촌일대에만 술집이 1천5백개가 된다고 한다. 이들 술집들은 막걸리나 생맥주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룸살롱, 단란주점, 디스코테크, 멤버십클럽 등 전문 유흥업소들이 포함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들이 책을 잘 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영상매체 때문일 것이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책을 읽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급속한 세속화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만든다.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광고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간 중간 끊기게 되고, 시간제한 때문에 방영횟수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의 불연속성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사리 분별력이 약화되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특히 어려서부터 텔레비전

을 보고 자란 사람일수록 방영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스승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책이다. 책 속에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매듭이 있고, 어느 한 일에 대한 집중력과 주의력과 끈기와 지속력이 있으며, 정보를 분류하고 판단하고 취사선택하여 재창조하는 분별력이 있고, 자신을 홀로 서게 하는 개성이 있다.

'벗삼아 읽은 책은 평생의 스승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독서는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양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특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성경에는 성공한 신앙인들의 삶의 지혜가 가득 들어 있다. 성경은 신비의 책이다. 성경 66권은 천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무려 40여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주제와 사상이 일치하며, 원본대로 충실하게 보존되었으며, 수 천 권의 고대 사본들이 현존하는 책이다. 성경은 쓰여진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가운데 무려 2천1백67개 언어로 번역된 책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팔리는 책이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읽히는 책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다.

평생동안 성경을 벗삼아 읽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겠다.

음악가 베토벤은 청력을 상실한 후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살을 죄악시하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베토벤의 천재적 음악성은 성경을 포함한 폭넓은 문학서적들의 탐독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많은 성곡을 작곡한 바하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천재적 음악성은 성경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 관련 서적을 탐독한데서 비롯되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서고에서 발견된 80여 권의 책은 모두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책들이었다고 한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성경을 즐겨 읽었던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박애정신이 물씬 풍기는 그의 소설들과 교훈적인 민화들은 한결같이 기독교 정신과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다. 만일에 톨스토이가 성경을 즐겨 읽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두 살 때, 아버지를 아홉 살 때에 잃은 그가 그토록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퀸스 아담스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늘 강조한 사람이다. 1816년 9월 26일의 일기에서 그는 "몇 년 전부터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습관이다."라고 했다.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요 미적분을 창시한 수학자이면서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과 런던 지역에 5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는 또 책 두 권 정도의 분량인 약 130만 자에 달하는 자필 유고를 남겼는데, 이 유고의 내용이 모두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는 만유인력을 설명한 『원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적

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뉴턴은 유복자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뉴턴이 세 살 되던 해에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재혼을 했다. 그래서 뉴턴은 형제자매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는 한 때나마 계부와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행했던 시절을 성경을 통해서 극복해 낼 수 있었다.

미국 농산물 응용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톤 카버는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에 흑인 노예의 몸에서 태어났다. 카버의 삶은 자연법칙에 따라 처참하게 버려진 흑인의 삶일 수밖에 없었다. 카버의 아버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백인 밑에서 하녀로 있었는데, 백인 무장 폭도들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팔려가게 되었고, 보자기에 쌓인 채 버려졌던 카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지만,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말 한 필 값을 치른 후에야 카버를 데려올 수 있었다.

조지 워싱톤 카버는 흑인을 받아 주는 링컨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신을 키워준 카버 부부와 헤어져 세탁업과 산파 일을 하는 흑인인 마리아 왓킨스 부인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16세가 되던 해에는 캔사스 주 포트스코트의 백인 가정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듬해 봄에 읍내에 있는 작은 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그는 백인 폭도들이 대낮에 한 흑인을 무참히 때린 후에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죽이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카버는 20세가 되어서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였다. 26세가 되었을 때, 흑인을 받아 주는 대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디아놀라의 심슨 대학에 입학

하게 되었다. 이 대학에서 만난 미술 교사 버드는 카버가 미술보다는 식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아이오와 농과대학의 원예학 교수로 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카버를 소개시켜 주었다. 아이오와 농과대학을 졸업한 카버는 저명한 식물학자였던 루이스 파멜 교수의 조수로 일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896년 32살의 카버는 앨라배마주에 터스키지학원을 세워 흑인들을 교육하던 부커 워싱톤으로부터 "타락하고 가난하며 버려질 운명에 처해있는 우리의 동족 흑인들을 구출하여 떳떳한 인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돈과 명예를 버린 채 이때부터 흑인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 57세 되던 해, 카버는 토마스 에디슨 연구소로부터 97년으로부터 76년 전이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인 연봉 1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도 뿌리친 채 32살 때부터 받기 시작한 연봉 125 달러에 만족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가난 속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한번은 카버가 미 상원에서 땅콩에 관한 설명회를 갖게 되었는데, 카버의 설명을 듣고 난 한 상원의원이 물었다. "박사께서는 어디서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책에서 배웠습니다." "무슨 책에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땅콩에 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성경은 땅콩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버는 흑인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물과 식물과 광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정말 지대하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책 한 권은 읽는 사람에게 정말 커다란 마음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외에도 다른 많

은 책들을 읽어야 한다. 사람의 상식이나 인품은 독서의 폭과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학력이나 학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좋은 학벌은 전문분야에서는 유익하지만 인생의 깊이를 가름하는 잣대는 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 더 소개하겠다.

세조 때 정승 자리에 오른 김수온(金守溫)은 신숙주(申叔舟)가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아 가보(家寶)로 아끼던 '고문선(古文選)'이란 책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 신숙주가 김수온의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모조리 낱장으로 찢어 방벽과 천장에 도배질을 해 놓고 밥 먹으면서 읽고 누워서 읽고 있더라고 했다.

나폴레옹이 하루 3시간밖에 잠자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는 하루 7시간을 자고서도 자고 싶을 때면 아무 데서나 새우잠을 잘 잤던 것이 와전되어 나돌았던 이야기라고 한다. 나폴레옹은 육군사관학교 시절 성적이 58명중 42등이었다고 하니까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고 또 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다만 나폴레옹의 독서열만큼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쉰 두 살의 그리 길지 아니한 생애 가운데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려 8천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40년간 책을 읽었다고 볼 때 매년 200권을 읽은 셈이 된다. 이런 독서열이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까지 학술조사단을 대동할 정도로 문화를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영웅으로 만든 것이다.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1822-1890)은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 얽힌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건과 인물과 지명으로 밝혀낸 사람이다. 슐리만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어린이를 위한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로 받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이 그를 위대한 고고학자로 만들었다. 슐리만은 이 책에서 전설이나 신화로 알려진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 읽게 되었는데 훗날 성장해서 트로이

유적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슐리만은 14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모포를 사기 위해 단 하나뿐인 외투를 팔아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학교를 중퇴한 후 잡화상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슐리만은 유년시절 가졌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학공부에 몰두해 15개 국어에 능통하게 되었고, 그 후 무역에 뛰어들어 큰돈을 모으는 한편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48세가 되던 해인 1870년에 전 재산을 들여 트로이 유적지 발굴에 착수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인 1873년에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 불리는 막대한 유물을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어릴 적 꿈을 기어코 이루었다. 그 다음해에 슐리만은 다시 미케네 발굴에 착수하여 4년만에 마무리를 짓고 저서 『미케네』를 펴냈다. 만일에 그가 어릴 적에 『어린이를 위한 역사』라는 한 권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트로이 유적지와 미케네 문명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자서전, 『고대에 대한 열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서전을 쓰게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내 인생의 후반기에 진행되었던 발굴 작업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 감명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비가 오면 집이 샐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가 일찍 어머니를 잃었다. 책을 좋아했지만 사서 볼 수 없어서 주로 빌려 읽곤 했다. 그는 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이 아무리 멀더라도 단숨에 달려가 책을 빌려다 읽었다. 링컨은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책은 밤에만 읽었다. 한번은 이웃으로부터 『워싱턴 전』을 빌려다가 초가 다 탈 때까지 읽고 책장에 넣어두고 잠이 들었는데 그 날 밤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내려 그만 책이 물에 젖고 말았다. 그는 책 주인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3일 동안 그 집에서 일한 후에 그 책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비에 흠뻑 젖은 책이었지만 자기도

책을 가졌다는 기쁨에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다고 한다.

링컨은 흑인을 해방시킨 대통령으로써 미국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만일에 스토우 부인이 저술한『엉클 톰즈 캐빈』이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흑인 노예들의 해방은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헨리 포드는 소년기에 집을 나와, 1877년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기계공장에서 주급 2달라 50센트로 일하였다. 그는 매주 2-30센트를 절약해서 기계학에 관한 잡지를 구입해서 읽었다. 그가 결혼 할 때에 그에게 있었던 것은 이 잡지 묶음뿐이었다. 포드가 자동차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잡지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매일 2천만 명이 시청하는 TV토크쇼의 사회자이자 5억 달러의 재산과 가장 비싼 개런티를 받는 오프라 윈프리는 9살에 사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14살에 임신을 했으며, 20대에 마약의 늪에 빠졌던 불행한 흑인 여성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불행을 극복하고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독서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고,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고 또 암송하기도 했다. 그녀를 말재주꾼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녀가 읽고 암송한 책들이었다. 그래서 윈프리는 "독서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8. 땀흘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잠언 22:29)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화장한 여원 모델의 모습보다는 작업복 차림에 땀흘리며 일하는 구릿빛 얼굴의 노동자 농민의 모습이 건강해 보인다.

잠언 22장 29절은 "너는 자기 사업에 근실(勤實)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이란 말은 "자기 사업에 열심인 사람"<KJV>,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NKJV>,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표준새번역, NIV, NRSV>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근실한 사람"이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말한다. 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한 말씀은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표준새번역>란 말씀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은 시시한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뜻이다.

강철왕 카네기가 철강업에 정열을 쏟고있을 당시였다. 공장을 수시로 순시하던 그는 한 사람의 철공을 특히 눈여겨보았다. 그 철공은 말이 없었다.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했다. 그 자세는 언제나 진지하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카네기는 생각했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를 맡겨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카네기는 그를 사장실로 불러서 회사를 위해 공장장의 일을 맡아달라고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어리둥절해진 철공은 사장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난 다른 일은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곤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밖에 없는데요. 철공 일이야 대통령이죠. 다른 일은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어리둥절해진 것은 사장 쪽이었다. 하지만 곧 그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렇소, 내가 생각이 부족했었소.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당신이 세계 제일의 철공이니 오늘부터 대통령 봉급을 주겠소." 그래서 그 철공은 대통령이 받는 봉급과 같은 액수의 봉급을 받게 되었고, 카네기 회사에서 가장 봉급이 많은 사원이 되었다. 카네기는 이렇게 긍지 있는 사원을 후대하여 마침내 강철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최근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카네기처럼 학력이나 남녀차별 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언제든지 중용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서비스에서도 고객들을 위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잘 아는 삼성직원에게 삼성의 고객 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물었더니, 삼성의 고객 서비스 정책은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감동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 되었든 지간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노력은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학력위주나 남녀차별에서 탈피하여 능력위주로 사람을 써야 한다는 변화가 일고 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은 언제라도 보다 낳은 자리로 스카우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사의 황주성 박사는 30대 사장 7인의 성공비결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수면 시간이 보통 4~5시간에 불과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둘째, 습관적으로 일을 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고 '된다'라고 판단되면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말았다. 넷째,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늘 적어두었다. 다섯째, 어떤 사물을 보면 사업과 연관시키는 습관이 있었다. 여섯째, 휴식을 통해서 반드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일곱째, 한 달에 4~5권의 책을 읽는 독서량을 가지고 있었다.

성공이 싫다거나 돈이 싫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돈에 파묻혀 죽기를 소원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소원 아닌 소원을 이루고 죽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70년대에 14만원 짜리 복권에 당첨된 아주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후 일어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니사 미싱'이라는 사람은 6만1천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후 기분이 좋아 거나하게 술을 마신 후 돈 찾으러 갔다가 트럭에 치여 죽었다. 그런가하면 진짜 돈에 묻혀 죽은 사람들도 있다. 어느 카지노의 지하실에서 일하던 보일러공은 동전을 쌓아 두었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쏟아지는 동전에 그만 파묻혀 죽고 말았다. 미국에서는 경비회사의 현금 수송 차량이 25센트 짜리 동전 5만2천 개를 싣고 가다가 갑자기 끼여드는 차량을 피해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동전 자루들이 경비원 '프랜드 알라키리언'에게 쏠리는 바람에 그만 돈 자루에 깔려 죽고 말았다. 또 몇 년 전에 어떤 미국인은 복권에 당첨된 다음 돈 때문에 가족관계는 물론 친인척 관계까지 산산 조각나 버렸고 사치와 씀씀이가 커져서 결국 수십만 달러의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다. 미국인 스티븐 페리시라는 사람은 3백1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됐는데 아내 킴 케이가 남편의 당첨금을 노려 청부 살해하려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무노동으로 생긴 돈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 누구 나가 가외 돈이 생기면 웬일인지 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노동과 땀의 대가로 생긴 돈이 아니면 저축이 되지 않고 훌쩍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잘살지 못하고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손에 넣겠다는 사람들이 부를 얻지 못하고 알거지로 생을 마치는 것은 노동과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이 아니면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푼 두 푼 모아서 재산을 불려 가는 재미, 작은 희망이지만 그 희망을 이루어 가는 재미가 인생 살아가는 재미라 할 수 있다. 요즘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식의 혼사에 집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가재도구 일체를 마련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것들로 부부의 행복을 살 수 없다. 오히려 혼수나 지참금의 부족을 탓하는 시댁이나 남편들의 불평으로 부부사이에 다

툼이 자주 발생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 쓸 시간도 없다. 대개가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이 놀 때 놀지 아니하고 장사를 한다. 도대체 놀 시간이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놀 시간이 없다보니까 쌓이는 것은 돈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할 일 없이 노는 일 만큼 지겹고 힘든 일도 없다. 매일 무엇인가 해야 할 일과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안되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말하자면 행복은 일 속에 있는 것이지, 놀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일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놀이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 일에는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따르지만, 놀이에는 공허감과 끝없는 갈증이 따른다. 일은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놀이는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린다.

부모와 일가 친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쪽보다는 오히려 힘든 쪽이 더 많은 것 같다. 일가 친척들이 잘되는 사업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개는 내 쪽이 무시를 당하지 내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가 친척들 가운데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일 또한 견디기가 쉽지 않다. 돈 빌려달라, 보증 서달라, 저당 잡혀달라, 내 물건 팔아달라는 부탁들을 간단히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편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일가친척 부모가 없는 사람은 첫 출발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게 훗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다보면 모두 다 자기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고생은 사람으로 하여금 값진 경험적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고생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일 처리를 능숙하게 하며, 삶의 깊이의 차원을 갖게 한다. 그래서 중국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맛을 먼저 맛보인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초를 한 방울 혀에 묻혀 준다. 초가 얼마나 시고 맛이 고약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먹거리가 고약한 식초이다 보니 아이는 있는 대로 얼굴을 찡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소금을 핥게 하여 짠맛을 보인다. 세 번째로 씀바귀 대에서 나오는 하얀 진액을 혀에 묻혀서 쓴맛을 보게 한다. 씀바귀의 진액이 얼마나 고약한가? 이쯤 되면 갓난아이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울어 된다. 이렇게 우는 아이에게 네 번째로 혀끝을 가시로 살짝 찔러 아픔까지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탕을 혀끝으로 핥게 하여 단맛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맛 짠맛 쓴맛 아픈 맛 단맛을 다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본 미국의 선교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원시적 악습"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임어당 박사는 "얕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서양인들의 눈으로 그 심오하기까지 한 중국인들의 인생을 향한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오래 전 우리 나라에도 정초가 되면 아이들에게 고들빼기와 씀바귀 나물을 먹였다고 한다. 이런 음식을 통해서 인생의 맵고 짜고 쓰고 아픈 맛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만 살려고 한다. 그래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가 자꾸만 뒤틀려져 가고 있다. 생활수준은 자꾸 높아져 가는데 상대적 빈곤감은 못 먹고 못살 때보다 더 심각해져 삶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다. 삶의 보람이나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면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

다. 그러나 삶의 보람을 땀 흘려 수고하는 삶 속에서 찾고, 공들여 사는 삶 속에서 찾으면 쉽게 발견이 된다.

시편 128장 2절의 말씀은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라고 했고, 잠언 6장 6-11절은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 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하면, 네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고 했다.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초대 로마황제가 되었을 당시인 주전 27년경에는 로마에 축제일이 76개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늘어서 나중에는 175일이나 되었다. 일년의 절반을 논 셈이다. 그러니 로마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로마제국이 융성할 당시에는 로마시민들의 생활이 검소하고 근면했다. 몽테스키외에 의하면 "귀족들도 우쭐대지 않고 평민들과 잘 어울렸으며, 평민들과 똑같은 검소한 복장을 했다."고 한다. 그렇던 로마귀족들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평민들도 퇴폐 놀이를 좋아하면서부터 로마제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베니스공화국이 지중해 세계에 군림하기 시작한 9세기초에는 길이 3Km, 넓이도 넓은 곳이 2Km, 좁은 곳은 1K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공섬이었다. 인구도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베니스가 5백년 넘게 지중해 세계를 휘어잡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소하고 근면한데 있었다. 그렇던 베니스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17세기초 베니스에 주재했던 영국대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본국정부에 보냈다. "베니스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왕성한 기업정신을 가지고 바다를 활동무대 삼아 강대국이 되었지만, 지금은 바다와 상업을 떠나고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마차를 타고 극장구경이나 하면서 쾌락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자식들을 바다로 내보냈는데 지금은 대륙으로 관광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니스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백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사치와 쾌락을 일삼기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도 채 되지 않는다.

땀흘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의 생활은 아름답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생활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타고난다고 한다. 그래서 행복이란 돈의 많고 적음이나 교육 수준이 높고 낮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유헌 서울대 의대 교수의 '두뇌 장수학'에 의하면,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한다. 단순히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손이 부지런하면 두뇌 자체가 건강해져 두뇌의 질병과 노화방지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10장 기독교인의 고난극복의 삶

1.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2.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3.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 메뚜기 콤플렉스
5. 콤플렉스를 이긴 사람들
6. 실명을 극복한 강영우 박사
7.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

제10장

기독교인의 고난극복의 삶

1.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롬 5:3-4)

문명의 발전은 인간이 가진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학 등 모든 분야의 발전이 난관에 부딪혔었거나 고통의 경험에서부터 출발되었다. 배고팠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되었고,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 졌고, 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들어 졌고, 물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배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간접적으로는 적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생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결국 오늘의 과학 문명은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지난 81년 10년 된 고물 차를 40만원에 사서 86년까지 5년을 타는 동안 셀 수도 없을 만큼 고장이 많았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날 때마다 고생은 많이 됐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컴퓨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몇 년간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다가 90년에 286급 컴퓨터를 조립품으로 구입했는데 고장이 잦았고, 93년에 486급 컴퓨터를 메이커 제품으로 구입했는데도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얻을 수 없어서 예상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고생은 많이 됐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익힐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성경은 에덴동산이라는 완벽한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과 호기심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문제 많고 불완전한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로마의 신화는 제우스가 에피메데우스의 부인이 된 판도라에게 결혼 선물로 상자 한 개를 주면서 절대로 열어 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도라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호기심에 이끌려 상자를 열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세계를 줌으로써 무의 도식하는 인간들을 보살피기보다는 문제 많고 불완전한 세계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배려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톨스토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앞일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인간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문제해결의 보람과 어떤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같은 것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다른 짐승의 삶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 팀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일이 있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지 혹은 단축시키는지, 아니면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지 혹은 침체시키는지를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았다. 그들은 두 그룹의 동물을 선정했다. 한 그룹의 동물들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두었다. 그들은 상쾌한 공기, 많은 음식, 방해물이 없는 곳에서 놀고먹었다. 또 한 그룹의 동물들에겐 좋고 나쁜 환경을 함께 주었다. 그들은 편히 쉬다가도 적과 맞서기도 하고 음식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 결과 좋은 환경에 있던 동물들은 나쁜 환경에 처한 동물들보다도 훨씬 빨리 노쇠현상을 보였고, 나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은 좋은 환경에 있던 동물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왕성한 젊음을 유지했다고 보고하였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딸에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노니는 한 폭의 명화가 그려진 100조각으로 쪼개어진 조각그림 맞추기를 사다 주었다. 아이들은 아주 좋아했다. 아버지가 이 조각그림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당시에는 모든 그림이 이미 맞추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다. 아이들도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너희들이 이 그림을 한 쪽에 잘 놓아두고 보는 한 언제든지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그림을 바닥에 쏟아 버리면 이 그림은 100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버리게 되어 너희들은 더 이상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 그림을 쏟아 놓고 다시 맞출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이 멋진 그림을 다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만 한다면 보기보다는 훨씬 쉽고 빠르게 흩어진 모든 조각을 바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멋진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싫거든 이 그림을 만지지 말고 한 쪽에 잘 놓아두어라." 처음에 아이들은 이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감상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이 그림을 가만히 놓아두고 볼 수만은 없었

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여동생이 먼저 그림의 조각을 한 쪽씩 떼어서 만져 보고 붙여 보고, 두 쪽을 떼어서 만져 보고 붙여 보고 하다가 성이 차지 않아서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이 그림 쏟아서 한 번 맞추어 보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오빠는 동생의 말에 솔깃했다. 그래서 남매는 그림을 바닥에 쏟아 버렸다. 그리고 장난기가 있는 오빠가 조각그림들을 이리저리 섞어 버리고 말았다. 남매는 그림을 맞추기 시작했다. 갓 자리 그림들은 쉽게 맞출 수가 있었지만 차차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매는 의견의 대립을 보이기도 했고, 그림을 쏟아 놓고 쉽게 맞추지 못하자 아버지에게 혼나지 아니할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은 걸리고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그림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마다 그림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색상이며, 그림의 모습이며, 조각난 모습을 보아가면서 조각의 자리를 찾는데 피차에 협력하기 시작했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난감해 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면서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조각을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면 기뻐하다가도 맞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곤 했다. 이 그림이 맞추어지는 동안 아이들의 표정은 무수히 변하고 있었다. 기쁨과 실망과 절망과 안도와 흥분의 표정들이 순간순간 교체되면서 그림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멀리서 보시고 꾸중을 하시기보다는 흐뭇해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

그렇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세계가 타락되고 고통스런 곳으로 변했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추호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망쳐져 버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망쳐지고 있다는 교훈은 역으로 생각했

을 때, 우리가 망쳐진 세상 속에서 혹은 뒤집혀진 세상 속에서 혹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만 산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만 산다면, 완전한 세상을 맛 볼 수도 있고, 성취감을 누릴 수도 있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도 있다는 교훈이기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삶의 보람을 찾고 있고, 성취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간들의 아픔과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생각의 발전, 삶의 발전,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다. 더불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 사이의 인간애는 충천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어 하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고생 후에 낙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산 체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처럼 내일도 동일하게 이런 저런 인간사를 통해서 시련을 겪게 될 것이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쌓게 될 것이다. 또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현실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큰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축복도 배로 커졌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고, 오른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왼편으로 피하셨는지 만날 수가 없었고, 왼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피하셨는지 만날 수가 없었

다. 말하자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지만 말이다. 최종적으로 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이 값지고 빛나는 자로 뽑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칸디나비아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격언이 있다. 바이킹은 9-11세기에 영국과 스페인 연안을 휩쓸고, 독일과 프랑스, 북미와 그린란드까지 진출했다. 세계 최고의 배를 건조했고, 바이킹이란 말을 전진과 모험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격언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모험과 진출을 탄생시켰다는 뜻이다. 그들은 추운 기후와 거친 땅과 인구과잉이라는 악조건에 굴하지 않았다. 조상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 전세계를 향하여 전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적인 신앙이다.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무를 유로, 죽음을 생명으로,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의 성취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발전으로, 시련을 성장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2.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욥 23:10)

성서 66권은 고난과 승리, 다시 말하면, 노예와 해방, 포로와 자유, 또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주제로 엮어져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죽임을 당함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승리한 삶의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전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씨가 했는데 이 한마디 말이 바로 기록된 성서 66권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시련과 승리,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이름 있는 목회자들 대다수가 예수 믿으면 마치 고난은 없고 축복만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나가 반드시 겪게 되는 시련이 죄악시되고 있고, 물질적인 부가 축복의 대명사로 둔갑을 했다. 물질 만능화의 풍토가 신앙세계를 잠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서양의 물질문명이 동양의 정신문명을 잠식하는 현상이기도하다. 일찍이 우리민족은 물질적인 부유보다 청빈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이러한 미덕이 서구의 물질문화로 인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고, 고상했던 우리 동양인의 이성이나 정신세계는 점차 본능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성서가 물질축복을 절대로 미화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만일 성서가 축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자들이 시련 후에 얻게될 축복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축복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함께 축복을 말한다. 성서의 주제가 고난과 승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롬 8:17)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고, 수치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있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실패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로서 승리하셨다. 마찬가지로 그 분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최후의 승리,'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서적인 가르침을 설사 알고 있다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막상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견디기 어려운 갈등을 겪게 된다. "하나님, 너무해요, 왜 내게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억울해요"라고 투정할 수밖에 없다. 믿음생활을 충실히 행한 사람일 수록 이러한 갈등이 더 심하고 원망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 왔는데 축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참담한 일을 당한다면 이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오, 억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크나 큰 시련을 겪었던 바울이나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신다고 말했고, 욥은 순금을 뽑기 위해서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고 단련하는 것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 길을 미리 아시고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 엄청난 고생과 역경을 이기고 체력과 기술을 단련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얻는 것과 같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27절의 말씀에서, 메달을 다투는 선수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같이 자신도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련과 훈련은 메달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서정주의 시 가운데 「국화 옆에서」가 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꽃피기까지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고, 가을에는 된서리가 내리듯이, 우리의 꿈이 꽃피우고 우리의 희망이 결실하기까지 잠 못 이루는 10대 때에 소쩍새의 눈물과, 장래가 불확실한 20대 때의 천둥과 먹구름 같은 고생과, 불안정한 30대 때의 된서리 같은 역경이 있고서야 비로소 불혹의 40대 때에 온갖 풍상과 역경을 딛고 넉넉하고 안정된 누님과 같은 완숙함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이 시는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 반드시 신앙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 시련을 통해서 오는 갈등과 고민은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이다. 약이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로운 것처럼, 현실적으로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것이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의 복음이 나왔고, 온 인류의 소망인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은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언제나 더 크게 성장해왔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곤 했다. 그러므로, 고난을 아픔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난을 성숙을 위한 도약판으로 이용해야 한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고난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죄의 삯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픔은 반드시 나

쁜 것만은 아니다. 아픔을 통해서 옳고 그릇된 것을 배우며,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손을 데고 나서야 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되고, 바늘에 찔리고 나서야 그 아픔을 알게 된다. 모든 병이나 사고가 반드시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고난이 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며, 인간의 타락이 없었던들 생로병사의 인생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가르침은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과음과 과속운전은 윤리적으로나 교통법규상 죄에 해당된다. 과음은 피로와 두통을 가져오며, 금전의 낭비는 물론이요, 가족에 소홀히 함으로서 기인된 애정결핍과 같은 많은 고통을 유발하며, 과속운전은 재산피해는 물론 살인 및 자살행위까지 초래하여 많은 고통을 유발케 한다. 그러므로 성서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러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다(약 1:14-15). 근본적으로 인간은 누구 나가 범죄의 가능성과 쾌락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뒤따르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경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와 쾌락의 유혹을 뿌리치며 살게 된다.

둘째, 고난은 축복을 기약하는 연단이며, 그 정도나 시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막힘의 위기 속에는 반드시 트임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전 10:13)고 하였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고후 4:17)고 하셨다. 욥

이 시련 후에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고난은 축복에 대한 시샘과 같은 것이며, 햇살이 있기 위해서 한바탕의 비바람과 천둥이 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소나기를 맞은 식물은 더욱 푸르게 자란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난은 소나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이다. 소나기 몇 번 맞고 나면 모든 것이 싱싱해진다. 계시록이 고난의 기간을 매우 짧은 기간인 삼 년 반으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축복의 기간을 무려 천년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셋째, 고난은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장막이요, 영원한 처소가 예비 되어있다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며,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이웃의 고마움을 알게 되며, 서로 돕고 의존하는 이웃사랑의 필요성을 깨우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되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되고, 강퍅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며,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인식하는 새 삶을 찾게 되기도 한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식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분의 한없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갈릴리 호수에서의 풍랑진압 설화는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위태로움과 세상의 박해를 묘사한 이야기이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노 젓는 아주 작은 것이다.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어느 때라도 덮치기 위해서 풍랑과 바람을 동반한다. 이 배 안에는 능력의 주님,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동승하고 계신다. 배는 언제나 호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게 되든지, 저 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게 된다. 이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된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있다. 이 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 도움을 청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일이다. 풍랑이 없고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주님을 잊기 쉽다. 인간의 관심밖에 계신 주님은 낮잠이나 주무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잊혀져 가는 주님을 찾게 만들어준다. 그 분의 존재를 인식할 기회를 준다. 그 분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신앙의 결단을 갖게 해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란 제목의 회람서신에서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신비의 치료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어야한다. 고난을 당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련을 딛고 자기 성숙을 꾀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다. 시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3.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4-7)

원불교교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 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물으면, "원래 불교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라고 답하고 있다.

일체유심조, 이 말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의 생각에 달렸다는 뜻이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불

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다.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생각에 따라서 살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7절은 아무리 나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고, 심지어는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좋은 생각을 품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 했는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간구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한다하더라도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타고난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심한 초조와 불안을 느끼면서 상황을 점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마음의 생각과 눈이 어두워져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무런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이같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무더기 실직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나마 직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물가인상과 임금삭감으로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후유증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출이 늘고 있고,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1996년도 한달 평균 자살자가 720명이었는데 반하여, '제2의 6.25'라 부르는 IMF사태가 시작된 1997년 11월 이후에는 한달 평균 자살자가 9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30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셈이다. 초중고생 394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19.6퍼센트의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458명의 어른 중에는 26퍼센트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공허함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IMF사태이후 별거하는 부부가 늘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져서 지난 두 달 동안 214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퍼센트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되자 요즘 역술학원이나 굿학원에 주부, 대학생, 실직자 등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심지어 IMF이후 무당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굿기술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20대 여성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들과는 좀 달라야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감옥에서였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4장 4-7절의 말씀 같은 용기있는 충고를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서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틈새를 볼 수 있게 된다.

반드시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올바른 생각으로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신체장애를 극복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극한 가난을 성실로 극복한 사람들도 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케이시 매컬리스터군은 트럭에 치어 두 발을 잘리고 상체만 남은 불구이면서도 두 손으로 배트를 휘두르고 두 팔에 의지해 베이스를 향해 그라운드를 구르듯 달려나가는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올해 11살인 이 소년은 야구는 물론이고, 학교 농구클럽의 멤버이기도하다. 한 손으로는 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을 드리볼하면서 슛을 쏜다. 이뿐 아니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신문배달까지 한다니 대단한 정신력이 아닐 수 없다. 매컬리스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88년 10월에 열린 서울올림픽대회와 더불어 함께 열린 국제신체장애자올림픽대회(Paralympics) 때, 서초동 구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패럴림픽 성화를 나른 케니라는 소년이 있었다. 케니 역시 상반신밖에 없는 소년이었지만, 두 발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따름이라고 했다.

우리 한국에도 허녀(許女)라는 팔다리 없는 사람이 있었다. 허녀(許女)는 상민 허세겸의 딸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인 열 일곱 살 때, 겁탈하려 드는 왜병에 몰려 나무기둥을 두 팔로 끌어안고 버티었다. 이에 성난 왜병이 두 팔과 두 다리를 절단하고 가버렸다. 그 후 허녀는 입산하여 보살이 되어 여생을 살았는데, 자신을 돌보는 일 뿐 아니라 절간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했고 입으로 바느질 뿐 아니라, 부처와 보살을 그려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만다라(曼荼羅)를 수를 놓아 그렸다. 또 입으로 붓을 물

고 그림을 그렸으며, 수백 권의 경전을 복사(寫經)해서 남겼다. 팔 다리가 다 있는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큰 일들을 해냈던 것이다.

1998년 5월 8일에는 이유도 없이 뼈가 부러지는 불치병인 '선천성 골형성부전증'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장장욱(23)과 장훈(21)형제가 고입 검정고시에서 전국수석과 부산지역 3등을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부끄럽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탈 때면 '뼈가 더 부러질까봐' 걱정을 해야 하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형제들이다.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내 주고, 밥을 떠 먹여 주어야 살아갈 수 있고 평생을 누어서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이다.

북한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최소한 3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점심을 굶는 중고생이 2만 명이 넘고 있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점심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춘기를 맞고 있는 이들 학생들이 받는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남에게 밥을 얻어먹어 창피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예 점심지원을 거부하기도 한다. "굶기 싫어서 먹기는 하지만 비참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가하면, 일부학생들은 무료식권을 찢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학교식당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른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한 경우이고, 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서는 1회용 도시락을 배달시킨 뒤 나누어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눈치챌까봐서 운동장 구석에 숨어서 먹기도 하고, 아예 도시락을 받아가지 않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

서울 C중학교 3학년 김모(14)군도 지난 4월부터 학교에서 점심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김군이 매일 점심을 먹기는 4년 만이

라고 한다. 김군은 아버지와 단 둘이 학교 근처 다가구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다. 건설 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던 김군 아버지는 일감이 떨어지면서 집에서 놀다가 최근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노점상으로 나섰지만, 경기가 워낙 나빠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군은 점심 시간이면 교실에서 슬쩍 빠져 나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빈속에 뛰어다니며 공을 차니 배는 더욱 고파졌고, 그럴 때면 운동장 수돗가에서 물을 마셔 허기를 채웠다. 어떤 날은 세수하는 척 수도꼭지 아래 얼굴을 들이밀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한참을 울기도 했다.

김군도 처음에는 도움 받는 게 창피해서 그냥 굶겠다고 했지만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식권을 받아쓰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두 명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점심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군이 먹는 점심은 도시락 회사에서 만들어온다. 점심으로 나오는 불고기, 카레 라이스, 돈까스, 생선튀김 등 대부분은 김군이 처음 먹어본 음식들이다. 그 중 "육개장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 집에서 먹는 아침저녁은 1년 내내 밥과 김치뿐인데, 가끔 아버지가 콩나물국도 끓여준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싸오고, 나는 매일 학교에서 밥이랑 반찬이랑 잘 먹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맨밥만 드시고 . . . . 아버지도 학교에서 점심 지원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편 때문에 "올 들어 속칭 '총을 쏜다'는 주유소 일을 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기 때문에 밤 12시~1시까지 일하기가 예사이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못 일어나서 결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 또 요즘은 점심 먹으려고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침저녁을 굶고 학교에 와서 점심 한끼로 굶주린 배를 불리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 땅에 태어나서-나의 살아온 이야기』란 제목의 자서전을 출판하고 기념회까지 가졌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집을 나와서 쌀 배달부로 출발해서 오늘의 현대그룹을 만든 정 회장은 가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의 비결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성공 비결을 '신용'이라고 했다. 여러 차례 큰 손해를 보면서도 신용만은 굳게 지켰던 것이 오늘의 성공을 있게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검약이라고 했다. 60년대 경부고속도로 공사 때 입었던 작업복을 지난 95년까지 입었고, 돈을 태워 날리는 게 아까워 평생 담배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4조원을 가진 부자이지만, 자식에게나 아내에게 허튼 돈 한번 써본 일이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부지런함이라고 했다. 일어나 일을 해야 하는데 해가 안 뜬다고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그는 80평생 한결같이 날이 밝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네 번째 성공의 비결은 모험심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공의 비결은 창의성이라고 했다. 그는 '불가능하다'는 말과 '빈대만도 못한 놈'이란 소리를 가장 싫어했다고 한다. 그의 사전엔 포기라는 말이 없다고 했다.

연세대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는 조선일보에 실은 "IMF시대 가정교육"이란 글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사고력은 그 어떤 능력 못지 않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IMF 위기는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야기된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 그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했다.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생각을 절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우리 청소년들도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

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두려워 말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고뇌에 찬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김학성(金鶴聲)의 어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처마 밑에서 은(銀)이 가득 들어있는 가마솥 하나를 발견했다. 이를 보고 놀란 어머니는 다시 그 자리에 깊이 묻어 두고 이사를 해 버렸다. 과부인데다 열 살 안팎의 형제를 키우는 가난한 어머니로서 대단한 작심이 아닐 수 없었다. 늙어 임종(臨終) 직전에야 두 아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했다. "재산(財)은 재앙(災)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땅히 궁핍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가난을 모르면 공부에 힘쓰지 않을 것이요, 가난하게 자라지 않으면 재물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집을 옮겨 그 재물을 단념했다." 두 아들을 생각하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마솥에 가득한 그 은(銀)을 버렸던 것이다.

이런 걸 보더라도 시련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니란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 메뚜기 콤플렉스

(민 13:17-33)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다. 탈출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같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바란 광야란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모세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첩보원을 보내어 그 곳을 정탐케 하였다. 첩보원으로 선발 된 사람들은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그들이 해야할 일은 가나안 땅에 숨어 들어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군대와 무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진지는 얼마나 강한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열두 족장의 첩보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낱낱이 살피고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그 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나라였다. 포도송이 하나만 하더라도 장정 두 사람이 들쳐 메야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거인들이었다. 첩보원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보였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현실이었다. 살기에는 분명 좋은 곳이었다. 욕심나는 곳이었다. 차지하고 싶은 곳이었다. 그러나 장벽이 있었다. 그들의 요새는 튼튼하고 성민들은 거인들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 명의 족장들은 좌절과 낙심에 빠졌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 잡혔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교를 멈추고 현실의 장벽에 짓눌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땅의 현실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당장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하던 가나안 복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족장들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던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 묻히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비교는 실패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공하는 길이다. 전북대학교의 남정길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비교는 정치마당이오, 비존재요, 자기가 없는 것이지만, 비교를 멈추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요, 진정한 자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마당은 썩은 곳이다.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남을 죽이는 곳이다. 정치마당은 적자생존의 원리만이 적용되는 곳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 남는 사각의 링이다. 남을 죽어야 자기가 살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목을 조이거나 토끼 몰 듯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래야 만이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마당의 가장 큰 특색이 무엇인고 하니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 인간은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자기 존재를 잃게 된다. 자긍심을 잃게 된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부터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목을 조이기 시작한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식의 장점과 독특함이 흐려지게 된다. 그래서 남의 자식은 거인처럼 자기 자식은 메뚜기처럼 보이게 된다.

남의 차와 내 차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남의 차는 거인처럼 자기 차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차가 작아 좁은 공간에 주차하기가 좋다든지, 기름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라든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애국하는 차라는 등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차가 작아 열등감이 생긴다든지, 수위까지도 무시한다든지, 트럭만 지나가도 휘청거린다든지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저 녀석은 나보다 공부를 잘해, 나보다 키가 커, 나보다 힘이 세, 나

보다 잘 생겼어,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어. 그래서 저 녀석은 크고 넓게 보이고 자기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이게 된다.

어떤 여자 가수는 서양아이처럼 꾸미기 위해서 머리를 칼라로 물들이고, 눈에는 블루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다닌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서양은 거인처럼, 자기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이게 된다. 그게 또 좋다고 그것을 모방하는 사람, 창조적인 모방이면 몰라도 이런 사람은 자기 존재가 없는 사람이다. 전혀 신세대답지 못한 행동과 처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학생들 졸업여행 때문에 제주도에 갈 기회가 많다. 제주도에 찾아오는 신혼부부들의 풍속도를 보면, 전혀 신세대답지 못한 행동들을 볼 수 있다. 적어도 배웠다는 젊은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택시기사 겸 사진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숭이처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게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는 젊은 부부들이 남긴 결혼식 사진은 보아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의 사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신혼부부들이 찍어온 사진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갖춘 신혼살림 또한 특별한 것이 없다. 마치 우리 나라 대도시에 지어놓은 성냥곽 같은 똑같은 틀의 아파트를 보는 것처럼 집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재도구들을 흔하게 보게된다. 집안 분위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크고 값비싼 혼수를 준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살집을 보고 그곳 분위기에 맞고 개성 있는 장식, 어울리는 가재도구를 살아가면서 준비한다는 자기 철학이 신세대들의 신혼가정에서 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다. 남과의 비교 때문에 자기의 것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인 것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라진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온갖 부정과 비리와 사회악이 싹트기 시작한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 것을 찾고 자기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둘째, 땅의 현실만을 보는 것은 실패하는 길이오, 하나님을 신

뢰하는 것은 성공하는 길이다. 족장들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정탐한 후 그들의 세상 적인 땅의 현실을 보고 그만 그들은 간이 콩알만해 졌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버린 다수 족장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판단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뚜기 체면에 빠져들고 말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현실만을 바라 본 이스라엘 국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들은 또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은 정치마당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14:2-4)라고 했다.

메뚜기 체면과 콤플렉스에 빠진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주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열 차례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다. 이런 불신적인 행동 때문에 그들은 약 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현실과 골리앗 같은 장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7-9) 고 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보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밥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한 나머지 전혀 자신들과 가나안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았다. 가나안의 거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렸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치려 하였을 때에 그 성은 과연 높고 튼튼했다. 비집고 쳐들어갈 틈새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와 믿음의 군사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을 차지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다. 가나안 땅의 현실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거대한 장벽들을 우리는 어찌 할 것인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했다. 간이 콩알만해져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자

신을 강한 블레셋 군대나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다. 다윗은 비록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였지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메뚜기로 보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을 자신들의 밥으로 알았다. 남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메뚜기 같이 졸아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을 메뚜기로 여겼다.

5. 콤플렉스를 이긴 사람들
(고후 12:7-10)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올포트는 미국 남자 대학생의 90퍼센트, 여학생 91퍼센트가 신체적-심리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콤플렉스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망정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켰느냐 혹은 그것에 굴복 당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중국 육조 말에 안지추가 '안씨가훈'을 지어 그 방대한 지혜를 자손에게 전수하자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많은 훈계 가운데 꼭 하나만을 지키라고 한다면 어떤 훈계가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그는 말하기를, "실패가 있을 때마다 '성(省)하고, 상(賞)하고, 약(躍)하라'는 교훈이다."라고 대답했다.

'성'은 실패를 초래한 잘못과 결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빨리 반성하라는 것이오, '상'은 실패로 인해서 형성된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오, '약'은 실패를 거울 삼아 도약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 속칭 '안씨패훈'이

라 하여 우리 조상들이 실패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겼던 교훈이라고 한다.

이 '성', '상', '약'의 삼 단계 즉 '반성하고,' '보상하고,' '발돋움하라'는 삼 단계 이론으로 성공한 사람은 참으로 많다. 이 가운데 신체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

역사가 사마천은 흉노에게 포로가 된 패장을 찬양했다하여 황제의 노여움을 사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그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50만냥의 속전을 마련하지 못해서 거세형을 받았고, 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때부터 사마천은 거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마음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패배의식을 딛고 일어서 『사기(史記)』라는 거작을 남겼다.

손자는 발을 잘리는 단근형을 받고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는 병신 콤플렉스를 승화시켜 그 유명한 『손자병법(兵法)』을 남겼다.

좌구명은 실명하고 나서 『좌전(左傳)』이란 책을 남겼다.

베토벤은 난청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하였다.

중국 전국시대 말의 이름난 학자 한비는 말더듬이였다.

희랍의 대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반벙어리였다. 그 열등감을 보상코자 자갈을 물고 해변에 서서 파도소리를 이기는 발성연습을 했다고 한다.

한니발, 시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위대한 장군들은 간질환자였다.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키운 사도 바울도 간질환자였을 것이라는 말들을 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질병을 준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명명한 고질병이 있었다. 이 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도 바울은 시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복음과 선교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혔고,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세 번 이상 배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죽을 번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유대인들로부터 서른 아홉 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로마인들로부터 매수에 제한 없이 때리는 곤장을 세 번이나 맞았고,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 난 적도 있다. 이 밖에도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은 삶 가운데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키도 크지 않고, 이마도 벗어지고, 약간 매부리코에 양 눈썹이 맞붙은 모습에 다리까지 휘었다고 『바울행전』이란 책에 나와 있고, 언변도 좋지 못한 것으로 성서는 적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헬렌 켈러는 눈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빛의 천사'라는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 병으로 근육이 굳어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영국이 낳은 위대한 과학자로 성공했다.

아이히바움이란 독일학자는 서양 출신의 천재들의 정신을 분석해서 보고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78명의 천재 중에 83퍼센트인 65명이 육체에 결함이나 가족관계 또는 성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병 증세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시저, 잔다아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모차르트, 뉴톤, 루소, 베토벤, 괴테, 바이런, 칸트, 나폴레옹, 하이네, 쇼펜하워, 바그너, 비스마르크,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릴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과 의사인 이규동 박사께서 한국 역대 인물 33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콤플렉스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는 그것을 토대로 『위대한 콤플렉스』란 책자를 펴냈다.

이 책에 따르면, 세조에게는 혹심한 차남 콤플렉스가 있었다.

민비는 부모를 일찍 여읜 탓으로 무남독녀로서 갖기 쉬운 남성 콤플렉스가 그의 생애를 지배했다.

이광수는 열 살에 고아가 되어 동네 사람이 꾸어준 돈 삼 원으로 담배장사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고아 콤플렉스가 있었다.

김소월은 아버지를 무척 싫어하고 어머니를 독점하려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었다.

서자 콤플렉스를 가졌던 허균는 홍길동전을 남겼고, 역시 서자였던 허준은 동의보감을 남겼다.

안씨패훈과 같은 맥락의 지혜로서 우리 조상들이 영향을 받았던 '낙상매'라는 교훈이 있다. 실학자 이덕무가 소개하는 낙상매에 따르면, 어미 새는 새끼 매를 먹일 때 높이 하늘에 떠서 먹이를 떨어뜨린다. 그 먹이가 깃 속에서 어미를 바라보는 새끼들 바로 위로 떨어진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새끼들은 그 먹이를 차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개중에는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놈도 생긴다. 어미 매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먹이를 얻으려다가 실패하여 다리를 다친 낙상매인 것이다. 왜냐하면, 새끼 때에 낙상한 매는 그 결함이나 열등 보상으로 인해서 별나게 사납고 억샌 매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어미 매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자칫 새끼 매를 죽이게 될지도 모를 낙상을 먹이로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낙상매는 진상품으로 금테로 발찌를 하여 임금의 사냥에 사용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한다.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

1997년 2월 19일 93세를 일기로 숨진 등소평(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기적을 연출해낸 '개혁의 설계사'요, 12억 가까운 중국 사람들의 민생고를 해결한 '오척단구의 거인'이오, 세 차례나 정치적 좌절을 극복한 '오뚜기'라고 불리고 있다. 그의 키는 불과 150㎝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모택동 주재의 중국공산당 정책

회의에서 한 중요 안건을 두고 기립표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등소평 한 사람만이 기립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 때 모택동은 일어선 사람의 키나 앉아있는 사람의 키나 피장파장이므로 만장일치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계속 진행하려 했다. 그러자 등소평이 책상 위에 올라서서 반대의사를 재확인시켰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한 나폴레옹의 키는 155cm 정도였다.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책을 쓴 에리카 킴도 키가 155cm밖에 안 되는 여성이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어려움과 신체적인 열등감을 한국인의 특유한 오기로 극복하였다. 그 결과 스물 일곱 살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지금은 법률회사를 설립하여 재미교포들을 열심히 돕고 있다.

95년도 춘천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황영조 선수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우승한 에콰도르의 롤란도 베라는 키가 155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그 작은 키로 42.195km를 시속 20킬로미터로 달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타이론 보그스는 키 2미터가 넘는 장신들의 제전인 미국 NBA 농구선수들 가운데 불과 163cm밖에 안 되는 작은 선수이지만, 주전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낙제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

아인슈타인은 대학입시에 떨어져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결국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낙제생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아마 발명왕 에디슨이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머리가 우둔하다고 초등학교에서조차 퇴학당하였지만 1,000여 가지의 제품을 발명한 사람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퓰리처상을 수

상한 저널리스트이며, 대우자동차 CF에 출현했던 칼 번스타인도 학창시절 낙제생이었다. 학교 숙제보다는 부친이 가지고 있던 『I. F 스톤즈 위클리』라는 책읽기를 더 좋아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 쓰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작문 시험에는 합격하고 다른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곤 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가운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링컨은 인물도 못났고, 초등학교를 아홉 달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흑인 노예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일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세상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거머쥔 할리우드의 미녀 스타들 가운데도 신체적인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다.

영화 '배트맨'의 여주인공 미셸 파이퍼는 어렸을 때 비뚤어진 입과 휘어진 코로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킴 베이싱어는 두꺼운 입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항상 놀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녀의 두꺼운 입술은 훗날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되었다.

타이러 뱅스는 어린 시절 뚱뚱한 몸매와 큰 머리 때문에 남자애들로부터 늘 놀림을 받았지만, 모델계의 흑진주로 불리고 있다.

니콜 키드먼은 창백할 정도의 흰 피부와 뻣뻣한 머리털에도 성공한 배우이다.

신디 크로퍼드는 데뷔 초기에 "입가의 점을 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의 입가의 점은 메이크업으로도 가

려지지 않을 만치 커서 천박해 보이는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크로퍼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큰 점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이자 트레이드마크로 만들어냈다.

바울은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자칭 사도'라는 비난을 받았고, 신체에서 풍기는 권위가 없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는 공격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첫째,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했다. 둘째,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했다. 셋째,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했다. 넷째,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하다'고 말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생각했다. 약점들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다. 콤플렉스를 발전의 도약판으로 삼았다. 그 결과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바울은 적대자들이 약점을 잡아 공격을 가하는 바로 그 점을 오히려 만족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자랑하였다.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는 신념을 가졌다. 그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6. 실명을 극복한 강영우 박사

(요 9:1-3; 요일 5:4)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여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석 박사학위를 받고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인디애나 주지사 재활 정책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고, 국제로터리클럽 청년 봉사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국제로터리클럽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국제로터리클럽 75주년 기념 봉사 인물 75인 중의 한 사

람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 사람과 부인의 이름은 미국 교육계 저명인사 인명 사전에 올라 있다.

이 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들은 미국 최고의 명문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여 한국인의 우수함을 빛내고 있다. 이들 두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 성극을 발표하기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평신도이지만 설교도 하고 또 그들의 설교문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성경과목을 일등으로 이수하는가 하면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성경공부반도 만들어 인도를 한다.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강영우이다. 그는 열 다섯 살 때인 중학교 3학년 때에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맞아 소경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소경이 되기 2년 전인 열 세 살 때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 가셨고, 소경이 된지 일 년 만에 아들이 영구히 장님이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어머니가 뇌일혈로 돌아 가셨다. 목사가 되겠다던 아들이 안마사나 길거리의 구걸 행인이 될 것을 생각한 나머지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이제 맹인 소년 강영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고아가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 가신지 다시 일년 사 개월만에 가장이었던 누나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학업을 중단하고 네 식구의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에 나서야만 했던 누나는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삶의 의지를 잃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18세의 꽃다운 나이였다.

16세의 맹인 소년 강영우는 아홉 살 짜리 여동생과 열 세살 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 불과 4년이란 짧은 세월에 양친과 누나와 시력을 모두 잃고 어린 두 동생을 껴안고

절망에 몸부림을 치며 울어야 했던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은 강영우의 집안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고 말했다. 집안 대대로 섬기던 조상들의 신이 노해서 벌을 준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소경인 자신이 동생들을 돌 볼 수 없기 때문에 남동생은 철물점에서 먹고 자고 심부름을 해주면서 저녁에는 야간학교에 다녔고,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어졌다. 그리고 자신은 공병우 박사가 세운 맹인 재활원에 입소해서 타자와 점자를 익혔다. 그리고 서울맹학교에 입학했다. 낮에는 맹학교에서 안마술과 더불어 공부를 했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다.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져 다치기도 하고 맹인이라 재수 없다고 버스 차장까지도 밀쳐 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학원을 계속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원 봉사자들과 재정적인 후원자들을 붙여 주셔서 대입준비를 할 수 있었고, 맹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수모를 극복하고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10등으로 입학을 했고, 사 년 후에는 2등으로 졸업을 했다. 한 체육교수의 편견만 없었다면 그는 수석졸업도 가능했었다. 연대를 졸업하자마자 훌륭한 부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장애인은 유학할 수 없다는 법적 불평등 조항과 국가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비자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는 3년 8개월만에 두 개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아 냈다.

어떠한 동기와 정신력이 고아요 맹인인 강영우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였을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별따기처럼 어려운 박사학위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의 신앙고백의 내용은 '역경 속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실명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역사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가 강하고 두뇌가 명석해서가 아니다. 실명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다. 비록 실명 때문에 사물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시력이 없을 뿐이지 정상인과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정상인들보다 못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상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언제나 자신도 정상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그는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지 않았다. 강의실을 옮길 때마다 안내를 받고 책을 읽어 받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상인 친구들을 도울 길을 찾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강영우 박사 부부가 쓴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란 책에 실려 있다. 맹인 강영우 박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 때는 원망스럽고 두려웠던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의 고통 속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고난을 딛고 일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또한 장애인 재활을 통한 국제 이해와 우호 증진에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도구로 인해서 나의 실명에 감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가리라."

그는 한 때 실명의 절망과 무서운 고독 속에서 시력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신의 빛대신 실명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능력과 정열을 주셨다. 실명으로 인한 성취가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이나 지적인 능력을 통한 성취보다 더욱 고귀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 때 배고픔을 참다못해 희미하게 남은 시력으로 한사코 별을 찾으며 부유함을 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던 때도 있

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대신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정을 주셨다.

그는 한 때 멸시와 천대 속에서 권력을 가진 강자가 되어 남의 대접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자가 되는 권력대신에 약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주셨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탓도 부모의 죄 탓도 아니란 사실에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실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런 확신과 믿음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컸다.

바울은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신체의 장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다. 바울은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첫째,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신체적인 불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둘째,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했다. 뛰지 못함을 아는 거북이가 쉬지 않고 걸었을 때에 뛸 수 있는 토끼를 이겼다는 이솝의 우화처럼, 느린보 거북이가 '나는 달리는 토끼와 경주하여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주하여 이긴 것처럼, 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온전하여진다고 믿었다.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한 인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였다. 그는 약점들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다. 굳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

내 놓고 자랑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을 가하며 견디기 어려운 인격적인 수모를 가하는 바로 그 점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기뻐하며 자랑하였다.

넷째,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하다'고 말했다. 약점을 강점으로 생각한 것이다. 낙상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약한 것이 강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한다. 낙상매가 비록 다리는 병신이지만, 뛰어난 사냥매이기 때문에 사냥꾼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신앙은 강영우 박사가 불행했던 과거와 실명으로 인한 고통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의 약점을 통해서 봉사하고 기여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배운 것이다. 강영우 박사는 말한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역사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열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만일 두 개의 문이 다 열리면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망설이다 길을 잘못 드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영우 박사가 소경이 된 것은 이미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신체적인 장애를 갖게 된 것도 이미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문이 닫힌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문을 여시는 때임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7.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

(몬 1:10-19)

기독교의 가르침은 흑암에 빛을, 혼돈에 질서를, 죽음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복음이다. 신약성서 곳곳에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이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고 적고 있다.

옥중에서 쓰여진 이 서신은 바울이 개인에게 쓴 유일한 편지로써 노예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편지는 지금의 터키 중서부쪽 브루기아 지방에 사는 빌레몬에게 보내졌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유복하고 독실한 기독교이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서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친 것 같다.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치는 일은 중대한 범죄였다. 도망자는 붙잡히면 도망자(fugitivus)란 단어의 첫 자인 F자를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찍힌 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당시에 노예는 말이나 노새와 동일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도 있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던 것이다. 동물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카토(Cato)란 사람은 농장경영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늙은 소는 팔아버리고, 병든 짐승, 쓸모 없는 양털과 가죽, 낡은 짐수레나 농기구들, 그리고 늙고 병든 노예는 없애버리도록 경영주에게 권하고 있다.

바울 당시에 노예의 수는 굉장히 많았다. 대개는 전쟁 노예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수께서 출생하던 시기에 어떤 사람은 내란으로 재산 손실을 입고서도 여전히 4,16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트리말키오란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노예만도 하루에 남자아이가 30명이고 여자아이가 40명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물건처럼 매매 되고 있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처럼 진열해 놓고 있었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노예를 찔러 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보기도 하고, 주위를 걸어 보게 한 후에 값을 흥정해서 구매했다.

노예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잔인한 벌을 받았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길들인 메추라기를 우연히 죽게 한 노예를 십자가에 못박아 처형했다. 90년 경 사도 요한의 때에 기독교를 박해한 도미티안 황제는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데웠다고 노예를 화로에 태워 죽었다. 베디우스 폴리오는 수정으로 만든 잔을 떨어뜨려 깨뜨린 노예를 연못에 집어던져 칠성장어에게 산 채로 뜯겨 죽게 했다. 먼지 한 점 묻은 것, 은 조각 하나 잘못 닦은 일, 파리를 쫓지 못한 일, 식탁을 바로 놓지 못한 일, 의자를 바로 놓지 못한 일,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재채기하거나 기침하거나 말 한마디 속삭인 일, 술시중이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하지 못한 일 등으로 노예들은 채찍을 맞거나 매를 맞았다. 여주인들도 자기 하녀들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만져주지 못하면 손톱으로 하녀를 할퀴거나 채찍질했다. 주인이 살해되면 노예들도 처형당했다. 페디아누스 세쿤두스가 살해되었을 때에 처형된 노예가 무려 4백명이 넘었다고 한다.

물론 노예들에게 친절했던 주인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형제라고 믿었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노예들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당시 플리니는 병든 노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보내기도 하고, 회복을 위해서 친

구의 농장에 보내기도 했다. 그는 노예가 너무 늙기 전에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또 몇몇 지식인들이 노예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친절이 동정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었다. 노예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노예를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취한 태도는 진흙 속에서 빛나는 진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친 죄수였다. 법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F자를 새기고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달랐다. 바울은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참 자유와 해방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은 새롭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노예 신분의 변화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예처럼 비참한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노예가 되며, 노예도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여기에 첨가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때 오네시모는 변화되었다. 오네시모는 '쓸모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전에는 아무 쓸모 없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진정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제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복음의 일군으로 동역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써 영접해 줄 것을 간청했다. 오네시모가 손해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되돌려보내 줄 것도 부탁했다. 바울은 11절에서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고 설명하면서, 16절에서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게랴."고 말하면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노예 이상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접하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다.

첫째, 바울은 흑암같은 감옥에서 빛을 잃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오네시모에게 참 빛을 찾아 주었다.

둘째, 기독교의 복음은 혼돈한 삶 속에서 방황하던 오네시모에게 안정된 삶의 목표를 주었다. 그는 쓸모 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자신의 이름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셋째, 오네시모는 죽음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생명 있는 형제의 삶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천한 노예에서 사랑 받는 형제로 다시 태어났다.

넷째, 오네시모는 천한 노예에서 위대한 감독으로 높은 신분의 상승을 맛보기도 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쓸모 없던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다.

주후 107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바울처럼 로마로 끌려가 화형(이그나티우스는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게 하는 처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함)에 처해졌는데, 잡혀가는 도중에 그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감독에 대해서 부탁의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만한 자격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엡 1:1).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오네시모였다. 도망자 노예가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이다.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인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속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섬김을 받은 교회이며, 요한이 말년에 섬긴 교회이기도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함께 다섯 개의 최고 감독 교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동서방 교회를 통틀어 다섯 명의 최고 감독직 가운데 한 석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다.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기록은 실로 엄청난 변신이 아닐 수 없다. 동물처럼 취급받았던 천한 노예 도망자가 감독 중의 감독인 다섯 명의 총감독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위대한 변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은 수많은 기독교

인들의 변신들 중의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변화된 위대한 삶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성서 자체가 진리를 발견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체험기란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수를 믿고 변화 받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서의 이야기이다. 성서는 이제 66권으로 마감이 된지 이 천년이 흘렀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제11장 기독교인의 감사의 삶

1. 감사의 기적(1)
2. 감사의 기적(2)
3. 감사, 그 역설적인 표현

제11장
기독교인의 감사의 삶

1. 감사의 기적(1)
(요 6:1-13)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뺀 13세 이상의 남자만 무려 오 천명이 먹고도 남은 음식이 열두 바구니에 찼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다.

그런데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가 변하여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데는 단지 두 종류의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한 소년이 자신의 음식을 예수께 드린 정성이 담긴 감사이다. 둘째는 이 음식을 받아든 예수께서 하나님께 축사를 드린 감사이다. 우리말 성경에 쓰인 '축사'란 말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εὐχαριστέω)를 번역한 말로써 '감사하다'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가장 유명한 기적이 한 소년의 정성어린 감사의 드림과 예수의 감사의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래서 감사에 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한다.

첫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늘 감사해야한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수는 없다. 인간사회란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사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고,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감사표시를 해야 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감사의 방법이고, 둘째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감사의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방법은 말로써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 단계의 감사의 방법은 선물로써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약간의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감사는 말로써 하든지, 혹은 선물로써 하든지 간에 기적을 낳는다. 어린 소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께 드렸을 때에, 또 예수께서 말로써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다.

고마움을 말로 표현해서 소득을 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어느 해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다. 이 노부부는 어느 날 동네 공터에서 놀고 있는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바싹 마른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곧 집에서 빵을 여러 개 구운 뒤 그것을 공터로 가지고 나와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바구니에는 너희들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모두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주마."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고, 크다 생각되는 빵을 집어들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늘 모두가 빵을 다 가져간 뒤에야 마지막 남은 작은 빵을 집어드는 소녀가 있었다. 크레첸이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언제나 가장 작은 빵이 자신의 차지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노부부는 그런 크레첸을 매우 기특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노부부가 나눠준 빵을 감사히 받아들고 돌아온 크레첸은 동생과 함께 먹기 위해 빵을 쪼개다가 그 안에서 반짝이는 은화 여섯 닢을 발견했다. 크레첸은 깜짝 놀라 얼른 은화를 가지고 노부부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크레첸을 향해 빙긋이 웃으시며 말했다.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 넣은 거란다. 크레첸, 네게 주는 선물이다." 할아버지는 크레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고마움을 선물을 표시해서 소득을 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가 어느 해에 무를 밭에 심었더니, 농사가 잘 되어서 거의 사람 몸뚱이 만한 무를 수확했다. 농부는 이렇게 잘된 무를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웠다. 이 농부는, 농사가 잘된 것이 그 고을을 잘 다스려 준 원님 덕분이라 생각하고, 그 무를 잘 포장해서 원님께 갖고 갔다. 원님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칭찬한 뒤에, 하인을 불러 요즘 관가에 들어 온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인은, 최근 들어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 온 것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그 황소를 끌어다가 이 농부에게 주라고 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무 한 개를 바치고, 그 대신에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다. 이 소문이 온 동리에 퍼졌다. 그런데, 그 마을에 심보가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무 한 개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얻었으니,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이

번에는 땅이라도 몇 마지기 얻을 수 있겠지!"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 갔다. "원님,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황소를 길러 왔습니다만,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다 원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신 덕분인 줄 알고, 이 황소를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농부의 마음씨가 착하다고 칭찬한 다음에, 하인을 불러 요즈음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귀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인이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들어온 크고 잘 생긴 무가 있다고 했다. 원님은 그 무를 이 농부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 농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농부는 별 수 없이 무 한 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행한 것처럼 진실한 고마움의 표시는 소득을 낳고, 때로는 큰 기적을 낳기도 한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을 주셨다. 제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란 주제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것이나 자주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 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존재하는 것,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재계약을 맺으시는 것, 재림을 미루시며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대신 것,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등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장황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몫인 저주와 죽음을 취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몫인 축복과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셨다. 숨겨놓고 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하셨다. 이제는 우리 차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할 차례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먹을 것, 입을 것, 학비, 책값, 교통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부모에게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한가지뿐이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일이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라면, 아마 효성을 다할 것이다. 부모의 뜻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할 일도 감사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것이다.

학교나 교회의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다 잘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급료를 받아가면서 한다지만, 교회의 선생님들은 자기 돈과 시간까지 바쳐가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은 잘 듣는 편이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들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다. 교회의 선생님들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는다. 대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희생하신다. 이런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치 않는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분의 일뿐이다. 하나님께서 열 개를 주시면서 하나만 되돌려 달라고 말씀하신다. 부유하고 친절한 동네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사탕 열 개를 주셨다고 가정해 보자.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 열 개는 모두가 그 아이의 것이 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하나만 자기가 먹게 달라고 했다고 하자. 독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탕을 열 개나 주신 분이니 하나쯤 얼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어리석은 아이가 열 개를 받고도 그 중의 하나를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부유한 할아버지가 열 개를 주고 하나를 되돌려 달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가 아쉽거나 욕심이 나서 달라고 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이기를 바래서였을 것이다. 나누어 줄줄 아는 아이이기를 바래서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십분의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할 줄 알고 또 나누어 줄줄 아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감사는 마치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것이다. 수십 년 전에는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먹었다. 그러다가 생긴 것이 펌프이다. 또 펌프를 대신한 것이 상수도이다. 공동펌프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펌프의 고무파킹이 쉽게 닳아져 펌프에 물이 고여있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대개는 다음 펌프질을 위해서 큰 플라스틱 물통을 놓아두고 물을 담아둔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쓰려는 사람이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담아와서 물 빠진 펌프에 물을 부어가며 펌프질을 해야한다. 그런데 만일에 펌프에 부어줄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많은 물이 샘에 고여 있다할지라도 물을 길러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바로 한 바가지의 물과 같다. 한 바가지의 물을 되돌려 줄 때, 얼마든지 물을 길러 먹고 쓸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감사는 그것이 말을 통해서이든지, 혹은 선물을 통해서이든지, 언제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2. 감사의 기적(2)

(살전 5:16-18)

앞글에 이어서 감사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감사는 기쁨을 가져다준다. 감사로 인한 혜택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앞글에서 요한복음 6장 1-13절을 통해서 한 소년의 감사로 인해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되는 큰 혜택을 입게된 장면을 살펴보았다. 크레첸이란 어린 소녀의 감사로 인해서 배고픈 가족들이 음식 살 돈을 얻게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착한 농부의 감사로 인해서 가족을 위해 일할 큰 황소를 얻게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이와 같이 감사는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고생 끝에 백화점 사업으로 10

대 재벌에 들고, 재무부장관이 되고, YMCA 창설자가 된 존 워나메이커가 10억 원 상당의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서 주일학교 시간이 끝나자마자, 벽돌을 굽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잠버드 목사는 내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단독으로 10억 원 상당의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을 하게 되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글에서 한 소년이 예수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감사함으로 바쳤고, 예수의 축사 후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린 소년 존이 한 수레의 벽돌을 교회에 바쳤고, 목사의 축복기도 후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감사의 바침과 목사의 감사의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정성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바쳐야겠고, 목사도 정성어린 감사로 축복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존 워나메이커의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얻게된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딸린 수 천명의 식구들이 빵을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박해석의 글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기쁜 마음으로

너희 살을 떡처럼, 떼어 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희 피를 한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 달라고 하지 않으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그만 틈을 벌려 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 작은 곁을 내어 주는 것,

기쁜 마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사냥이나 골프에 빠져서 가족을 일체 돌보지 않는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광고를 신문에 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광고를 내니까 관심 있는 여성들로부터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살아 있다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라"는 한 과부의 충고가 있었고,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는 한 주부의 조언이 있었고,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어려웠었다"는 이혼녀의 충고가 있었고, 더러는 "남편 말고 개만 줄 수 없느냐?"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감사는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감사가 없으면 이 부인처럼 불평과 불만만 생기게 한다.

둘째, 감사는 건강을 가져다준다. 한때 이상구 박사의 T 임파구(淋巴球) 학설이 한국인의 건강관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상구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매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면, 병이나 암에 대한 자체 저항력인 T임파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학설이 설득력을 갖게 된 이유는 인체의 생리가 정신에 의해서 많은 부분 지배된다는 의학적 조명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한국의 건강과 장수철학에서도 분에 넘게 놀라거나 성내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의심

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면 음양의 조화가 낮아져서 병이 생기고, 덕담을 하며, 매사에 대범하고 편하게 살면 조화가 켜져서 있던 병도 고쳐지고 건강해진다 하였다.

이런 감사철학으로 장수를 누렸던 사람이 황희(黃喜)이라고 한다. 황희는 인기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씨 조선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5대 임금을 섬긴 정승이다. 황희는 종(奴婢)의 자녀들이 사랑방에 들어와 옷을 밟고 수염을 뽑고 공문서에 오줌을 싸도 노여움 없이 웃으며 손수 훔치곤 했으며, 그의 집 배나무에다 아이들이 돌팔매질하여 잘 익은 배가 뜰 안에 떨어지면 그 배를 주워서 담 밑에 숨어 있는 아이들에게 갖다주게 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황희는 불교정책을 두고 성균관 학생들이 과격하게 시위하며, "네 따위가 소위 정승이 되어 임금의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윽박지르자 "너희들의 이만한 기개 없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감사했다고 한다. 이런 감사 생활 때문에 황희 정승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수가 있었다.

이런 감사철학을 실천에 옮기려고 조선의 선비들은 일곱 모가 난 주사위를 만들어 염주 굴리듯이 손아귀에 굴리며 살았다고 한다. 주사위의 일곱 개 면에는 사(謝, 사례할), 인(忍, 참을), 찬(讚, 기릴), 과(過, 지날)와 같은 일곱 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① 하루에 감사하는 말을 세 번 하라, ②홧김에 나오는 말을 세 번 참아라, ③칭찬하는 말을 세 번 하라, ④잘못했다는 말을 세 번 하라, ⑤세 번만 꾸짖지 마라, ⑥세 번만 탓하지 마라, ⑦세 번만 헐뜯지 마라는 일곱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감사 생활은 건강을 가져다준다.

셋째, 감사는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준다.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 매력적인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한다. 영육간에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자의 생활은 불행하게 된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의 문학자는 예수께서 과거에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들을 그 후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꾸며보았다.

예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은 술 주정꾼이었다. 그는 폐인이 다 된 젊은이였다. 예수께서 물었다. "당신은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소?" 술 주정꾼이 대답했다. "내가 앉은뱅이였을 때, 당신이 나를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닌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 동안 직업을 구해 보았지만, 만족할만한 직업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창녀였다. 그 여자는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물었다. "당신은 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소?"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고독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불량자였다. 그 불량자는 이웃과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다. 예수께서 물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소?" 불량자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였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게 하는 것들뿐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는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치고 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 단편은 은혜를 감사로 살려 빛을 내지 못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참으로 거대한 것이다. 우리가 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혹은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참으로 거대한 것이다. 앉은뱅

이가 고침을 받고, 창녀가 새사람이 되며,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감사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이 되는 생활로 자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출발해놓고서도 옛 사람의 행실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컸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자랐다.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감사표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배경도 있었다. 나를 도와준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내가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감사표현은 잠시도 주저하거나 보류해 둘 것이 아니다. 그때그때 바로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좋은 생각』 97년 12월 호에 실린 '야전잠바 이야기'의 저자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감사하지 못한 경험을 회고하고 있다.

이 글의 저자인 정용철(발행인)은 20년 전 적근산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소대장이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이만섭 하사가 제대할 때에 그가 아껴 입었던, 제법 값이 나가고 제대 후에도 검정 물을 들여 입으면 좋을 두툼한 미제 야전잠바를 주고는 제대를 하였는데, 가정 형편도 어려운 그가 잠바도 없이 살을 에는 추위 속을 걸어 막막한 사회로 떠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이 내내 부끄럽고 후회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가면서 녹지 않는 후회란 물질로 손해본 큰 실패나 인간관계의 극적인 갈등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실수와 갈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선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 사랑에 애탈 때 사랑의 눈빛 한 번 주지 않은 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기회를 놓친 일,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한 일 등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위로와 감사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나타난 일들이 우리 가슴에 오래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된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 마찬가지이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언제 어디서나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복을 끌어들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오는 복도 차단한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의 말씀은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3. 감사, 그 역설적인 표현

(빌 1:1-6; 살전 5:16-18)

서울연세의료원(세브란스) 심장병동 병실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걸려 있어 입원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 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기독교인의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빌립보는 금과 은이 많은 지역으로써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였다. 또 빌립보는 주전 27년에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우스가 삼두통치 때인 주전 33년에 안토니우스와 힘을 합쳐 로마공화정의 마지막 옹호자이며,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와 케시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제국을 탄생시킨 전투지었으며, 전투이후 로마의 직할시로 책정된 도시였다. 따라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시민권의 소유자였으며, 자치와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면제와 이태리에 사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다.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곳이며,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최초의 장소이다. 마게도냐는 칼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복음으로 온 유럽을 정복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노예소녀와 감옥의 간수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로써 몹시 가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고 풍성한 연보로 선교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의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며, 바울이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노래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뿐 아니라, 자신의 투옥이 결단코 복음의 퇴보

가 아님을 알리고, 선교헌금을 가져다 준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기쁨'에 관한 단어를 열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 편지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노래라면,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노래로 세워진 교회이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실라와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도착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으나 전도의 대상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실제로 많은 수의 헬라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성문밖에 흐르는 강가로 나가 보았다. 마침 강가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가운데 지금의 터키 지방인 두아디라성에서 자주 색 옷감 장사를 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가족과 함께 침례를 받고 기독교에 개종했다. 그날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이 마음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했다.

바울 일행이 다시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노예 소녀를 만났다. 이 노예 소녀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을 좇아 다니며 소리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

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여러 날을 심하게 괴롭혔다. 이 일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소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좇아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노예 소녀의 주인들은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공무원들에게 끌고 갔다. 공무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성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들에게 끌고 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했다. 재판석에 앉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곤장을 치게 한 후에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단단히 가두어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워 도망할 수 없도록 단단히 묶었다.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옥중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불렀다. 이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풀렸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 때 바울이 간수를 불러 죽지 말도록 말렸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들 가운데 아무도 탈출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일 후에 간수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때 바울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은 간수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곳을 치료해 주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식구가 되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른 감사의 찬양은 기독교인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찬송은 그들 자신들을 옥중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벗고나서 모세의 영

도아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숫한 고생과 역경을 겪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원주민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으며, 풀과 물을 찾아 떠돌던 유목생활에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싸움을 오랜 세월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첫 소산으로 일년에 두 차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다. 그들이 감사절을 지킨 것은 그들이 차지한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였고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토지의 대부분은 중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황무지였고, 고인물이 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이었다. 수확이 풍성할 리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경 중에서 드린 수장절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청교도들도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윌리엄 브라드포드의 영도 아래 좁은 배속에서 66일을 바다 가운데서 고생했으며, 첫 겨울에는 47명의 사망자를 묻어야 했다. 신대륙을 밟은 후에도 인디언들의 잦은 공격과 질병과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뱃삯으로 진 빚이 이자가 늘어 눈덩이같이 불어났다. 이런 와중에서도 청교도들은 미국에서 얻은 첫 소산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렸다. 이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바친 것은 그 해의 수확이 대풍작이었거나 다가오는 미래가 무지갯빛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눈물과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그들의 현실은 힘겨웠던 항해와 수많은 역경과 가족을 잃은 슬픔과 닥쳐올 원주민들의 습격과 혹한과 폭설에 대한 걱정과 그 나마 힘겹게 거둔 초라한 수확을 앞에 놓고 드린 뜨거운 눈물의 감사예배였다. 청교도들이 역경 중에서 드린 추수감사 예배는 기독교인의 감사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역설적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흑암에서 빛을 보고, 혼돈 중에서 질서를 추구하며,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확신하는 삶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고 또 성공했다.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해야 할 때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 찬양할 일에 찬양하는 것, 기도할 일에 기도하는 것,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것을 누군들 못하겠는가?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그 이상이다.

제12장 기독교인의 긍정적 삶

1. 참 생명
2. 프로의식
3. 삶의 용기
4. 기독 청년의 바른 가치관(1)
5. 기독 청년의 바른 가치관(2)

제12장
기독교인의 긍정적 삶

1. 참 생명
(롬 8:5-6)

생명(生命)이란 무엇일까? 오래 전 학자들은 생명을 "단백질의 존재양식"이라고 했다. 이 말은 생물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대사를 생명현상의 기본으로 간주한데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질대사는 엔트로피법칙에 따라 생명과는 반대현상인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 가기 때문에 단백질 또는 물질대사만으로 생명을 정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모든 생물의 유전정보(遺傳情報)를 담고 있는 DNA를 생명의 기본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물질이나 육체에서 찾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 물질이 아닌 영혼을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영혼이 있고 없음의 차이로 설명한다. 영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고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보통 사람의 생명을 설명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란 성령이 있고 없음으로 설명한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가진 사

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간주된다.

몸은 살아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목숨이나 육신보다도 정신이나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막 4:12)이라고 하였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계 3:1)라고 하셨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육체적인 것에서보다는 정신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5-6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고 하였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 가운데 로마나 중국의 황제들 또 조선의 임금들을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의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보존코자 했던 생명은 대단히 짧은 것이었다. 중국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9세였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7세였으며, 우리 나라 조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은 그보다 조금 긴 43세에 불과했다.

수명이 그토록 짧았던 이유는 10대 전반부터 수많은 후궁들 속에서 과도하게 성생활을 하였고, 정력제에 해당하는 보약을 자주 복용하여 독이 몸에 쌓였기 때문이었다.

'주례(周禮)'라는 책에는 끝없이 늘어나는 후궁(後宮)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후(后)가 1명, 비(妃)가 3명, 빈(嬪)이 9명, 부인(夫人)이 21명, 세부(世婦)가 27명, 여어(女御)가 81명, 도합 142명이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한(前漢)의 원제(元帝)는 2천 명의 후궁을 거

느렸고, 당(唐)의 현종(玄宗)은 겉으로는 122명의 후궁을 거느린 척하면서 뒤로는 양귀비(楊貴妃)를 비롯한 4만 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한다. 이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절히 얻고자했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마 16:26)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98년 6월 24일날 예술원에서 '김세중 조각상' 시상식이 있었다. 마침 잘 아는 분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참석했었다. 필자가 듣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주는 조각상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했다. 조각가 김세중은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충무공 이순신과 유관순 동상을 만든 분이다. 김세중은 십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되신 김남조 시인이 남편 김세중 교수를 기념하고 한국의 조각발전을 위해서 사재를 떨어 만든 상이 바로 '김세중 조각상'이었다. 문화부 장관이 나와서 축사를 했고 국내 유명 예술가들이 다 모였던 자리였는데 이 시상식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생명'이었다. 김세중 교수는 카톨릭교회 조각상을 많이 남겼고, 그의 부인 김남조 교수는 기독교 신앙 시들을 많이 쓰신 분이다. 김세중 교수의 육신은 십여 년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어 후배 조각가들을 위해서 쓰일 때 그의 생명은 살아서 그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나하고 까지도 인연을 맺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의 기독교적 희생정신이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어 우리 곁에 있게 한 것이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짐으로써 비록 그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참 생명만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 남아서 지난 2천년을 지배해오고 계신다.

이 귀한 생명은 그것이 값진 것인 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할

경우들이 있다. 앞서 말한 조각가 김세중 교수의 부인되신 김남조 시인의 글 가운데 '생명'이란 제목의 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돗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98년 7월 첫째와 둘째 주간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TV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기막힌 기간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월드컵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윔블던테니스대회가 있었다. 또 미국에서는 LA다저스의 박찬호 투수가 98년 6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서 6승째를 거둔데 이어 7월 3일에는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도 이겨 8승째(5패)를 올렸기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7월 둘째 주에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5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골프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 우리 나라 박세리 골퍼가 연장전 끝에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박세리의 이번 승리는 몇 개의 기록을 갱신한 위대한 승리였다. 연속 2개 메이저대회 최연소자 우승, 한해 연속 2개 메이저대회 우승, 데뷔 첫 해에 2개 메이저대회 우승, 동양인 첫 2개 메이저대회 우승, 최장 연장 라운드가 바로 박세리 골퍼가 지난주에 세운 대기록들이다.

21세밖에 안된 처녀 박세리가 7월말까지 받은 10억 원 정도의 상금과 삼성이 그녀를 위해서 쓴 64억 원 정도의 투자비는 그녀의 상품가치와 그녀가 앞으로 벌어들이게 될 돈에 비하면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골프를 통해서 이룬 업적은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에만 있지 않다. 박세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 나라의 홍보효과는 수많은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나가 벌리는 홍보효과보다도 크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업적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데 있다.

이 대회 연장 라운드에서 박세리는 제니 추아시리폰에게 전반을 뒤지다가 후반 들어 게임을 역전시켰고, 그 뒤에 다시 동점으로 밀렸다. 그리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티샷을 잘못 날려 호숫가(워터 해저드) 경사 풀밭(러프)에 빠뜨림으로써 거의 확실한 패배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박세리는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가 공을 쳐냄으로써 게임을 무승부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연이어서 벌어진 홀 바이 홀(hole by hole) 서든데스(sudden death) 즉 급사(急死)방식의 연장전은 10번 홀부터 시작되었는데, 10번 홀에서 비기고 1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음으로써 추아시리폰을 물리치고 극적인 승리를 해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박세리 골퍼의 US여자오픈골프 메이저대회 승리를 그녀의 강인한 승부근성과 뼈를 깎는 훈련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연습 벌레'가 아니면 감히 정상에 도전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박세리의 골프철학이자 모토라는 것이다. 지난 96년 10월 일동 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세계 정상의 골퍼들과 겨루어 박세리는 당당히 3위에 오른 뒤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이 될 정도로 울었다고 한다. 모두들 처음엔 감격의 눈물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3등에 그친 데 대한 억울함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박

세리의 승부정신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 승부정신이 결국 오늘의 박세리는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시합을 끝내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박세리는 우승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홀이 몇 번 홀이었느냐고 묻자, "연장 라운드 18번 홀에서 티샷한 공을 호숫가(워터 해저드) 경사 풀밭(러프)에 빠뜨렸을 때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박세리 골퍼의 삶의 철학과 남다른 승부정신이 바로 김남조 시인이 '생명'에서 읊었던 겨울을 이기는 '충전 부싯돌'이자 '생명'인 것이다. 겨울의 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듯이 진실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승리와 같은 것들은 면돗날 같은 매서움과 싸우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불에 타거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값비싼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련이 아무리 크고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충전 부싯돌'의 역할을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임마누엘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과 승부정신을 갖는다면, 부싯돌은 언제라도 불씨를 만들어 낼 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싹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2. 프로의식

(살후 3:6-12)

어떤 한국 기업체의 런던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정년 퇴임한 한 영국 노인을 지점의 수위로 채용

했었다고 한다. 수위란 문간에 앉아 안내나 하고 감시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수위 노인은 그 일 말고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함으로써 자기의 일을 즐겼다. 이를테면 그 앞길에 한 주부가 아이를 힘겹게 안고 지나가면 쫓아가 그 아이를 뺏어 안고는 달래주며 보도가 끝나는 데까지 안아다 준다든지, 눈이 오면 점포 앞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보도 전체를 쓸어 미끄럽지 않게 하였다.

이 수위 노인 때문에 점포의 이미지가 좋아지자, 지점장은 그 대가로 일하는 시간이 전에 하던 일의 삼분의 일밖에 안되고, 그 대신에 급료는 삼분의 일이나 많은 좋은 자리로 옮겨주기로 하고 통고를 했다. 그런데 통고를 받은 그 노인은 좋아하기는커녕 사표를 써내고는 나가버렸다. 무슨 영문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당장 수위자리가 비어 지방신문에 수위 모집 광고를 냈더니 여덟 명이 응모해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덟 명 가운데에 바로 그 노인이 끼여 있었다. 사표를 써놓고 그만 둔 이유를 물었더니, 그 노인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편안하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수위 일에서 보람을 찾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었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자와(自我)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의식하는 타아(他我)가 있다고 한다. 이 영국 노인뿐 아니라 유럽사람들은 대체로 타아보다는 자아가 강한 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는 타아가 자아보다 강해서 남이 보는 나를 더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은 메이커 상품을 좋아하고, 노동직보다는 사무직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국가마다 나라병이 있다고 한다. 주후 445년 10월에 로마시민들은 제국이 다른 천체와 정면 충돌하여 멸망당한다는 한 예언자의 종말론 때문에 온 로마 사람들이 마음을 조렸다. 그런데 종말이 온다던 날에 죽음을 기다렸던 로마사람들에게 아무런 일

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는지 31년(476년) 후에 로마는 진짜로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의 멸망은 천체에 부딪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맹신과 타락과 사치로 속이 곪아터져 붕괴되고 만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로마제국의 멸망을 '로마병'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그는 조직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그 조직이나 국가의 내부의 적인 사회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힘센 사람에게 맞아 죽거나 차에 치어 죽기보다는 몸이 병들고 속이 썩어서 죽는 것이다.

공산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붕괴는 소련병 때문이었다. 감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감자를 흘리면서 달리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고있던 정치국원 후보 시절의 고르비가 이 트럭을 뒤쫓아갔다. 가서 "감자를 흘리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운전사에게 따져 물었다. 운전사가 말하기를, 자신의 임무는 실어 놓은 감자를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창고에 옮겨 놓는 일이기 때문에 수송 도중에 벌어진 일은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며, 또 수습하려들면 도착 시간에 늦게되어 책임추궁을 받게된다고 하였다. 고르비는 이 같은 공산국가의 질병을 소련병이라고 하였다.

70년대 미국의 철강 도시 피츠버그에서는 US스틸 같은 대규모의 공장마저 견학을 거절했다고 한다. 시설이 노후에서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강철의 나라라는 미국의 제철시설이 포항이나 광양제철의 시설보다 일 백년이나 뒤져있는 것으로 착각될 만큼 시설이 낡아있었다는 것이다. 막강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신기술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는 데다 백인 텃세가 심해서 값싼 유색 인종의 노동력을 살 수 없었으며 생산 원가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경쟁력이 떨어져 사양길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병이다.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돈을 벌면 버는 족족 세금으로 거둬간 후 모든 의식주와 교육, 질병, 노후를 나라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일도 않고 게으를수록 더욱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재미를 잃고 자살을 하게 된다. 이를 복지병(福祉病) 또는 스칸디나비아병이라 한다.

홍부가 박을 따서 첫 번째 박을 켰을 때 외제(外製)상자 하나가 나왔다. 그것을 열어보니, 모두가 중국의 선인(仙人)들이 먹었던 불로초(不老草)와 불사약(不死藥)같은 외제약품으로 가득하였다. 두 번째 박을 켜보니 비단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두가 유명한 외제옷감들이었다. 세 번째 박을 켜보니 갖가지 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또한 모두가 외제들이었다. 네 번째 박을 켜보니 각가지 화장품들이 나오는데 이 또한 모두가 외제들이었다. 다섯 번째 박을 켜보니, 각가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또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외국서적들이었다. 심지어 박속에서 걸어나온 비연(飛燕)이며 양귀비(楊貴妃)까지도 외제일색이었다. 이렇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외제라면 환장하고 못사는 병에 걸려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병이라고 한다.

굳이 또 하나의 병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노동직을 천시하고 사무직이나 관직을 선호하는 병일 것이다.

과거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우리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일자리라고 해봤자 농사 아니면 관직이었다. 더욱이 양반과 상놈의 반상체제가 확고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관직에 오르는 일만이 출세하는 길이었다. 한국역사연구회가 지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제1권 '사회·경제생활 이야기' 편을 보면, 1708년(숙종 10년)에서 1904년(광무 8년)까지 약 200년에 걸친 울산지역 호적을 분석한 글이 나온다. 이 글에 의하면, 조선조 말기로 갈수록 양반 집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민 집안이 감소하며, 노비 집안이 거의 소멸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5퍼센트 정도이던 양반 집안이 66퍼센트로 늘고 있고, 60퍼센트 정도이던 상민 집안이 33퍼센트로 줄고 있고, 14퍼센트 정도이던 노비 집안이 0.5퍼센트로 줄고 있다. 일하지 않는 양반

이 늘면서 노동인력이 줄었고, 노동인력이 줄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졌을 것은 뻔한 일이다.

소위 사대부 집안의 족보라는 것들도 그 내용들을 들쳐보면 가짜가 많다는 것이다.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귀족보다도 농민이 훨씬 많았는데, 이들의 후손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왕족이나 귀족의 후손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들만 남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족보라는 것도 양반이 되고자했던 상민이나 천민들이 양반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것들임에 틀림없다. 족보가 조선 후기에 와서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족보를 갖는다는 것은 곧 양반이 된다는 의미를 가졌다. 반상체제 사회에서 양반이 아니면 상놈이고, 상놈에게는 사회적인 천대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마련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상민들이 군역을 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족보를 위조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성을 바꾸고 조상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족보에 편입함으로써 양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짜 족보를 필요로 했던 것은 상민이나 천민만이 아니었다. 더 훌륭한 가문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싶었던 양반의 경우에도 가짜 족보를 만들어 더 높은 문벌의 가문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교육은 서당교육, 향교교육, 서원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시대의 학생들은 서당을 통해서 예비교육을 받았고, 향교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꿈을 키웠다. 특히 정치 참여의 길을 모색하는 젊은이들은 서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서원은 특정 정치집단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집단세력을 키우는 교육장이었기 때문이다. 양반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관직과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결국 제한된 관직과 좁은 땅덩어리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패를 지어서 쟁투

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당파나 가문 혹은 학파의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서원이 늘어났고, 당쟁이 격화되었으며, 문벌과 학벌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노동을 천시하는 왜곡된 직업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김현구 교수가 쓴『일본 이야기』란 책을 보면, 일본 사람들의 직업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고대 일본에서는 막대한 사유지와 사유민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의 직무를 분담하는 호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직무와 직업은 대대로 세습되었다. 오늘날 일본에서 한가지 직업을 수 백년 또는 수 십대씩 세습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가문을 빛내는 길은 출세가 아니라, 자기 직업에 성실하여 그 분야에서 일본 제일이 되는 것이며, 혈연에 관계없이 직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자연히 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일본의 유명 럭비스타가 아버지가 하시던 조그만 유리가게를 이어받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국민적 인기를 내팽개치는가 하면, 일류대학의 대학원까지 나온 재능있는 청년이 주지승인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기도 하고, 대학의 교수보다는 대학 앞에서 300년 넘게 대를 이어 메밀국수(소바) 파는 일을 더욱 보람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사람들이다.

삼국시대의 불상들은 기법에 있어서는 뛰어나지 못할망정, 거기에는 작가들의 혼이 배어있다고 한다. 삼국시대에 불상을 조각한 사람들은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불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조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조각품들은 조각가가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만 조각한 것이기 때문에 기법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작가의 혼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상품은 단순히 상품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식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거

기에는 그들의 정신이 배어 있고, 그래서 일본 상품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게 되니까 자기 상점을 찾아주거나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주는 고객을 왕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1년에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이 3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스페인에는 200년째 짓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 가우디라는 희대의 건축가가 공들여 설계한 이 성당건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 몇 세대에 걸쳐 아주 조금씩 만들어져 왔고, 완공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하루아침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가 하면, 5년도 안된 건물이 예고도 없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원칙주의'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빨리빨리주의'가 통하는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손 하나 까딱 않고 잠만 자는 놈 꼴 보기 싫어서 누룽지를 허리춤에 채워주며 밖으로 내보냈다. 배가 고파 누룽지를 꺼내 먹고 싶은데 풀기 귀찮아 못 먹고 있는 참에, 저편에서 갓 쓰고 입을 떡 벌린 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허리춤에 있는 누룽지를 풀어주면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입벌린 자가 말하기를, "갓끈이 늘어졌는데 그걸 고쳐 매기 싫어서 입을 벌리고 가는 길이오."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이솝 시대의 베짱이는 눈보라치는 날 개미집 앞에서 내쫓겨 처량한 신세였지만, 현대판 베짱이는 아들 개미 딸 개미에 환대를 받으며 단란주점에 가고, 디스코 추고, 호강하며 겨울을 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근면하던 개미 일가는 몰락하고 만다. 현대판 개미들은 먹고 입고 살만큼 가지면 놀기를 소원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병이라고 한다.

자장면 '번개배달'로 일약 스타가 된 조태훈(30)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97년까지만 해도 고려대 후문 근처에 있는 중국음식점 배달원이었다. 십대후반에 광주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11년 4개월 동안 자장면 배달을 했다. 그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요란하게 치장한 배달용 오토바이와 번개같은 배달 솜씨 때문이었다.

조태훈씨는 배달된 음식의 맛은 그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갓 만든 따끈따끈한 중국음식 맛을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고 일했다. 고려대 학생들 사이에 "번개가 배달할 때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지 말라"는 농담이 돌 정도로 배달이 신속했다고 한다. 그의 요란한 모습도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스스로 고안한 것으로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직업 철학이었다.

금년에 30세가 된 조태훈씨는 지금 '번개반점'이란 상표로 중화요리점 체인사업을 하고 있고, 하루 1백만원 하는 강연료를 받는 유명인사로 변해 있다. 그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음식배달에 대한 자부심과 프로정신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12절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다. 첫째는 규모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근면하라는 것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지간에 한국 제일이 되겠다는 프로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규모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삶의 용기

(롬 6:4)

문학가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를 잠시 살펴보겠다. 영국의 작가 사뮤엘 버틀러(1835-1902)는 편지 중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죽음보다는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1913-1960)는 『겉과 속』에서 "삶에 대한 절망이 없으면 삶에 대한 애정도 없다"고 하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가치가 있다. 삶은 사랑 받아야 한다. 또한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하였다. 스위스의 작가 야콥 보스할트도 일기에서 "죽음이 없다면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탈리아의 극작가 비트리오 알피에리는 "대부분의 경우 죽으려고 노력하는 쪽보다 살려고 노력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검은 양떼가 거닐고 있는 얕은 돌산이 있다고 한다. 이 돌산을 '배신자(背信者)의 동산'이라 부르는데, 이 동산에 돌무더기에 묻혀 썩어 가는 한 그루의 올리브 고목(古木)이 서 있다고 한다. 스승인 예수를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삼십에 판 유다가 목매 죽었다는 나무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당해보았을 유다 콤플렉스란 게 있다. 양심(良心)을 버리고라도 현실에 야합해서 잘 사느냐, 양심을 지키며 어렵게 사느냐의 갈등이 그것이다.

유다는 머리회전이 빠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다. 3년 남짓 예수를 따라 다녀보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이 즈음에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주 말씀하셨다. 최후의 만찬 때, 유다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고, 어차피 죽을 분이라면 예수를 팔아서 돈이라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수도 유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시고 그가

할 일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을 빠져 나온 때가 어두운 밤이라고 했다. 이 어둠은 밤의 어둠 일뿐 아니라 유다가 빠져든 양심의 어둠이기도 했다. 이 어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의 얼굴을 올려 볼 때까지 가룟 유다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은 육체적 고통보다 몇 곱절 컸을지도 모른다. 결국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은 삼십을 성소에 던져 넣고 성밖으로 나가 목을 맸다. 비트리오 알피에리의 말대로 유다는 살려고 노력하는 쪽의 용기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쪽보다 훨씬 약했던 것이다. 삶의 용기가 약했기 때문에 스승을 배신한 것이고, 삶의 용기가 약했기 때문에 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소설가 헤밍웨이(1899-1961)는 사나이다움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남자답게 살았다. 남자답게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무성하게 길렀고, 스페인에서는 투우사가 되기도 했다. 1918년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구급차운전병을 자원하였고, 1919-22년 그리스 터키전쟁 중에는 종군기자로 일했다.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으며, 쿠바에서는 바다낚시를 즐겼고, 권투와 같은 남성적 운동을 즐겼다. 그리고 62세 때인 1961년 미국 아이다호주 농장에서 사냥총으로 자살을 했다.

헤밍웨이도 살려고 노력하는 쪽의 용기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쪽보다 훨씬 약했다. 삶의 용기가 약했기 때문에 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헤밍웨이의 친구이자, 헤밍웨이 전문가인 호세 루이스 카스티요 푸체에 의하면, 헤밍웨이는 1954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소설 같은 삶을 살다 갔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항상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한다. 평생 불을 환히 밝히지 않고서는 잠들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많았고, 연약한 측면이 많았는데, 도전과 모험에 남달리 집착한 것이나 작품 속의

모험들을 실제로 시도했던 것은 죽음의 공포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는 일종의 몸부림이었다. 헤밍웨이는 위험한 일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했고, 치명적인 사고로 죽기를 바랬지만, 결국 자살로써 생을 마감했다. 삶에 대한 진정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황재환이란 사람은 경기도 강화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나 네 살 때 6.25사변을 만났다. 아버지는 월북을 했고, 어머니는 빨갱이의 아내라고 맞아 죽었다. 이 때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네 살 짜리 재환을 데리고 산 속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주어다가 손자를 먹여 살렸다. 그러던 할아버지마저 그해 겨울에 동사하고 말았다. 네 살 짜리 재환은 고아가 됐다. 그 뒤 재환은 저 스스로 동네에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며 목숨을 이어갔다.

그러던 재환이가 일곱 살 되던 해, 바닷가에 나가서 놀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물건을 보게 되었다. 재환은 그것이 보물단지인줄 알았다. 그것을 꺼내어 죽을힘을 다해 열어 보려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서 재환은 옆에 있는 돌을 치켜들고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쳤다. 그 순간 펑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포탄의 뇌관을 내리친 것이었다.

며칠 후에 깨어 보니 미군 야전병원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사고 현장을 날던 미군 헬리콥터가 피투성이가 된 재환을 구했던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을 잃었고, 오른팔은 반 토막만 남았다.

이게 무슨 끔찍한 비극인가? 재환은 죽으려고 몇 번이고 발버둥쳤다. 하지만 번번이 그의 목숨은 살아 남았다. 그 뒤 그는 대구에 있는 고아원에 후송되었다. 그곳에서도 재환은 천덕꾸러기였다. 그는 매일 울었다. 하루는 울고 있는 재환에게 원장이 다

가왔다. "재환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보이나요 뭐." "아암, 믿으면 보이지." 예수를 믿으면 눈이 보인다는 원장의 말에 어린 재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할 욕심으로 열심히 다녔다. 그사이에 재환의 마음은 안정을 찾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고, 잘려 나간 팔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왼손이 멀쩡함을 발견했고, 자신의 고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특송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피아노 앞에 안내된 그는 왼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예수라.

재환은 청아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원장님 말씀대로 저의 육신의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저는 영(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저는 이 목숨 다하도록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는 그 후로 대구에서 음악교사를 하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불구자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피아노뿐 아니라, 트럼펫까지 한 손으로 연주한다고 한다. 삶이 징

그럽도록 싫어서 늘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죽으려고 하는 노력 쪽보다 살려고 하는 노력 쪽의 용기가 더 강해져서, 비록 두 눈이 없고 한 팔이 없는 불구자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고, 세계 방방곡곡을 비행기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고 한 말씀처럼 재환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음만을 생각하던 옛 사람을 묻어버렸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삶의 용기를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켈은 "인간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삶의 가치를 상실한 절망이다"고 했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제 몸을 망가뜨리며 끝없이 방황하게 된다.

빅토르 프랑켈 부부가 나치 독일에 체포되어 각기 다른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죽어갔다. 그 곳에서 그는 인생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루 세끼 먹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해야 하고 짐승 취급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네 인생은 제로가 된다.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다시 만나 그 동안 못 다한 사랑을 다 해주는데서 삶의 가치를 찾아야겠다

고 결심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나가야 했다. 살아남아야 할 삶의 가치를 갖게되자, 빅토르 프랑켈은 그 후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그는 곧장 아내를 찾아 나섰으나 그의 아내는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죽고 없었다고 한다.

비록 프랑켈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 보다 차원 높은 삶의 가치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아내를 다시 만나야한다는 살아야 할 가치를 찾았을 때, 제 2의 인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삶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한 유태인이 고명한 라비(聖職者)를 찾아갔다. "매사에 뜻대로 되는 것이 절반도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한참 생각 끝에 라비는『뉴욕타임스 연감(年鑑)』1970년 판 930쪽을 찾아보면 지혜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집에 돌아와 허겁지겁 연감을 구해서 찾아보니 유명한 야구선수들의 타율이 나열돼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고민을 타개해 줄 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찾아가 물었다. 라비는 역대 최고의 강타자들의 타율을 보라고 했다. "타이컵브, 3할 6푼 7리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타자도 3타석 1안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마다 자기 뜻의 절반 가까이 성취된다면, 당신은 5할 대의 타자가 아닙니까? 만약 모든 선수들의 타율이 10할 대라면 무슨 재미로 야구를 하며, 또 야구 구경을 하겠습니까? 인생도 야구와 같은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어야 세상사는 의욕과 재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고 라비가 그 유태인에게 충고했다고 한다.

과거시험에 일곱 번씩이나 거듭 떨어진 나이 많은 서생(老書生)이 중국에 있었다. 자신보다 글이 짧고 노력도 덜하는 사람들

은 급제하는데, 자신만 거듭 낙방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읽던 책들을 팽개치고 옥황상제를 찾아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상제는 운명의 신과 노력의 신을 불러놓고 나이 많은 서생이 보는 앞에서 술시합을 시켰다. 노력의 신은 석 잔만에 쓰러져 버리고, 운명의 신은 일곱 잔만에 쓰러져 버렸다. 상제는 서생에게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인생의 일이란 십중삼(十中三)은 노력에 지배되고, 십중칠(十中七)은 운명에 지배되는 법이다. 다만 십중삼을 다한 후에야 십중칠이 찾아오는 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서생은 집에 돌아와 팽개친 책들을 다시 챙겨 과거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인생이 타자라면, 운명은 투수라고 한다. 아무렇게나 휘둘러댄다고 운이 와서 맞아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치는 사람도 3할 7푼 대를 못 넘기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 열 개중에 세 개만 쳐도 최고의 타자로 대우받는다. 그만큼 야구에서는 3할 대를 내기가 어렵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이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법이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은 법이다.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은 법이다. 그러나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세우고 노력한다면, 삶에 필요한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푸슈킨의 시어(詩語)처럼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슬프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삶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4. 기독 청년의 바른 가치관(1)

(전 11:7-12:1)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돈일 것이다. 요즈음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돈의 가치가 커 보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왜곡된 특징은 돈 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나라 현실을 보면, 돈 되지 않는 것은 다 퇴출대상이 되고 있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은행들이나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취업에 불리한 대학의 학과들조차도 구조조정 내지는 퇴출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사회가 추구하는 최선의 노력은 이윤추구이다. 이윤이 나지 않으면 수십 년을 함께 일했던 동지들조차도 명퇴 시켜 거리에 나 앉게 하는 것이 오늘의 비정한 현실이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가장 무섭게 지배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초점이 온통 돈 되는 쪽에 맞추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들이다. 대중매체들의 주된 관심은 옳고 그름보다는 시청률이나 구독률에 있다.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떨어지면 광고료를 받지 못해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TV나 신문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다 옳고 선한 것으로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일등공신이 바로 대중매체이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들은 현대인에게 "돈 되는 것이 가치 있다. 재미있는 것이 가치 있다. 날씬하고 마른 것이 예쁘다. 미남이나 미인은 착하고 선하다. 그러나 추남이나 추녀는 나쁘고 악하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메시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이 바로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이다.

영상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옴진리교 사건이다. 김현구 교수가 쓴『일본 이야기』에 보면, 1994년 6월 27일 일본 나가노(長野)현 마쯔모또(松本)시에서 독가스 사린 살포로 일곱 명이 죽고 200여 명이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95년 3월에는 토오꾜오의 다섯 군데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독가스 사린을 살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일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특히 5월에는 토오꾜오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신쥬꾸에서 독가스 살포장치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마쯔모또시 사린 살포사건은 담당 재판관을 죽임으로써 토지 매매를 둘러싼 현지인과 옴진리교 사이의 재판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재판관 관사가 있는 주택가에 살포한 것이었고, 토오꾜오 등지의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린 살포사건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인류대란이 닥쳐오고 있다는 아사하라(麻原) 교주의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헬리콥터로 토오꾜오 상공에서 사린을 살포해 시민을 대량으로 살상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독가스 사린의 제조와 살포 계획을 수립한 옴진리교의 핵심세력이 대부분 토오꾜오대학이나 와세다대학과 같은 일류대학 출신의 의사나 우주센터에 근무하는 일본 최고의 엘리트층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최고의 엘리트층이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계획하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게임기와 같은 영상매체가 생기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천천히 감정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나 체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책임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런데 요즈음은 영상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이 깊이 생

각해볼 여유도 없이 영상매체를 통해서 폭력물이나 포르노를 자주 접하게 되고, 감각조차 둔해져서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또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모른 채, 실험적으로 폭력을 휘둘러보거나 살인을 해보는 일까지 일어난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출신의 옴진리교도들이 인류의 대란이 닥쳐오고 있다는 아사하라 교주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려한 일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영상매체를 통해 단순히 즐기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고뇌해보지도 않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장난스럽게 재현해본 데 불과한 것이다.

요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한 역은 전부 잘생긴 탤런트가 맡고, 둔하고 악하고 못난 역은 전부 못생긴 탤런트가 맡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잘생긴 사람은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둔하고 악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인간성이나 자질은 불문하고 얼굴만 좀 말끔하게 생기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옴진리교의 아사하라 교주가 체포된 뒤에 옴진리교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옴진리교측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던 죠오유(上祐)라는 청년은 일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범죄단체의 책임자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여학생들의 우상이 되었고, 일본의 방송들은 죠오유에 대한 방송을 하면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 다투어서 죠오유에 대한 추적방송을 했다고 하니 대중매체가 섬기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만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의 접촉을 통해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조나 가치관 또는 이념을 만들기도 하며, 또래집단이 쓰는 용어나 패션을 따라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비판에 민감하게 되고,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의 승인과 소속감을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또래 집단과의 접촉이 필요하게 되고, 또래집단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의 표시로 몸치장을 동일하게 하고 같은 언사를 사용한다. 이런 현상을 동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타는 대부분 상업주의를 앞세운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기인들은 인기인들대로 인기유지를 위해서 뭔가 특색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옷이나 머리모양 액세서리를 남과 다르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청소년 팬들은 '가수 누구처럼, 탤런트 누구처럼'하면서 똑같이 흉내를 내고 싶어한다.

청소년 팬들이 가장 흉내내고 싶었던 가수가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 "환상속의 그대," "교실 이데아," "발해를 꿈꾸며" 등을 불러서 '서태지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신세대 문화의 대변자로 일컬어졌다. 서태지와 관련된 책들만 해도 『서태지를 읽으면 문화가 보인다』,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서태지와 꽃다지』가 있을 정도이다.

얼마 전 삼성이 음반제작비로 20억을 서태지에게 지급하고 그의 새 음반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PC통신은 한 순간에 쑤셔놓은 벌집이 돼버렸고, 새 음반을 준비하고 있던 가수들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부분 출반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루는 가하면, 서태지 음반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도·소매점의 선주문 판매량이 60만장을 넘어섰으며, PC통신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팬들도 2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음반 관계자들은 서태지의 새 음반이 2백만 장은 팔릴 것으로 내다볼 정도로 서태지 신드롬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두가 다 상업주의를 앞세운 대중매체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기독교인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1절의 말씀은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한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젊어서 성경을 믿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1839~1937)였다.

록펠러는 나이 20세에 친구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였고, 24세에 부업으로 정유소를 설립한 것이 크게 번창하여 31세에 자본금 100만 달러로 석유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43세 때에는 미국 내 정유소의 95퍼센트와 해외에도 유전과 정유소를 소유한 거부가 되었다. 회사를 그만 둔 후에는 시카고대학, 록펠러재단, 일반교육재단, 록펠러의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번 돈을 자선사업에 사용하였다.

록펠러는 부와 명예뿐 아니라,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다. 그러나 53세 때에 극도의 고민과 긴장된 생활로 인해서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때가 있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한 주일 식비는 고작 2달러에 불과했다. 소량의 산화 밀크와 2~3개의 크래커가 의사가 그에게 허락한 음식물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53세로 죽지 않고, 98세까지 장수를 누렸던 것은 의외로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록펠러는 돈벌이가 좋다는 소식이외에는 결코 웃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손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 앓아눕곤 했다. 50만 달러 이상의 큰 거래를 하는 록펠러는 불과 150달러의 보험금 손해 때문에 병상에 눕기도 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나 오락도 하지 않았다. 오직 돈버는 일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전부였다. 그는 밤마다 사업에 실패할까봐 또는 고용인이나 동료들이 사업상의 비밀을 누설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사람을 신용하려 들지 않았다. 결국 의사들은 록펠러에게 돈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했다. 그때 그는 깨달은바가 있어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록펠러는 자신이 번 그 많은 돈으로 자선사업을 시작했다. 페니실린의 발견을 비롯해서 척수염, 말라리아, 결핵, 유행성감기, 디프테리아 등의 치료법이 그가 낸 기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세워졌다.

록펠러는 자신의 돈이 유익한 곳에 쓰이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는 마침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록펠러는 행복하였다. 돈은 버는데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곳에 쓰는데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다. "영웅의 특징은 소유하고 약탈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의 특징은 존재하고 주고 나누어 갖는 것이다." 록펠러가 한 때 젊어서 영웅적으로 돈을 긁어모을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했지만, 모은 재산을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었을 때에는 가장 행복하였고, 건강할 수 있어서 98세까지 살았다.

록펠러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생활신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렸을 때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잊지 않고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고 한다. 그의 생활신조는 열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넷째, 예배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십일조 주머니로 드려라.
여섯째, 주일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일곱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5. 기독 청년의 바른 가치관(2)

(롬 12:1-2)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파괴, 해체, 또는 퇴

출 현상이다. 가정파괴, 가족해체, 환경파괴, 기업퇴출, 기업해체는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던 가치들이 파괴되거나 퇴출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파괴 또는 해체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들은 20세기를 힘겹게 지탱해온 전통적인 가치관을 좋은 방향에서든 혹은 나쁜 방향에서든 여지없이 뭉개놓고 말 것이다. 도대체 신세대의 가치관들이 어떤 것들이기에 이런 망발을 하지 않으면 안될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신세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겠다.

기성세대는 인격을 갖춘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 신중하고 점잖은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세대는 개성과 멋이 있는 사람, 창의성이 있는 사람, 감성적이고 정열적인 사람, 자신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본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7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행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년 전 학생들은 마음의 평안이나 양심에 부끄럼 없는 생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지만, 신세대 학생들은 여유 있고 편안한 생활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20년 전 학생들은 인격수양이나 자제력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신세대 학생들은 독립심이나 개인의 능력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 20년 전 학생들은 가치실현을 위한 도구로 성실과 책임과 인격수양을 최고로 꼽았지만 신세대는 성실과 개인의 능력과 창조력을 꼽았다.

기성세대는 옳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고 싶은 행동도 상대가 싫어하면 참고, 고통과 인내는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세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며,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가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옷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지만, 신세대는

남의 시선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다. 또 기성세대는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했지만, 신세대는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호와 선호를 중요시한다.

기성세대는 덕 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색깔 없고, 평범하고, 다방면에 재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했다. 그러나 신세대는 개성 있고, 컴퓨터 잘 다루고, 색깔 있고, 비범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기성세대는 음식점을 가거나, 쇼핑을 할 때에 단골집이나 싼 곳을 선호했지만, 신세대는 음식점을 가거나, 쇼핑을 할 때에 편리한 곳을 찾는다.

기성세대는 자기 자신보다는 집단이나 사회를 우선했지만, 신세대는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자기 자신을 우선한다.

기성세대는 어른은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했지만, 신세대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괴짜들을 싫어했지만, 신세대는 괴짜라고 싫어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고, 군대와 같은 집단생활이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신세대는 고생자체는 안 할수록 좋고, 집단생활이 개인의 능력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윗사람이나 외국인 앞에서 주눅이 들었지만, 신세대는 윗사람이나 외국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기성세대는 무난하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했지만, 신세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다.

기성세대는 무겁고 심각한 대화나 철학적인 사고를 가치 있게 보았지만, 신세대는 가볍고 재미있는 대화나 감성적인 생활을 가치 있게 본다.

기성세대는 외식을 낭비로 생각하면서 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지만, 신세대는 외식을 삶의 윤활유로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돈은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며, 돈은 고생한 만큼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세대는 돈은 기회만 만들면 벌 수 있으며, 돈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역사와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적이라고 생각했고, 미래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신세대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은 역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은 변화무쌍하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친구를 의리로 사귀었으며, 비록 도움은 안되더라도 친구의 걱정을 함께 고민하며, 친구의 잘못을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세대는 친구를 취미와 취향으로 사귀게 되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걱정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로 알게 되며, 친구의 잘못은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친한 사람과 만나야 재미가 있고, 우정은 지속되어야 하며, 많은 친구보다는 깊게 사귀는 소수의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 그러나 신세대는 모르는 사람과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고, 우정은 반드시 지속될 필요가 없으며, 친구는 폭 넓게 사귀되, 필요한 사람을 사귀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귈 때 믿을 수 있는가를 보았다. 그러나 신세대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귈 때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

기성세대는 남에게 존경받는 직업, 품위 있는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옮겨 다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신세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존경이나 품위 따위는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옮겨 다니는 일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세대는 미래의 성공보다는 오늘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듬직한 남편과 현모양처가 좋고, 자식을 나서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신세대는 재미있는 남편과 톡톡 튀는 부인이 좋고, 자식 키우는 것을 귀찮게 여길지도 모른다.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신세대의 가치관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았다.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틀린 것도 있을 것이다. 또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신세대의 가치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다. 구세대든 신세대든 양쪽 모두에 옳은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쁜 가치관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의 기술과학정보사회 또는 도시문명사회가 기존의 가치들을 신속하게 파괴 또는 해체시키고 있고, 여기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걸러볼 생각조차 없이 빨려들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세대간의 격차와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신세대들에게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드려졌었고 대를 물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부터는 기존의 가치관이 급격히 파괴 또는 해체되고 있다. 이런 가치파괴나 해체가 그간의 왜곡된 가치들과 전통들로부터 인간을 해방했거나 해방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옛 전통과 구습의 도시 갈대아 우르는 벗어났지만, 우르보다 더 무서운 돈과 쾌락의 성 소돔에 빠져든 것과 같다. 여우굴에서 빠져 나와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다. 다행히 롯과 그의 두 딸은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소돔 성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곳을 탈출하였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소돔 성을 떠나는 길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를 잘 듣고 성

서가 옳다고 말한 만고불변의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또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맡기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기존의 권위나 전통이나 가치관이 여지없이 파괴되거나 해체되는데 있다. 철학적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과학적 진리까지도 해체되고 있다. 파괴의 주범들은 현대인들이다. 현대인들은 마치 모든 것이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지배되고 있고 또 그것들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 상업주의를 앞세운 대중매체가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대중매체들이 현대인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만가지 악의 뿌리인 돈에 눈을 뜨게 만들고는 다른 모든 선한 가치들에는 소경이 되게 하고 있다. 대중매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옛 전통과 구습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든 후에 멸망의 도시 소돔 성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대중매체들이 믿음과 사랑과 같은 불변의 가치들조차도 해체시켜버린 후에 그 자리에다 주관적인 가치들로 멸망의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현대인의 비극이 숨어있다. 소돔성이든 바벨탑이든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이런 타락한 소돔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창부라고 일컫고 있다.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고 하였다.

구약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진 세 개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바다와 강을 건넌다. 이집트와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진 세 개의 나라이고, 홍해와 요단강이 우리 인간이 건너야 할 바다와 강이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쾌락의 신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광야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로써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내산에 모여 돈과 쾌락의 신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지 않기로 굳게 서약한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20장 3-5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행한 약속이다. 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행한 약속이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이생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행한 약속이다.

이 광야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야 한다. 돈과 쾌락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무엇이 되느냐에 더 큰 가치를 둬야한다. Doing보다는 Being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한다. 좋은 나무가 되고 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는 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소유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더 큰 가치를 둬야한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놓고 판단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썼느냐를 놓고 판단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생활에 더 큰 가치를 둬야한다. 예수는 섬기려 왔고 생명까지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다(막 10:45).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둬야한다. 육신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